

2030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

목 차

I	개요	05
1.	연구의 개요	07
2.	미래유산의 개념 및 성격	10
3.	미래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13
II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21
1.	2023년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23
2.	미래유산 선정현황	27
3.	분과별 미래유산 산정목록	29
4.	정책토론회 개최	72
5.	미래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75
6.	미래유산 해외 정책홍보 활동	77
III	서울 미래유산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79
1.	주요성과 및 문제점	81
2.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84
3.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87
4.	단계별 세부과제 추진방안	120
부록:	미래유산과 연계가능한 서울시 지원사업	121
	참고문헌	163

|

개요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현대를 살아온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서울의 문화가 되어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여전히 전통시대와 그 맥을 함께 하는 것도 있고 전통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것도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외래에서 유입된 것도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접목되어 새로이 창조된 것도 있다.

이러한 문화는 근·현대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시기와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해석되지 못하였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의 수용과 기술발달로 인한 편리성의 추구 속에서 근·현대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조차 형성되지 못한 채 쉽게 잊히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기존의 법과 행정에 의해 규정된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보존가치가 여전히 형성과정에 있으면서 현실의 이용가치와 대치하고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의 자발적 보전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미래유산을 통하여 소유자·관리자에게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알려주고,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자긍심을 부여하여 주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미래유산은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식을 수용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하여 보존·활용 방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자 하는 유연한 성격의 정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2013~2023년 동안 499건의 근·현대 문화유산이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는 2건의 미래유산이 소유자·관리자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연구는 2012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서울 미래유산의 궤를 함께한다. 따라서 2023년 1월 이후의 시민제보, 전문가 제안, 서울시 관련 부서의 요청사항 및 자치구 제안사항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연구진의 자체 발굴을 통하여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선발하는 한편 선발된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기초현황조사표를 작성하고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미래유산 선정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2년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미래유산의 사회·경제·문화적 성과 및 도출

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서울시민과 내용을 공유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미래유산의 발굴·기초현황조사

2023년 01월 이후의 시민제보, 자치구 및 연구진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14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심의상정을 위한 기초 심의를 실시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5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에 대하여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미래유산 기초현황조사는 조사원이 건축물대상, 토지이용대상 등의 문서열람, 현장 답사 및 사진촬영, 관련자 인터뷰, 관련자료(史料)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현황조사표의 내용을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기초현황조사표는 크게 ①일반현황, ②보존필요성, ③활용방향, ④현장조사, ⑤소유자·관리자면담, ⑥관련지도 및 사진자료, ⑦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⑧기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미래유산의 선정

2023년 10월 30일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시민생활분과) 상정된 5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에 대한 미래유산 선정심의회가 진행되었다. 심의결과, 5건의 예비후보 가운데 한국의집과 미일이발관이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소유·관리자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505건의 미래유산 가운데 이명래고약공장은 멸실, 원삼탕, 영동스넥카, 문화이용원은 폐업, 방산종합시장은 소유자·관리자요청에 의하여 미래유산에서 해지되었다. 한편 유네스코회관, 서울시립대학교 경농관과 자작마루가 각각 국가 및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2023년, 선정이 최종 확정된 499건의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서울 미래유산 선정목록과 분포지도를 업그레이드하였다.

서울 미래유산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2023년 09월 07일 서울도시건축센터 2층 라키비움에서 '서울 미래유산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역 차원의 문화유산 보전 모델을 제시하였던 미래유산의 지난 10년간 노력을 반추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서울시민과 함께 모색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6인의 전문가가 ①미래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미래유산의 홍보방향, ②미래유산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방향, ③스토리텔링을 통한 미래유산의 창의적 활용방향, ④미래유산에 있어 서울역사박물관의 역할과 협력방향, ⑤미래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주체간 협력 및 행정지원방향, ⑥미래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래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2023년 09월 11일~12일 양일에 걸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요리사와 음식을 주제로 동영상 제작하였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하여 미래유산을 주제로 한 여러 관련 동영상이 제작되

어왔으나 대부분 현장을 찾아가 단순히 미래유산을 소개하거나 소유자(관리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동영상 콘텐츠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화상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매체의 특성상 서울시민이 직접 미래유산을 체험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한말 서울 반가의 음식을 한글로 소개한 조리서인 <조선요리법>을 소개하고 이 책에 수록되어있는 구절판과 너비아니를 직접 현대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조리법을 동영상을 통하여 공유하였다.

서울연구원에서는 미래유산에 담긴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도보 관광 여행서인 2018년 <서울감성여행>을 발간한 바 있다. 단순히 도보 루트를 따라 접하는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기존의 방식을 대신하여 미래유산을 소재로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고 다시 그 속에서 여러 미래유산을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오프라인 형식의 국문판 도서로 제작된 결과,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미래세대와 외국인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 핸드폰을 활용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서울감성여행>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서울감성여행을 통하여 제시된 에피소드 가운데 일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2024년부터 서울연구원과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미래유산 해외 정책홍보 활동

전문가에 의하여 선정되어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문화재와는 달리 시민참여와 주도의 형태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기억과 감성을 미래유산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공유하고자 하였던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을 해외에 소개하였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지난해 ‘미래유산의 개념과 내용’, ‘미래유산 주요사업 소개’로 구성된 2편의 홍보 동영상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올해부터 서울연구원과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스트리밍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영어, 스페인어로 진행된 해외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미래유산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해외 공무원과 공유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멕시코시티와 카이로의 공무원과 함께 문화유산의 저변확대와 다양한 보존·활용 해법을 모색하였다. 지역 커뮤니티의 변화과정을 아카이브하고 이를 온라인 지도로 작성하여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서울연구원을 방문하여 미래유산 관련 서울시 정책을 공부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30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 수립

지난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미래유산의 사회·경제·문화적 성과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2013년 발표한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미래유산의 발굴·보존·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8년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 2023』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문화유산 보전관리 제도로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고민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래유산을 활용한 서울 문화 창작의 기반 마련’을 목표를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서울만의 고유한 문화 창작 코드로서 미래유산의 미래가치에 주목하는 한편 심층 연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의 내용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문화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미래세대와의 협력을 통하여 창조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서울시의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2. 미래유산의 개념 및 성격

2.1 미래유산의 개념

미래유산이란 서울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 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과 감성은 다양한 세대와의 공유를 통하여 미래에 전승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견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의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유산이다. 따라서 미래유산의 가치는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미래유산은 과거 지향적인 기존의 문화재와는 달리 이러한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미래유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성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치의 유동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미래유산의 가치유동성은 미래유산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기존 문화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미래유산의 개념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가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미래유산은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혹은 공유할 수 있거나 공유할만하다고 추정되는 집단기억 또는 감성을 중시한다. 미래유산은 전문가들에 의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정리·선별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서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기억 또는 감성에 대한 사회적, 혹은 정서적 합의에 기초한다. 전문가의 전문성에서 벗어난 사람들 간의 느슨한 합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화유산의 가치 유동성을 수용하는 한편 기존의 법·제도에서는 그 보전가치가 논의되지 않았던 집단 기억 또는 감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기존 문화재의 정의	
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거나 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예비문화재	•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현대 우리 삶과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미래의 가치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예비문화재의 정의

2.2 미래유산의 성격

과거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유산은 역사적 의미에서의 보존가치와 현재 시점에서 사용가치 측면으로 그 성격을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보존가치란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그리고 상징적 가치를 의미하며 사용가치란 활용측면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경제적 가치란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용을 제공하는가, 또는 지역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공유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문화재에 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중히 여겨왔으며, 이러한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선정하고 보존방법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문화유산에 담긴 보존가치와 함께 사용가치도 고려하여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즉, 기술문명의 발달과 함께 삶의 방식과 생활문화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쉽게 사라지거나 잊혀져가는 우리의 생활 모습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정신적·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유산은 근·현대 시대를 살아온 서울시민들이 서울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해 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이라는 보전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담고 있다. 미래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시대성: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사건, 인물, 사물, 장소 등과 관련이 있을 것
- 지역성: 서울을 배경 또는 소재로 하여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
- 공유성: 서울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유산일 것
- 민속성: 서울시민의 생활특성을 반영한 사회·문화적 또는 민속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2.3 미래유산의 유형

미래유산의 외현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 인공물(cultural artifact), 문화적 행위·이야기(cultural behavior·story), 배경(cultural background)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미래유산 보전정책을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물, 사람들의 행위이나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스토리, 그리고 사물이나 행동 또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장소·문화적 배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고 경험된다. 따라서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보전하는 일은 이러한 보전가치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인공물, 문화적 행위·이야기, 배경을 미래유산으로 보전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먼저, “문화적 인공물”이란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을 하나의 사물로서 구체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것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토목구조물이나 건축물 등과 같은 건조물, 회화나 조각, 공예품, 공산품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 행위·이야기”는 의식이나 기술, 전통과 명성, 이야깃거리 등과 같은 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노래, 지역의 전래의식, 장인의 기술이나 오래된 가게의 명성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인공물 또는 문화적 행위·이야기 등이 만들어지는 배경으로서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 등을 “배경”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비교적 공간적 범위가 넓은 마을이나 시장,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다.



미래유산의 유형

3. 미래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3.1 미래유산의 대상 및 선정기준

서울 사람들이 공유하는, 혹은 공유할 수 있거나 공유할만하다고 추정되는 집단기억 또는 감성의 대상이면 무엇이든 미래유산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에 기초하여 문화유산의 가치가 객관적 보편성을 획득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미래유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대상으로서의 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문화재는 이미 기존 법·제도의 틀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유산 보전이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만큼 미래유산은 서울이라는 장소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유산이 담고 있는 기억과 감성은 서울이라는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서울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유산은 미래유산의 개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비록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유산의 보전가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유산 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의 보전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는데 있다. 따라서 미래유산의 대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 서울시민이 지역의 명물로서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미래유산의 선정기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유·무형의 것 가운데 서울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도시·건축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 ②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 ③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 ④ 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3.2 미래유산의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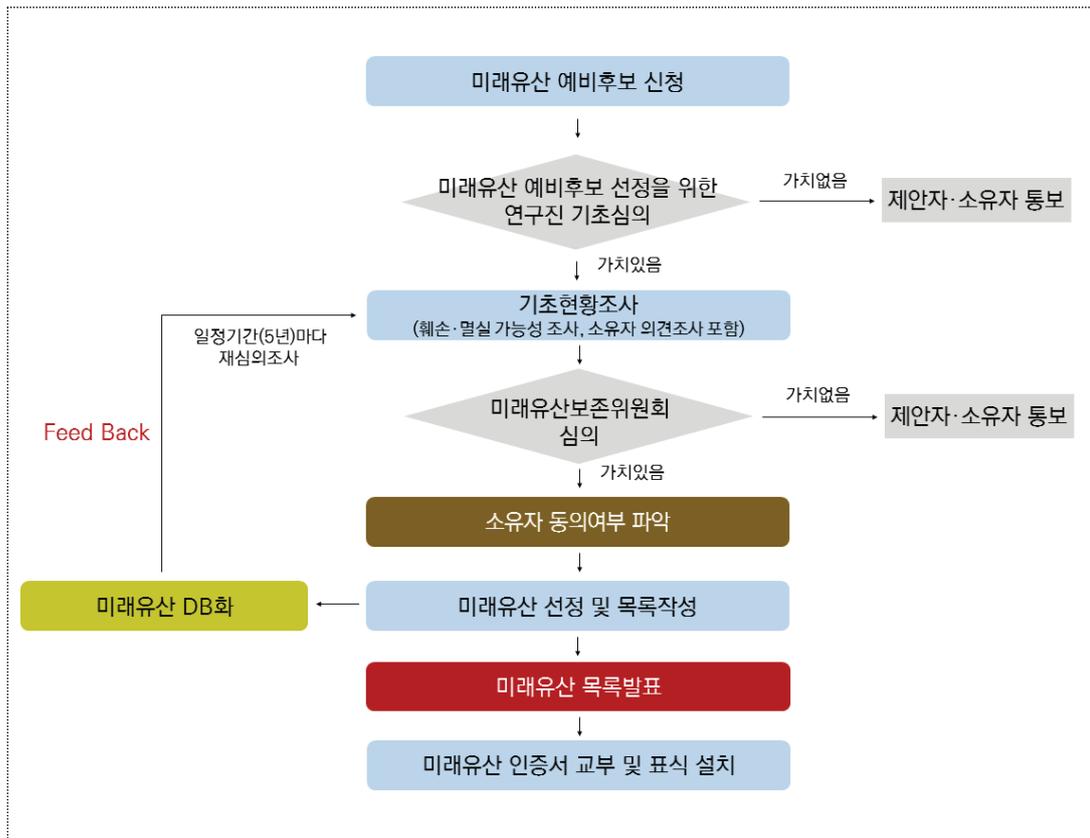
미래유산의 선정과정은 시민의 손으로 발굴한 미래유산에서 보전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다. 미래유산의 선정과정은 크게 미래유산의 발굴·신청, 조사·심의, 선정·발표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미래유산의 선정과정에서 미래유산의 발굴·신청단계는 시민들의 미래유산 보전에 대한 가치공유와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단계이다.

미래유산의 발굴과 신청은 시민주도에 의한 상향식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참여방식을 마련한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래유산의 대상범위는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한 분기별 수집방식도 병행함으로써 미래유산 발굴·신청 작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시민에 의하여 발굴·신청된 미래유산 예비후보에 대한 조사 및 심의작업을 수행한다. 시민에 의하여 제안된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서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집단기억과 감성을 지닌 것을 선별하기 위한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을 심의하고 선정된 미래유산 가운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위기의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방안을 마련한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미래유산은 미래유산 보전목록에 등재하고 관련정보는 DB화하여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이해와 주도적 참여를 구하고 선정된 미래유산은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서울 미래유산으로 최종 확정·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한다.

매년 미래유산의 보전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래유산 보전목록을 조정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유산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미래유산은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을 추진한다. 일정기간(5년)마다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예비후보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를 재실시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선정여부를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의뢰한다.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절차

3.3 소위원회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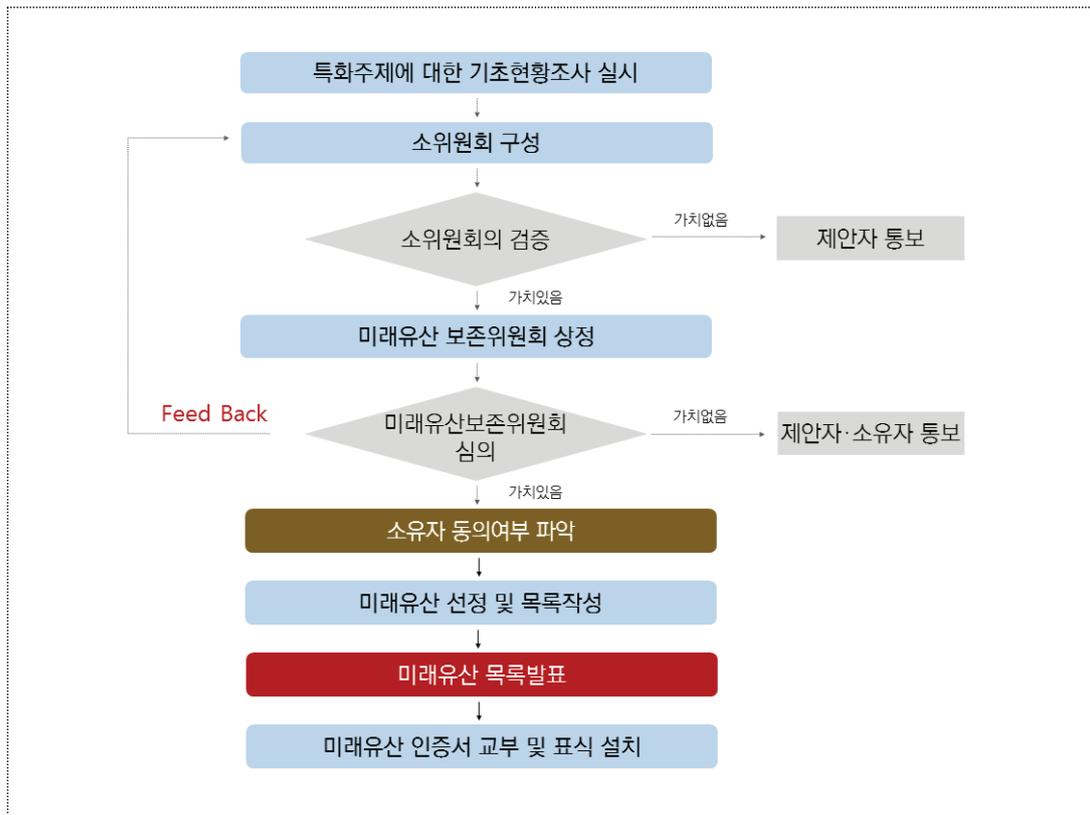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유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5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위원만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미래유산 예비후보의 검증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또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전문성이 높은 외부전문가 2~3인으로 미래유산 예비후보의 사전검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개최는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미래유산을 심의·선정하는데 있어 전문성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미래유산을 심의·선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된 위원은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에게 미래유산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미래유산 예비후보가 검토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진행한다. 한편, 소위원회가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정기준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대표로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한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내용에 관하여 미래유산을 심의·선정하는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절차

3.4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절차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기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것 가운데 ①물리적인 시설 노후화 또는 도시정비·재생사업 등의 외부위협요인 등으로 인한 보전의 시급성, ②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한 공공관리의 필요성, ③시민공유자산으로서의 잠재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미래유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신청한 미래유산에 대하여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화하도록 한다.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기준]

미래유산 가운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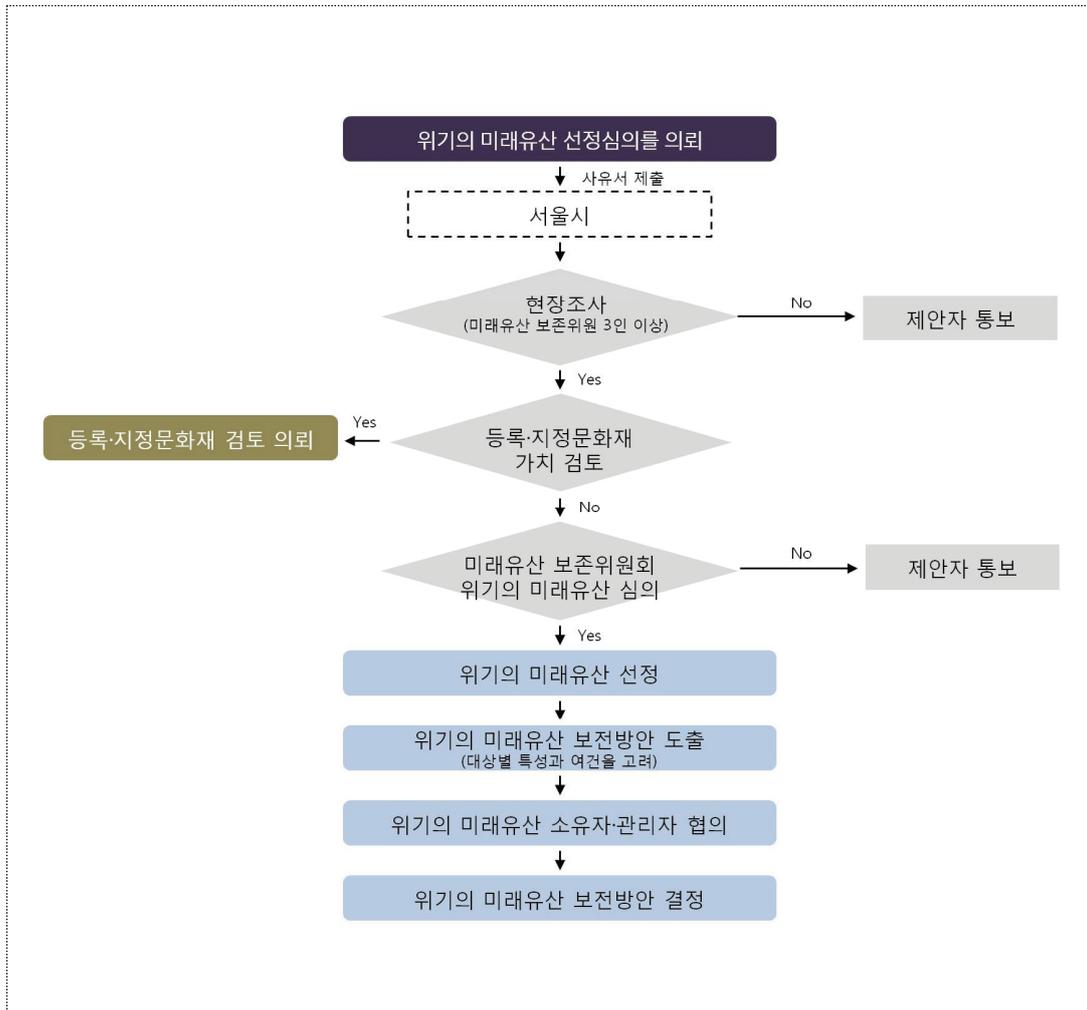
- ① 관리주체가 없어 보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② 적극적인 수리·보수로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데 있어 파급효과가 큰 경우

위기의 미래유산 보전방안 설정

위기의 미래유산에 대한 보전방안은 대상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해법을 사안별로 도출한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보전해법은 위기의 미래유산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결정한다.

위기의 미래유산 시민개방

소유자·관리자 협의를 통하여 보전방안이 최종 결정된 위기의 미래유산은 수리·보수의 과정을 거친 후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위기의 미래유산 선정 및 관리방안 도출 절차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1. 2023년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1.1 추진과정

미래유산 예비후보 발굴

2023년 01월 이후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한 시민제보(12건), 자치구 제안(1건), 연구진 제안(1건) 등을 통하여 총 14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발굴하였다. 이후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담당 부서(미래유산팀)의 기초심의를 거쳐 선별된 5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미일이발관, 아구본가침병, 조순가옥, 한국의 집, 이남장 설령탕)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미래유산 예비후보에 대한 기초현황조사

기초심의를 통과한 5건의 미래유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래유산 기초현황조사는 조사원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대장 등의 문서열람,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 관련자 인터뷰, 관련사료(史料)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현황조사표의 내용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기초현황조사표는 크게 ①일반현황, ②보존필요성, ③활용방향, ④현장조사, ⑤소유자(관리자)면담, ⑥관련지도 및 사진자료, ⑦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⑧기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미래유산의 선정

2023년 10월 30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심의(시민생활분과)를 위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건의 예비후보가 최종 선정되었다. 미래유산의 선별은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 결정한 세부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명단

분과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정치역사	최윤철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박현숙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유석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정재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지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관
산업노동	표정훈	평론가	변용찬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은영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주하연	서강대학교 경제학전공 부교수
	최동욱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김하나	서울대학교 BK사업단 연수원연구원
시민생활	고종원	국회 허은아의원실 선임비서관	황보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장
	이현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유삼현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이혜미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황혜선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도시관리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석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조현정	문도건축유산보존연구소 소장
	김태형	재단법인 목천문화재단 팀장	김정현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문화예술	나선화	前 문화재청장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조은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동경원	무용이론연구자
	배소연	연풍예술단 대표	이재정	문화예술 스타트업 디타임 대표

※ 분과위원장은 음영처리

분과별 세부선정기준

[정치역사분과]

- 당시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 미래유산의 선정보다는 표석설치, 지도표시의 수준에서 정리 (표석설치는 표석설치 위원회에서 결정)
- 동상, 탑, 기념물의 경우,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선정
- 분묘의 경우, 가옥에 비해 보존의 중요도가 낮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에는 논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래유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산업노동분과]

- 개별건조물보다는 산업활동 간의 상호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
- 개별건조물의 경우, 서울의 도시산업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건조물을 선정
- 공산품의 경우,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지닌 것을 선정
- 산업노동사적인 가치가 모호한 동상, 탑, 기념물의 경우,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선정
- 서울의 산업화와 노동현실을 다룬 문학작품의 경우, 미래유산 자료(신설)로 분류하여 관리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시민생활분과]

- 사업자 등록상의 개업연도가 40년 이전인 소매업종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시켰을 경우에 선정
 - ①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
 - ② 기업전승 여부, 장소의 연속성 유지, 독특한 이야기거리, 상호의 변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 집합주택의 경우, 만들어진 후 40년 이상이 경과한 것 가운데 최초 또는 시대별 주거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을 선정
- 특화거리·시장의 경우, 형성된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것 가운데 독특한 지역 경관과 가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상호 메커니즘이 생활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리를 선정. 커뮤니티 단위의 지역시장이나 상업가로는 제외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도시관리분과]

- 만들어진 후 40년 이상이 경과된 건조물로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시켰을 경우에 선정
 - ① 근대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있는 건조물
 - ② 멸실·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것
- 서울의 도시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조물 또는 흔적을 선정
- 건축거장의 건축물의 경우, 시대별 대표작 또는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

[문화예술분과]

- 당시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 미래유산의 선정보다는 표석설치, 지도표시의 수준에서 정리 (표석설치는 표석설치 위원회에서 결정)
-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주요한 인물의 가옥이나 작업공간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선정하되 인물당 미래유산의 선정은 최대 2개까지로 한정
 - ① 서울에서 삶의 주요시기를 보낸 인물로 사후 20년이 되었거나 193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 ② 작품제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소
-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작품의 경우,
 - ① 음악·문예·연극·영화·판토마임·무용·대중예술 등의 경우, 무형의 예술적 가치만을 판단하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물당 최대 2개까지로 한정하여 선정
 - 사후 20년이 되었거나 1935년 이전에 출생한 감독·작가의 작품
 - 작품이 제작·출간된지 40년 이상 된 작품
 - 전반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 당시 서울의 생활상이나 주요 장소적 특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
 - ② 회화·조각·공예품 등의 경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창작된 유형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
-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장소나 건조물의 경우,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1.2 미래유산의 선정해지 및 명칭변경

2023년 폐업 또는 문화재 등재로 선정이 해지된 미래유산은 총 8건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선정이 해지된 미래유산의 형상을 바탕으로 유형유산(有形遺産)과 무형유산(無形遺産)으로 구분하고 유형유산의 경우 동산·부동산·자연물로, 무형유산의 경우 생활문화·예술활동·기타자료로 다시 세분류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3년 선정이 해지된 미래유산은 유형유산 4건, 무형유산으로 4건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선정이 해지된 유형유산은 모두 부동산으로 이명래고약공장은 시설 노후화로 현재는 멸실되어 해당 부지가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네스코회관은 국가등록문화재(2022.07.14.), 서울시립대 경농관과 자작마루는 서울시 등록문화재(2020.12.17.)로 등록되었다. 한편 무형유산 가운데 미래유산이 해지된 사례는 생활문화 4건으로 원삼탕, 영동스넥카, 문화이용원은 폐업 처리, 방산종합시장은 소유관리자 요청에 따라 미래유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소유·관리자의 요청으로 미래유산의 명칭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문익환 가옥(통일의 집)이 문익환 통일의 집으로, 포린북스토어는 이태원 북스(구 포린북스토어)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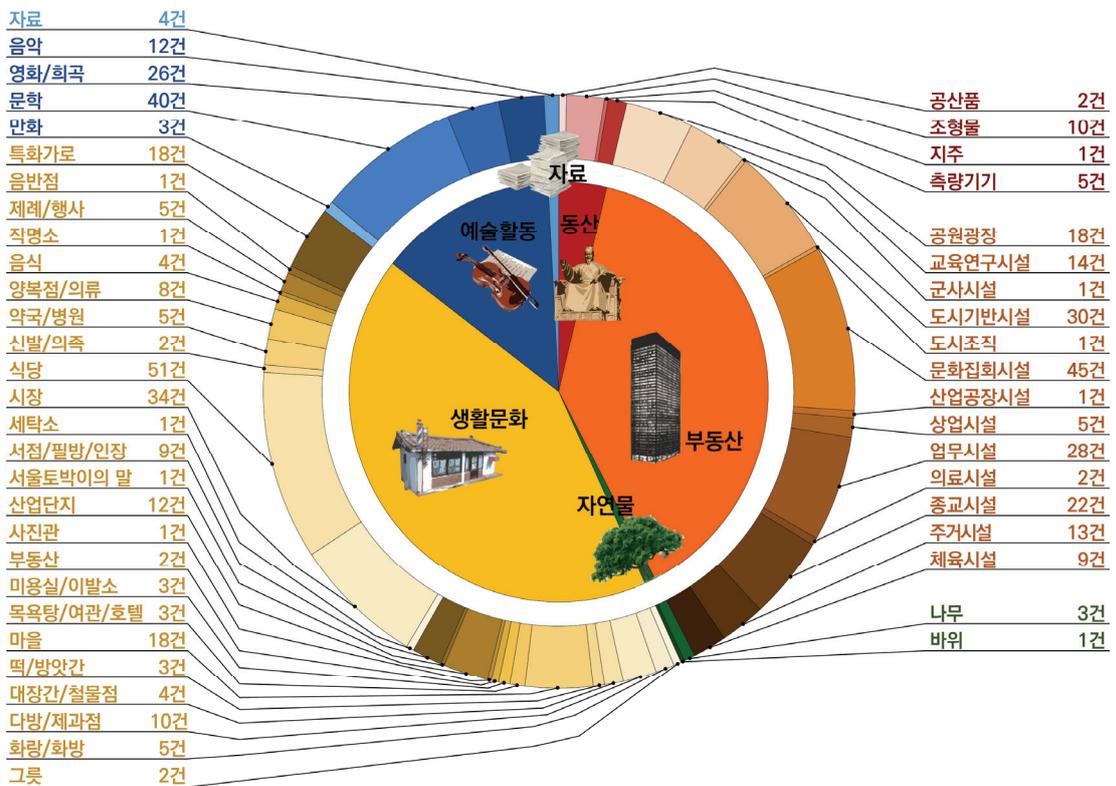
2023년 미래유산 선정해지 현황

구분	유형	개수	미래유산	
유형	동산	멸실	-	
		선정취소	-	
		문화재등재		
	부동산	멸실	1	이명래고약공장
		선정취소	-	
		문화재등재	3	유네스코회관, 서울시립대 경농관,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자연물	멸실	-	
		선정취소		
		문화재등재	-	
무형	생활문화	멸실	3	원삼탕, 영동스넥카, 문화이용원
		이전	-	
		선정취소	1	방산종합시장
	예술활동	멸실	-	
		선정취소	-	
	자료	멸실	-	
		선정취소	-	

세부 유형별 선정항목

2013~2023년 선정된 499건의 미래유산의 형상을 바탕으로 유형유산(有形遺産)과 무형유산(無形遺産)으로 구분하고 유형유산의 경우 ①동산, ②부동산, ③자연물로, 무형유산의 경우 ④생활문화, 예술활동, 기타자료로 세분류하였다. 형상에 따라 세분류된 미래유산으로 다시 용도에 따라 ①동산 4종, ②부동산 13종, ③자연물 2종, ④생활문화 24종, ⑤예술활동 4종, ⑥자료 1종으로 구분하였다.

①동산의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항목 가운데 조형물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부동산의 경우에는 문화·집회시설(45건), 도시기반시설(30건), 업무시설(28건), 종교시설(22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③자연물에서는 나무(3건)가 ④생활문화의 경우에는 식당(51건)이 선정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식당을 이어 생활문화에서 가장 많이 집계된 항목은 시장(34건), 특화가로(18건), 마을(18건), 산업단지(12건)이었다. 한편 ⑤예술활동에서는 문학이 40건으로 선정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세부 유형별 선정항목(2023)

3. 분과별 미래유산 선정목록

2013~2023년 선정된 499건의 미래유산에 대한 분과별 선정목록을 정리하였다. 미래유산 선정목록의 선정사유는 분과별 선정기준의 특성에 맞추어 기술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초현황조사표에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첨부한 서울 미래유산 분포도의 경우, 미래유산 선정목록의 관리번호의 연번에 따라 미래유산의 위치를 표기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분과: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문화예술
- 형태: 유형, 무형, 공원·광장, 생활문화
- 용도: 상업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체육시설, 주거시설, 공원광장휴게시설, 산업공장시설,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기타시설
- 소유: 국·공유, 사유

3.1 정치역사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A.001	국립 4·19민주묘지	강북구	4.19민주화운동의 희생자 199위를 안장한 묘지로 대한민국 민주이념의 성지이자 민주화운동의 산교육장	가-03
A.002	문익환 통일의 집	강북구	민주화통일운동에 힘썼던 문익환 목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으로 대한민국 민주화통일운동의 현장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띤 공간	가-03
A.004	함석헌 가옥	도봉구	‘한국의 간디’로 일컬어질 만큼 국민의 인권 향상에 힘쓴 민권운동가 함석헌이 말년을 보낸 장소	가-04
A.005	국립서울현충원	동작구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 등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명예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리는 장소	다-03
A.006	상암동 일본군 관사	마포구	1930년대 일제시대 일본군 경성사단이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세운 일본군 장교용 관사이며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네거티브 유산	나-02
A.007	연희 104고지 전적지	서대문구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했던 장소	나-02
A.008	길상사 (구 대원각)	성북구	1960~1980년대 국민 접대와 정치 회담 장소로 명성을 떨쳐온 군사정부시절 요정(料亭)정치상징	나-03
A.009	삼청각	성북구	1970~1980년대 국민 접대와 정치 회담 장소로 명성을 떨쳐 온 군사정부시절 요정(料亭)정치상징	나-03
A.010	갈산 대삼각본점	양천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설치된 대삼각본점으로 서울시 수도지적의 기준이 되는 곳	다-02
A.011	국회의사당	영등포구	1975년부터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로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상징	나-02
A.012	만남의광장	영등포구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이 범국민적인 형태로 진행된 장소로써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된 가족들의 상봉이 현실화된 장소	나-02
A.013	여의도 지하벙커	영등포구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후 국가원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하 벙커	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A.014	영등포산업선교회 · 성문밖교회	영등포구	6·24 투쟁 2주년 계승실천 대회, 서울지역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위원회 발족식 등이 개최된 현장으로써 1970~1980년대 대한민국 노동운동 및 집회의 중심지	나-02
A.016	서울역광장	용산구	사이토 총독 저격사건, 서울역 화근, 6·26 국민평화대행진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장소. '민족 대이동'이라 표현되는 귀성·귀경길의 중심지로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장소	상세-다-01
A.018	국무총리공관	종로구	조선시대 태화궁(太和宮)의 터. 1961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	상세-가-02
A.019	김성수 가옥	종로구	2·8 독립선언, 3·1 운동 준비 등을 위해 모인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시대의 명암이 함께 존재하는 역사적인 공간	상세-가-03
A.02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로구	경제기획원, 문화체육관광부(전 문화공보부)가 있었던 건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장소	상세-나-02
A.021	도로원표 (칭경기념비전 내)	종로구	1914년 설치된 도로의 기점·종점 또는 경과지를 표시하는 표지석	상세-나-02
A.022	서울의 중심점 표지석	종로구	1395년 한양의 중앙지점을 알리는 표지석이 설치되었던 자리에 1896년 고종황제가 서울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한 표지석	상세-나-03
A.024	청와대	종로구	대한민국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건물	상세-가-02
A.025	한국기독교교회관	종로구	목요기도회 개최, 김의기 열사 투신 사건 등이 발생한 곳으로써 한국현대사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장소	상세-나-04
A.026	한울살	종로구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아픔을 치유하고 상징하는 민주화운동 유가족의 쉼터이자 본부	상세-나-05
A.027	1.21사태 소나무	종로구	1·21사태 당시 치열했던 교전의 흔적인 15발의 총탄자국이 남아있는 소나무로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소	나-03
A.028	4·19혁명기념도서관	종로구	4·19 혁명의 송고한 이념과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알리고자 이기봉 부통령의 집터 위에 세워진 도서관	상세-나-01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A.029	서울유스호스텔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본관 건물	상세-다-03
A.030	구 서울시청 남산별관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제5별관 건물	상세-다-03
A.031	문학의 집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장들의 관저	상세-다-03
A.034	서울소방재난본부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사무동 건물	상세-다-03
A.035	서울종합방재센터	중구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제6별관 건물. 지하취조실이 있던 장소	상세-다-03
A.037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집·정리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군	다-05
A.038	상동교회 (구 새로나백화점)	중구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획한 역사적인 현장이며 전덕기 목사 외 최석모, 오화영, 이필주, 신석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며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활용되었던 장소	상세-다-02
A.039	서울광장	중구	3·1운동,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현장이자 시민들의 집회, 행사, 축제 등이 일어나는 서울의 상징적 장소	상세-나-02
A.040	오장동 서울제일교회	중구	종교적 박해를 피해 북한에서 온 실항민들의 정착에 힘쓴 교회. 반유신운동의 진원지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중심지	상세-다-04
A.041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중구	1912년 세워진 화교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	상세-나-01
A.042	한국은행 앞 광장	중구	일제강점기 금융의 중심지이자 '3.1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현장	상세-다-02
A.043	한양공원비	중구	1910년 남산에 조성된 한양공원의 비석. 건립 당시 고종황제가 헌액한 친필 등이 남아 있어 대한민국의 암울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조형물	상세-다-02
A.044	YWCA	중구	계몽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복지운동, 평화운동 등을 펼쳐온 한국의 기독교 여성단체 본부가 있는 곳이자 YWCA위장결혼식 사건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던 역사적인 장소	상세-다-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A.045	용마산 대삼각본점	종량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설치된 대삼각본점으로 서울시 수도지적의 기준이 되는 곳	나-04
A.105	연막탄지주(12개)	종로구	1968년 1.21사태 이후 청와대 방호와 군사작전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상세-가-02
A.107	구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중구	1923년 지어진 조적조 건물로 일제 강점기 초등학교 시설의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는 건축물	상세-나-04
A.301	걸스카우트 회관	종로구	1969년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이 국가 차원으로 강조되며 지어진 스카우트 연맹건물	상세-나-03
A.302	대전차방호시설	도봉구	1950년 6·25 전쟁 시 만든 군사 시설로 위는 아파트 형태로 아래는 방호시설로 지어짐	가-04
A.401	김영삼 가옥	동작구	김영삼 전 대통령이 46년간 머무른 사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담겨진 공간이며 투쟁의 과정에서 남겨진 사료를 보관하고 있는 공간	다-03
A.402	도로원표 (태평로1가)	중구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 간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며, 해외 도시와 서울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	상세-나-02
A.403	서울경찰기마대	성동구	1946년 발족된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기마대로 현재 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원들이 '서울경찰기마대'로 명맥을 이어옴	나-04
A.404	이관 가옥	종로구	독립운동가 이관이 3.1 만세운동 당시 거주하던 가옥으로 당시의 도시형 한옥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	상세-가-03
A.701	홍릉숲	동대문구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묘역이었던 곳이자, 한국 최초의 1세대 수목원	나-04
A.901	공산땅굴	강서구	1940년대 지역민을 강제동원하여 군사용으로 굴착하였으나 해방과 더불어 공사가 중단. 6.25전쟁 당시에는 지역민의 피난처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땅굴	나-01

3.2 산업노동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02	강변테크노마트	광진구	1998년 전자·전기 기기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복합쇼핑몰로 건립된 서울 동부권의 전자·전기 유통센터. 국내 최초의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으로 한국 벤처기업의 요람	나-04
B.003	구의취수장	광진구	도시화로 인하여 증가된 취수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1976년 조성된 취수시설로 1970년대 산업건축물의 발전상을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소	나-05
B.004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구	1981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으로 건립되어 5만 여종의 산업용품을 취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용품 유통 전문상가	다-02
B.005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영등포공단)	구로구	1970~1971년 도심에 산재해 있는 기계공장들을 집단화, 협동화, 전문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민간공업단지의 효시	다-01
B.007	이명래 고약	구로구	1906년 한의사 이명래가 프랑스 선교사로 부터 서양 약학을 배워 만든 화농성 종기치료제. 사람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한 국내 최초의 상표로 기록된 의약품	다-01
B.008	한국수출산업단지 (구로공단)	구로구	1965~1973년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 봉제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 수출 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단지로서 한국 경제 성장의 산 증거	다-02
B.009	이마트 창동점	도봉구	1993년 개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할인마트. 유통구조의 변화, 가격파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장소	가-04
B.010	서울약령시	동대문구	1960년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인삼 중심의 약재 특화시장	나-04
B.011	황학동 만물시장	중구	한국전쟁 직후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만물시장으로 아직까지 그 모습이 남아있어, 보존가치가 높음	나-04
B.012	노량진 수산시장	동작구	1971년 개장한 서울의 대표적인 수산물 교역장	다-03
B.013	사당동 가구거리	동작구	1970년대 형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가구점 밀집 거리로서 가구와 관련된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	다-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14	서울화력발전소 (당인리발전소)	마포구	1930년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 발전소로써 수도권 전력보급과 근대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발전소. 국내 최초의 열병합 발전으로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당해오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물	나-02
B.015	마포 석유비축기지	마포구	유사시 서울지역의 안정적인 유류(油類) 공급을 위해서 1978년 건립된 석유비축시설	나-02
B.016	선통물천 (마포하수터널)	마포구	현재까지 하수 및 우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인공하천	나-03
B.017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초구	1976년 설립 이후 버스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버스터미널	다-03
B.018	양재동 화훼유통상가	서초구	1991년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공영 화훼도매시장	다-04
B.019	현인가구단지	서초구	1980~1990년대 가구생산공장과 가구판매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	다-04
B.020	구두제조업 (성수동일대)	성동구	원재료 판매점에서부터 제조공장까지 수제화 관련 업체들이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지역	나-04
B.021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1963년 개장하여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70%를 담당하고 있는 육류 유통전문시장.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에 있어 유서가 깊고 영향력이 있는 축산물시장	나-04
B.022	의복제조업 (장위동일대)	성북구	동대문 패션산업의 배후 클러스터로 198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봉제공장 밀집지역	나-04
B.023	가락시장	송파구	1985년 개장한 서울의 대표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다-05
B.024	1차 금속제조업 (문래동영단주택단지 일대)	영등포구	1940년대 영등포 공업지역의 노동자를 위한 영단주택이 건립되고 1980년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도심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금속 제조업체 밀집지역이 형성	다-02
B.025	OB맥주 담근술	영등포구	쇼와기린맥주(동양맥주전신, 1933년 설립) 때 제작되어 1996년까지 맥주 제조용으로 사용한 담근술	다-02
B.026	한국거래소	영등포구	유가증권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중추기관으로 여의도일대 증권가가 설립되는 계기가 곳	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27-1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2,13동, 17,18,19,20동)	용산구	1987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컴퓨터, 전자, 전기 관련 상품 유통 전문 상권	나-03
B.027-2	용산전자상가 (선인상가21,22동)	용산구		나-03
B.027-3	용산전자상가 (원효전자상가)	용산구		나-03
B.028	관수동 명패골목	종로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휘장업체 밀집지역, 휘장, 명패, 상패 등 전국 최대 규모의 휘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골목	상세-나-03
B.029	광장주식회사	종로구	1905년 일제강점기 경제국권회복의 취지에서 설립된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한복 및 포목 전문 도매시장	상세-나-04
B.030	귀금속 제조업 (종로일대)	종로구	1960~1970년대 귀금속 상점과 보석세공 전문가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귀금속 제조업체 밀집지역	상세-나-03
B.031	낙원악기상가	종로구	우리나라 주상복합건물의 초기형태로 1970년부터 악기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가. 악기 및 음악에 관한 제품과 정보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는 장소	상세-나-03
B.032-1	동대문종합시장 (A·B·C동)	종로구	1970년 이후 원단류, 의류부자재, 액세서리, 혼수용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도·소매시장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전문시장	상세-나-05
B.032-2	동대문종합시장(D동)	종로구		상세-나-05
B.033	서울대학병원	종로구	194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통합되어 설립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서 의료근대화의 산실이며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선도해온 곳. 우리나라 의학역사의 상징	상세-가-04
B.034	창신동 봉제마을	종로구	동대문 의류제조업의 배후 클러스터로 1970년대 창신동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봉제공장 밀집지역. 현재까지도 객공(客工)의 형태가 남아있는 한국형 근현대 산업노동의 현장	상세-나-05
B.035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1958년 환자 진료 및 의료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스칸디나비아 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지원으로 건립된 공공의료원	상세-나-05
B.036	남대문시장	중구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어져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전통시장	상세-다-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037	동대문패션타운	중구	1998년 이후 의류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는 도·소매시장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의류전문 쇼핑타운	상세-나-05
B.038	동화약품 건물	중구	1897년 동화약방에서 시작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회사이자 제약회사인 동화약품의 본부가 있는 곳.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 '활명수'를 개발한 곳으로 한국 제약 산업의 산역사	상세-다-01
B.039	활명수	중구	1897년 궁중 선전관 민병호가 궁중비방에 서양의학을 접목해 만든 적갈색의 액체 소화제, 국내 최장수 의약품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신약	상세-다-01
B.041	서울풍물시장	동대문구	다른 시장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시장. 우리 고유의 정서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시장으로 보존가치가 높음	나-04
B.042	신중부시장	중구	1959년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어물 전통시장	상세-나-04
B.043	염천교 구두거리	중구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구두 제작 및 판매 전문거리	상세-다-01
B.045	전태일 분신장소	중구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였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였던 곳.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신호탄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	상세-나-05
B.046	충무로 인쇄골목	중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인쇄업체 밀집지역. 현재까지도 서울의 많은 인쇄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인쇄산업의 메카	상세-다-03
B.047-1	평화시장	중구	실향민들에 의해 형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의류전문도매시장	상세-나-05
B.047-2	신평화시장	중구		상세-나-05
B.047-3	청평화시장	중구		상세-나-05
B.047-4	제일평화시장	중구		상세-나-05
B.047-5	광희시장	중구		상세-나-05
B.047-6	에리어식스	중구		상세-나-05
B.101	항동철도	구로구	1959년 조성되어 오류동역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간 산업화물을 수송하는 단선 철도	다-01
B.102	구로디지털단지지역(옛 구로공단역)	구로구	구로역 및 가산디지털단지지역(옛 가리봉역)과 함께 구로공단을 대표하는 역	다-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B.103	구로역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역) 및 가산디지털단지(옛 가리봉역)와 함께 구로공단을 대표하는 역	다-02
B.104	가산디지털단지(옛 가리봉역)	금천구	1968년 무역박람회를 위해 설치된 간이역	다-02
B.105	수출의 다리	금천구	1970년에 건립된 고가도로로 구로공단 지역의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해 경부선 철도 위에 건설	다-02
B.106	가리봉시장	구로구	구로공단의 배후지로서 주요 고객이었던 공단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졌던 시장	다-02
B.108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금천 순이의 집)	금천구	1970~80년대 공단노동자들의 숙소였던 '닭장집(별집)'을 재현한 공간으로서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	다-02
B.301	구로시장	구로구	1960년대부터 형성된 구로의 대표적 재래시장	다-02
B.302	디지털단지오거리	금천구	구로공단 시절 공장, 별집, 가리봉 시장, 야학 등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 현장을 이어주는 중심지	다-02
B.303	을지로 조명거리	중구	6.25 전쟁 이후 무너진 도시 재건을 위해 집수리에 관한 상점 등이 열기설기 자리 잡으며 급속도로 발전한 조명상점 밀집 지역	상세-나-03
B.304	입정동 철강소골목	중구	소형 철강소와 정밀 가공업체, 금형 가공업체가 뿔뿔이 들어서면서 중공업을 중시하던 1970~80년대 성업했던 지역	상세-나-04
B.701	종로5가 약국 거리	종로구	1950년대 말 개업한 보령약국을 기점으로 현대식 약국 거리가 형성	상세-나-04
B.702	을지로 미싱 특화 거리	중구	동대문 일대의 의류제조업을 배후로 1960년대 형성된 미싱 관련업종 밀집거리	상세-나-04
B.703	퇴계로 오토바이 거리	중구	1970년대 형성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체 밀집지역	상세-다-04
B.801	신설동 2호선 비영업승강장	동대문구	1974년 건립되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폐쇄된 지하철 역사	나-04
B.80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역사관	성북구	1970년대 만들어진 산업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근현대 기술품을 전시해놓은 박물관	나-04

3.3 시민생활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001	한일관	강남구	1939년 개업하여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갈비 전문 식당	나-04
C.002	허바허바사진관	강남구	1959년경 개업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진관. 약혼·취업증명·가족 사진을 찍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추억의 사진관	다-04
C.003	삼각산재미마을	강북구	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등 자녀양육의 문제를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마을목수공작단, 마을밴드 JnB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주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마을	가-03
C.004	축백나무제	구로구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내려오는 마을고유의 전통제례	다-02
C.005	동흥관	금천구	1950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식당	다-02
C.010	마포진짜원조최대표	마포구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돼지갈비 전문 식당	나-03
C.011	성미산마을	마포구	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등 자녀양육의 문제를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성미산 마을극장, 공방, 마을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주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마을	나-02
C.012	성우이용원	마포구	1927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발소	나-03
C.013	역전회관	마포구	1962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바싹불고기 전문 식당	나-03
C.014	연남서식당	마포구	1953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소갈비 전문 식당	나-03
C.015	공씨책방	서대문구	1972년경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헌책방	나-02
C.016	영천시장	서대문구	196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떡 도매시장	나-03
C.017	흥익문고	서대문구	1960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서점	나-03
C.018	성수목욕탕	성동구	1967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021	태조감자국	성북구	1958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감자국 전문 식당	나-03
C.022	일광방앗간	송파구	1965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방앗간	다-05
C.023	부여집	영등포구	1947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꼬리곰탕과 족탕 전문 식당	나-02
C.024	삼거리먼지막순대국	영등포구	1957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순대국 전문 식당	다-02
C.025	수정여관	영등포구	1966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여관	다-02
C.028	성의사	용산구	1953년 개업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는 가운 판매점	나-03
C.031	불광대장간	은평구	1963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대장간)	나-02
C.032	구하산방	종로구	1913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필방	상세-나-03
C.033	김봉수 작명소	종로구	1958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명소	상세-나-01
C.034	낙원떡집	종로구	1912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떡집	상세-나-03
C.036-1	동대문 신발종합상가 (A동)	종로구	1970년 개장한 신발을 주요 품목으로 한 서울 유일의 도매시장	상세-나-05
C.036-2	동대문 신발종합상가 (B동)	종로구		상세-나-05
C.036-3	동대문 신발종합상가 (C동)	종로구		상세-나-05
C.037	동대문생선구이골목	종로구	연탄화덕에 굽는 생선구이 전문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골목	상세-나-05
C.038	동양서림	종로구	1953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서점	상세-가-04
C.042	보령약국	종로구	1957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약국. 용각산, 구심, 겔포스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약품판매점의 대형화를 시도한 곳으로 종로5가 약국거리 일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약국	상세-나-04
C.043	생명의 말씀사	종로구	1953년 개업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서점	상세-나-01
C.045	수도약국	종로구	1946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약국	상세-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046	열차집	종로구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빈대떡 전문 식당	상세-나-02
C.047	이문설농탕	종로구	1904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설농탕 전문 식당	상세-나-02
C.049	진아춘	종로구	1925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중식당	상세-가-04
C.050	청진옥	종로구	1937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해장국 전문 식당	상세-나-02
C.051	통문관	종로구	1934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서점	상세-나-02
C.052	풍년철물	종로구	1969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	나-03
C.053	피맛골	종로구	조선시대부터 선술집·국밥집·색주가 등 술집과 음식점이 형성된 골목으로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장소	상세-나-03
C.055	고려삼계탕	중구	1960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삼계탕 전문 식당	상세-다-01
C.057	남산 범바위	중구	예로부터 시민들의 곳터로 이용되었던 곳	상세-다-03
C.058	청계천 헌책방거리	종로구	1960년대 청계천 복개 공사로 노점식으로 운영되던 헌책방들이 평화시장 일대로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헌책방 밀집지역. 신학기철만 되면 교과서부터 참고서, 영어 원서, 사전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장소	상세-나-05
C.059	라 칸티나	중구	1967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양식당	상세-나-02
C.060	마살미용실(본점)	중구	196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	상세-다-03
C.062	무교동 북어국집	중구	1968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북어국 전문 식당	상세-나-02
C.063	문화옥	중구	195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설렁탕 전문 식당	상세-나-04
C.064	신당동 떡볶이 골목	중구	떡볶이라는 한국 특유의 음식이 특화되어 있는 골목	상세-다-05
C.065	안동장	중구	1948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식당	상세-나-03
C.066	오장동함흥냉면	중구	1958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냉면 전문 식당	상세-다-04
C.067	용금옥	중구	193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추어탕 전문 식당	상세-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068	우래옥	중구	194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냉면 전문 식당	상세-나-04
C.069	은호식당	중구	193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꼬리곰탕 전문 식당	상세-다-02
C.070	장충동 족발골목	중구	족발이라는 한국 특유의 음식이 특화되어 있는 골목	상세-다-05
C.072	종로양복점	중구	1916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양복점	상세-나-03
C.073	진주회관	중구	1962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콩국수 전문 식당	상세-다-02
C.074	한영양복점	중구	193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양복점	다-03
C.075	해창양복점	중구	1945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양복점	상세-다-02
C.076	망우역사문화공원	중랑구	서울시 관할구역 내의 유일한 공동묘지형 공원묘원이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활동했던 저명한 인사들의 묘를 살펴볼 수 있는 산 교육장	나-05
C.103	초가집	강북구	1960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정식 전문 식당	가-03
C.104	환영크리닝	강서구	1949년에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세탁소	나-01
C.105	동제한의원	광진구	1963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의원	나-04
C.106	마포옥	마포구	1949년경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	나-03
C.108	독수리다방	서대문구	1971년 개업하여 2005년 휴업 후 2013년 같은 장소에서 재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커피전문점	나-03
C.110	미아리 점성촌	성북구	1960년대 맹인 점성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점성촌	나-04
C.111	금성부동산	영등포구	1970년에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나-03
C.113	미진	종로구	1954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메밀 전문 식당	상세-나-02
C.114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	종로구	1976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커피전문점	상세-가-02
C.115	신영부동산	종로구	1968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상세-가-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116	원조 할머니 기름 떡볶이	종로구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떡볶이 전문 식당	상세-가-01
C.117	유일한의원	종로구	1945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의원	상세-나-05
C.118	유진식당	종로구	1968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평양식 냉면, 국밥 전문 식당	상세-나-03
C.119	청일집	종로구	1945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녹두빈대떡 전문 식당	상세-나-02
C.122	부민옥	중구	1956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해장국 전문 식당	상세-나-02
C.123	산골막국수	중구	1962년 개업하여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막국수 전문 식당	상세-나-04
C.124	송림수제화	중구	1936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구두가게	상세-나-03
C.125	유림면	중구	1960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메밀국수, 우동 전문 식당	상세-다-02
C.202	노옥당 약업사	강동구	1975년경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약재 판매점	나-05
C.203	동명대장간	강동구	1930년대 말에 개업하여 약 7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는 재래식 대장간	나-05
C.204	십자성마을	강동구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국군 상이군인의 수용을 위해 조성된 마을 공동체	나-05
C.206	서북면옥	광진구	1968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냉면 전문점	나-04
C.207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여러 세대가 공유하며 활발히 사용하는 도심 공원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과거의 모습과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장소	나-04
C.210	청량리 청과물시장	동대문구	1958년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서울의 대표적인 청과물시장	나-04
C.211	노랑진 학원가	동작구	70년대 대입 및 편입준비 학원가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무원시험 준비학원 중심의 특화지역	다-03
C.212	장승제	동작구	공동체적 풍습과 전통의 맥을 잇는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다-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213	미네르바	서대문구	1975년 신촌 일대에서 처음으로 개업한 원두커피 전문점으로, 70년대 신촌 대학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장소	나-03
C.215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성동구	1979년에 형성된 전국에서 가장 큰 중고차 판매시장	나-04
C.216	배밭골 산신제	성북구	예로부터 전래되는 마을의 고유 제례 행사로,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나-03
C.217	북정마을	성북구	한양도성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역사문화경관이 남아있는 마을	나-03
C.218	성북동 국시집	성북구	1969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칼국수 전문 식당	나-03
C.219	석촌호수	송파구	호수로 조성된 후 많은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도심공원	다-05
C.220	대문점	영등포구	1968년 개업하여 계속 영업하고 있는 오향장육 전문 식당	나-02
C.221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용산구	1960년대 인근 군부대에 근무하던 미군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처분한 중고 가구를 매매하면서 형성된 가로	나-03
C.222	이태원복스 (구 포린복스토어)	용산구	1973년부터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원서 헌책방	나-03
C.223	해방촌 108계단	용산구	일제강점기 때 조성된 석재 계단으로, 1960~70년대 해방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	나-03
C.224	청기와양복점	은평구	1973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맞춤형 양복점	나-02
C.225	형제대장간	은평구	1976년 개업 이후 일정기간 폐업을 했지만 1997년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는 대장간	나-02
C.226	우정총국 회화나무	종로구	갑신정변의 현장이었던 우정총국 일대의 풍경을 형성하였던 나무	상세-나-02
C.227	통인시장	종로구	도시락 카페, 각 점포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은 작품 전시 등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재래시장	상세-가-01
C.228	헌법재판소	종로구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최고기관	상세-가-03
C.229	을지로 노가리 골목	중구	1980년대 형성된 노가리 전문 골목으로, 노가리와 맥주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먹거리가 특화되어 있는 장소	상세-나-03
C.230	동부고려제과	중랑구	1974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베이커리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301	독일빵집	서대문구	1952년 개업하여 50년 넘게 영업을 이어 온 베이커리 브랜드	나-02
C.302	만리시장	용산구	1968년경 용산구의 만리고개에 형성된 전통시장	나-03
C.303	보신각타종	종로구	1919년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타종행사로 현재는 3.1절, 광복절 등과 같은 국가기념일과 연말 행사를 대표적으로 진행함	상세-나-02
C.304	서울장수막걸리	서울	서울탁주에서 제조하며 서울지역의 대표 막걸리 브랜드	다-05
C.305	선잠제향	성북구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 고려·조선 시대에 행하여지다가 대한제국 말에 중단된 것을 1993년부터 성북동 선잠단지에서 재현해 오고 있음	나-03
C.306	설렁탕	서울	소의 여러 부위를 함께 넣고 푹끓인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으로 서울에서 생겨난 음식	다-05
C.307	쌍다리식당	성북구	1970년 기사식당으로 출발한 연탄불구이 돼지 불백 전문점으로 창업자의 대를 이어 자녀가 2대째 운영 중	나-03
C.308	연남동 기사식당거리	강남구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 형성된 택시 운전기사들을 위한 식당이 밀집한 거리	나-02
C.309	창성옥	용산구	70년 전통의 해장국 전문점으로 일제 강점기 창업 이후 창업주 할머니로부터 전수 받은 건물주 부부가 3대째 운영집인 음식점	나-03
C.311	한신옹기	용산구	1967년 개업하여 50여 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며 해방촌의 명물이 된 옹기집	나-03
C.401	경성백승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 행정구역별로 명물을 선정하여 연재한 기사를 모아 출판한 도서로 당시 경성시민의 시대에 대한 인식과 명물의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음	다-05
C.402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종로구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법과대학이 위치했던 장소. 1980년대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문화공연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상세-가-04
C.403	림스치킨	종로구	1977년 개업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 치킨가게	상세-가-04
C.404	명동 화교거리	중구	임오군란을 계기로 이곳에 자리 잡은 청나라 상인들에 의해 조성된 상업지역으로 중국 화교들의 문화와 상점, 음식점 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리	상세-다-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405	선린중고교 나무	용산구	최초의 관립 상공학교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1899년 고종황제가 하사한 기념식수	나-03
C.406	왕십리 대도식당	성동구	1954년 개업한 한우등심구이 전문점. 2010년 주식회사 키친보리에 인수되었으나 고유의 요리방법은 지금도 유지	나-04
C.407	청룡열차	광진구	우리나라의 첫 테마파크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1973년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롤러코스터	나-04
C.501	나폴레옹 과자점	성북구	1968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제과점. 2007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	나-03
C.601	옛날집 낙원아귀찜	종로구	1977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 운영 중인 아귀찜 가게로 종로3가 낙원동 아귀찜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아귀찜 가게	상세-나-03
C.602	원대구탕	용산구	1979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 운영 중인 대구탕 가게로, 삼각지 대구탕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대구탕 가게	나-03
C.603	서울식 불고기	-	조선시대 반가조리서에 등장하는, 서울 반가에서 많이 해 먹던 고기구이 음식으로, 이후 불고기로 진화하여 대표적인 서울음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	다-05
C.604	구절판	-	아홉 개의 칸으로 나뉜 그릇에 채소·고기류 등 여덟 가지를 담고, 가운데 담긴 밀전병에 싸 먹는 음식. 조선요리법(1939년)에 소개되어 있고, 서울의 한정식 요리점에서 선보이며 서울음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	다-05
C.605	조선요리법	-	1939년에 발간된 서울 반가음식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서술한 조리서로 당시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책. 서울음식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서울음식 조리법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다-05
C.701	호미화방	마포구	1975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화방	나-02
C.702	국선옷칠	종로구	1977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옷공방	상세-나-04
C.703	금박연	종로구	1856년 조선시대 철종 때부터 5대에 걸친 가업을 이어가며 운영 중인 공방	상세-가-03
C.704	대한의수족연구소	종로구	1979년 개업하여 2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의수족 제작업체	상세-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705	박인당	종로구	1978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인장포(印章舖)	상세-나-02
C.706	비원떡집	종로구	1949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가 함께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궁중떡 전문집	상세-나-02
C.707	선천집	종로구	1971년에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전통 한식을 판매하는 식당	상세-나-03
C.708	이리자한복	종로구	1966년 개점하여 3대가 함께 운영 중인 한복 판매 및 한복 전시 업소	상세-가-02
C.709	부루의 뜨락	중구	1978년에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음반가게	상세-다-02
C.710	사보이 호텔	중구	1957년 국내 최초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되어 같은 장소에서 3대째 운영되고 있는 호텔	상세-다-03
C.712	순흥옥	중구	1945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에 걸쳐 운영 중인 한식당	상세-나-04
C.713	스카라가발	중구	1975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운영하고 있는 가발 전문점	상세-다-03
C.714	오장동흥남집	중구	1953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3대째 운영하고 있는 함흥냉면집	상세-다-04
C.715	용태행	중구	1933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	상세-다-02
C.716	잼배옥	중구	1933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	상세-다-02
C.717	중림장	중구	1972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운영 중인 설령당 전문점	상세-다-01
C.718	평래옥	중구	1950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3대째 운영 중인 냉면/초계탕 판매점	상세-나-03
C.801	김용기 과자점	강서구	1965년 개업하여 2대째 운영 중인 설탕이 전문점	나-01
C.802	소라분식	노원구	1971년 개업하여 3대째 운영 중인 분식집	가-04
C.803	복성각 마포본점	마포구	1953년 개업하여 2대째 경영 중인 중국식당	나-03
C.804	소문난 개미	양천구	1944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운영 중인 매운탕 전문점	나-02
C.805	견지동 불교용품거리	종로구	1970년대 조성된 조계사 입구 양쪽 도로에 위치한 불교용품 테마거리	상세-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C.806	무계원	종로구	1953년 서울시 등록음식점 1호로 개업한 오진암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축 복원한 한옥	나-03
C.901	명동교자 본점	종로구	1970년 명동에서 개업하여 2대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칼국수, 만두 전문점	상세-다-03
C.902	교보문고 광화문점	중구	1981년 신용호가 설립한 서점 프랜차이즈로 대자본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서점이자 최대 규모의 서점	상세-나-02
C.1001	한국의집 본점	중구	1957년 영빈관으로 개관하여 현재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고 있는 전통 음식점·문화시설	상세-다-03
C.1002	미일이발관	종로구	1974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이발소	상세-가-04

3.4 도시관리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01	화계사 대방	강북구	1866년 용선(龍船)과 범운(梵雲)이 흥선대원군의 시주로 중수한 한식목조, 팔작지붕의 대방으로 조선말기 사찰건축을 대표하는 새로운 불전 형식(대방건축)의 하나	가-03
D.002	서울대학교 예술관	관악구	1980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지형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물로 이후 캠퍼스 계획을 정립하는데 기준이 되었던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다-03
D.003	경춘선 폐철도노선	노원구	1939년 조성된 성북역과 화랑대역 사이의 경춘선 노선. 2006년 경춘선 직선화사업으로 폐철도노선이 될 때까지 67년간 철도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던 철로	가-04
D.004	백사마을	노원구	1967년 청계고가도로 건설 등을 위해 무허가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제 이주한 철거민들에 의해 형성된 대규모 판자집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 서울의 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주민의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장소	가-04
D.006	덕성여자대학교 자연관	도봉구	197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로 1979년 제1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적용시킨 프로토타입을 응용하여 캠퍼스 건축 시리즈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가-04
D.007	덕성여자대학교 예술관	도봉구	1982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적용시킨 프로토타입을 응용하여 설계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가-03
D.008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도봉구	198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적용시킨 프로토타입을 응용하여 설계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가-03
D.009	서울바이오허브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대문구	1981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교육연구시설로 1981년 제3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인간적, 한국적인 재료에 대한 해답으로 붉은 벽돌을 사용해 지은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12	제기동 성당	동대문구	1957년 지어진 정면 중앙 종탑의 장방형 석조(石造) 종교건축물로 종탑, 정면, 양측면 출입구, 돌출부의 지붕 등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나-04
D.013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 기념물	동대문구	1976년 지어져 마장동~남산1호터널을 연결했던 도로시설물로 2003년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철거되기까지 서울 개발의 상징이었던 교각	나-04
D.014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동작구	1958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학교건축물. 지상 3층의 수평적인 매스에 8층 높이의 탑이 있는 중앙대학교의 랜드마크 건물이며 건축가 차경순의 작품	다-03
D.015	양화대교	마포구	광복 후 한국 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교량	나-02
D.016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마포구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생한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	나-02
D.018	한국정교회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마포구	1968년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비잔틴 양식의 그리스십자형 교회건축물. 내부의 벽화(icon화) 장식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정교회 성당이자 건축가 조창한의 작품	나-03
D.019	홍대 앞 서교 365	마포구	용산에서 당인리발전소를 연결하는 철로를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점가. 도시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만나 진귀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곳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적된 도시의 역사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	나-02
D.020	석교감리교회	서대문구	1916년 지어진 강당식 평면형식을 가진 고딕양식의 교회건축물로 첨두아치(Pointed Arch) 등에서 우수한 조적 디테일을 보여주는 건축물.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나-03
D.021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서대문구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장의 하나로 사용. 튜터풍의 고딕양식 외관, 첨두형 아치의 고딕장식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22	이화여자대학교 진선미관	서대문구	1935년 지어진 석조(石造) 기숙사 건축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 및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나-03
D.023	반포대교	용산구	강남지구 도시개발촉진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한국 최초의 2층 교량	다-03
D.024	잠수교	용산구	한강 수위변화의 척도 역할을 하는 교량	다-03
D.025	한남대교	용산구	본격적인 강남개발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된 교량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서울과 전국이 소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량	나-03
D.026	삼풍참사위령탑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502명의 영혼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한 위령탑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조형물	다-04
D.027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동	서초구	1989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공공건축물로 언론, 드라마 등에 상징적인 건물로 등장하는 법원 건축물. 법원이라는 균형적 공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조형적 의도가 반영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다-03
D.028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	성동구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위령탑으로 교량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조형물	나-04
D.029	돈암동 성당	성북구	1955년 지어진 고딕양식의 종교건축물로 콜롬반외방선교회가 설립한 석조성당 중에서 외부 디테일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건물	나-03
D.030	장수마을	성북구	구릉지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좁고 경사진 골목길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써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적된 사람들의 삶의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상세-가-05
D.03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관	성북구	1969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교육연구 시설로 구조주의 건축이 잘 구사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나-04
D.033	잠실종합운동장	송파구	198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체육시설로 서울 올림픽 개최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축물. 한국적 모티브를 살려 설계되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에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 계기가 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다-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34	잠실철교	광진구	전차와 자동차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울 최초의 교량	나-04
D.035	천호대교	송파구	노후한 광진교의 역할을 분담하고자 건설된 교량으로 서울 동부의 관문역할을 하면서 강동구와 그 주변지역의 급진적 발전에 기여한 교량	나-05
D.036	도림동 성당	영등포구	1963년 장방형의 단순한 평면에 5각 앱스(Apse)가 덧붙은 강당형으로 지어진 종교건축물로 양식적인 성당으로부터 모더니즘 성당으로 넘어가는 경계점에 있는 건축물	다-02
D.037	선유도공원	영등포구	선유도의 옛 정수장 시설을 재활용한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	나-02
D.038	여의도 공원	영등포구	1916~1958년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던 자리이며 1971년까지 여의도 공군기지로 이용된 장소. 1972년 5.16광장(여의도광장), 1997년 공원으로 조성된 후 많은 사람들의 쉼터와 집결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여의도의 랜드마크	나-02
D.039	영등포 쪽방촌	영등포구	해방 이후 형성된 집창촌이 1970년대 주변 지역 재개발의 영향으로 쪽방촌으로 변모한 곳. 재개발 등과 같은 지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도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장소	다-02
D.040	원효대교	영등포구	국내 최초로 디비닥공법(Dywidag工法)을 도입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장대교량으로써 지보공 없이 가설되어 미관이 수려한 교량	나-03
D.041	윤중제	영등포구	1968년 여의도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제방도로. 여의도 조성의 시초가 된 사업이며 여의도 개발의 상징적인 시설	나-02
D.042	남산1호터널	용산구	1970년 서울 요새화 계획에 따라 방공호를 목적으로 조성된 왕복 4차로의 쌍굴형 터널로써 서울의 남북 발전과 강남 개발의 축진이 된 터널	나-03
D.043	남산도서관	용산구	196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 건축가 이해성의 작품	상세-다-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45	통일교회 구 본부교회	용산구	1955년 지어진 일본주택양식의 목조 건축 물로 통일교회 최초의 성전. 통일교회의 기 원지이자 국내외로 발전한 통일교회의 주요 행사가 열리는 장소	나-03
D.047	해방촌	용산구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도심 인 근에 위치하면서도 시가화되지 않았던 이곳 에 모여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나-03
D.048	불광동 성당	은평구	1986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종교건축 물로 한국 근현대 건축문화사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건축가 김수 근의 작품	가-02
D.049	산새마을	은평구	재개발로 인한 지역공동체 등의 해체를 극 복하기 위해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 업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가 실시된 지역 으로 텃밭 가꾸기, 마을방범활동 등의 마을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마을	나-02
D.050	NH농협은행 종로금융센터(구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사옥)	종로구	1926년 지어진 철골조의 업무시설로 1933 년부터 1937년까지 일제강점기 민간 3대 신문 중 하나인 조선중앙일보의 사옥으로 사용되었던 건축물	상세-나-02
D.052	관철동의 도시조직	종로구	1952년 전후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 의해 최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 역	상세-나-03
D.053	돈화문로 주변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돈화문로 주변의 한옥밀집지역. 창덕궁, 종 묘, 운현궁 등 주요 문화재가 주변에 입지하 고 옛 도시조직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역	상세-나-03
D.054	명륜동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대학로 동측에 형성된 한옥밀집지역. 도시형 한옥들로 구성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상세-가-04
D.056	북촌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조선시대 세도가들의 대표적인 주거지로서 양반 및 관료들이 모여 살던 북촌의 한옥밀 집지역.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적 의미를 담 고 있는 다채로운 공간들이 담겨져 있는 장 소	상세-가-03
D.057	사직터널	종로구	1967년 서울에 건설된 최초의 도로터널. 독립문과 경복궁 간 교통시간 단축과 도심 에서의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한 터널로써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 되어 있는 토목시설물	상세-나-01
D.058	삼청공원	종로구	1940년 고시된 140개 도시계획공원 중 제 1호 공원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60	서촌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조선시대 역관이나 의관 등 전문직인 중인들이 모여 살던 경복궁 서측의 한옥밀집지역.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도시형 한옥들로 구성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상세-가-01
D.061	아르코 미술관	종로구	1979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미술관으로 1979년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붉은 벽돌이 특징인 건물로써 대학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상세-가-04
D.062	아르코 예술극장	종로구	1981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문화집회 시설로 대학로의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다목적 무대예술 공연장. 붉은 벽돌이 특징인 건물로써 대학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상세-가-04
D.063	이화동 벽화마을	종로구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적된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2006년 공공미술 시범사업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상세-가-05
D.064	인사동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조선시대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주택지였던 인사동의 한옥 밀집지역. 전통차집, 한정식집 등의 상업화된 한옥들로 구성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상세-나-03
D.065	31빌딩 (구 삼일로빌딩)	종로구	1970년 지어진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오피스시설로 서울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당시 서울의 최고층 건축물. 근대건축의 거장 미스 반 데르 로에가 발전시킨 마천루 프로토타입을 한국에 적용시킨 건축물로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	상세-나-03
D.066	한무숙 문학관	종로구	20세기 초 장안의 대목 심목수가 건축한 한옥으로 소설가 한무숙이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소설가 한무숙 창작(創作)의 산실로서 소설가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소	상세-가-04
D.067	해화동 주민센터 (구 한소제 가옥)	종로구	국내 최초 한옥형태의 동사무소로 한국걸스 카우트의 전신인 대한소녀단을 창설한 여의사 한소제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상세-가-04
D.068	남대문교회	중구	1955년 기공하여 1969년 지어진 고딕양식의 석조(石造)교회로 외관의 디테일이 뛰어나고 장방형의 단순한 내부 평면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가 박동진의 작품	상세-다-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069	남산원 강당	중구	1959년 지어진 조적조의 아동보육시설로 한국전쟁 중 순국한 군경유자녀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육시설	상세-다-03
D.070	남산원 본관	중구	1956년 지어진 조적조의 아동보육시설로 한국전쟁 중 순국한 군경유자녀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육시설	상세-다-03
D.072	베를린 광장	중구	베를린시로부터 베를린장벽, 베를린 베어 (Berlin Bear), 조명등과 의자 등을 기증받아 2007년 조성된 광장. 서울과 베를린시 두 도시 간 우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	상세-나-03
D.073	서울침례교회	중구	1954년 지어진 첨탑형 종탑이 있는 조적조 교회건축물로 기독교한국침례회의 모교회.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 및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상세-다-04
D.074	영락교회 본당	중구	1949년에 지어진 고딕양식의 석조교회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대표적인 건축물. 개신교 건축으로써 고딕양식에 가장 충실한 건물이며 라틴십자형의 완성된 형태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가 박동진의 작품	상세-다-03
D.076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한국관구	중구	1965년 지어진 근대주의양식의 종교건축물. 평지붕의 옥상난간 장식, 수평 띠창문의 형태, 김수근의 자유센터를 연상시키는 출입구 캐노피와 격자장식 등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상세-나-01
D.077	주한 영국대사관	중구	1892년에 지어진 조적조의 관사로 120년이 넘게 한 장소에 있는 외교 공관. 근대화기 서양식 건축물로 기초부분과 지붕구조의 콘크리트 재료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상세-나-02
D.078	망우터널	중랑구	일제 강점기 건설되어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터널	나-05
D.079	중앙선 폐철도노선	중랑구	1939년 조성된 양원역과 구리역 사이의 중앙선 노선. 2005년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폐철도 노선이 될 때까지 66년간 철도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던 철로	나-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104	두가헌	종로구	1950년대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 타츠노 킹고가 즐겨 사용하던 회색 화강석의 모서리 띠장식과 1층과 2층의 창호를 하나로 묶은 전면과 측면부의 아치창이 특징	상세-가-02
D.106	계동 48-12 건물군	종로구	1939년에 지어진 목구조의 2층 한옥	상세-가-03
D.107	광화문 지하보도	종로구	1966년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최초로 건설된 지하보도	상세-나-02
D.112	동신교회	종로구	1956년 종교시설로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고딕양식 건축물로 1950년대 석조 교회 건축 중에서 건축적 완성도가 높음	상세-나-05
D.116	옛 서울시장 공관	종로구	일제강점기에 경성부윤의 관사로 건축. 해방 후에는 서울시장의 관사로 사용됨. 내외부가 일부 변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나-03
D.125	은덕문화원	종로구	1906년에 주거시설로 지어진 목구조의 건축물로 한옥 위에 일식 건축이 증축된 희귀한 사례이며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 가치가 있음	상세-가-03
D.127	이화동 낙산 국민주택단지	종로구	1950년대 말에 지어진 국민주택 단지로 청량리 부흥주택과 함께 원형이 잘 남아있어 주거사적으로 의미가 있음. 서울 성곽 내부에 위치하며 독특한 경관을 보여줌	상세-가-05
D.131	종로구청 (구 수송초등학교)	종로구	1930년대 교육시설로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로 채광을 고려하여 각 교실의 창호가 크게 계획됨. 1977년 수송초등학교 폐교 후 종로구청 본관으로 사용되지만 과거 외관과 T자형 꺾임부에 위치한 로비, 계단실 등이 비교적 잘 남아있음	상세-나-02
D.145	남대문 지하보도	중구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오래된 지하보도	상세-다-02
D.149	남산육교	중구	1961년에 지어진 오래된 고가차도	상세-다-02
D.163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중구	1974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로 서울 지하철 역사의 시작이며, 1970년대 한국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첨단 교통수단	나-04
D.164	체부동 성결교회	종로구	1931년 프랑스식 벽돌쌓기로 지어진 조적조 교회 건축물로 이후 중축과정에서 영국식 벽돌쌓기가 도입. 건축적 특징 이외에도 남녀를 내외하기 위하여 조성된 출입구 2개의 흔적이 남아있는 등 당시 사회상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	세부-가-01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201	양재천	강남구	1995년 하천복원사업으로 조성된 후 많은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도심공원	다-04
D.202	제기동 상업용 한옥밀집지역	동대문구	도시형 한옥과 재래시장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	나-04
D.203	청량리 흥릉주택	동대문구	1950년대 미국의 원조와 일본식 건축기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단지형 주거지	나-04
D.204	동소문동2가 한옥밀집지역	성북구	1936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동소문동2가 일대에 조성된 한옥밀집지역	나-03
D.205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성북구	1936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보문동 일대에 조성된 한옥밀집지역	나-04
D.207	서울역 고가도로	중구	1970년 서울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였던 서울역 주변교통을 완화하기 위해 완공된 고가차도	상세-다-01
D.401	서강대학교 본관	마포구	1958년 건립된 건축가 김종업의 초기 대표작. 엄격한 비례와 면 분할, 수평·수직매스의 활용 등 르 꼬르뷔지에의 영향을 받은 건축언어가 돋보이는 작품	나-03
D.402	세종대왕기념관	동대문구	1970년 건축가 송민구가 설계한 기념관. 한국 고전건축을 연상시키는 장방향의 입면과 신라 석탑의 조형미를 응용한 십자형 평면이 특징인 작품	나-04
D.403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	용산구	1920년대 관립 농상공학교(현 선린인터넷고)의 강당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물로 당시 학교건축양식이 반영	나-03
D.404	쌍용빌딩	중구	1964년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 김수근이 1960년대 즐겨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도조장식의 패턴을 부착하여 입면의 예술성을 강조	상세-나-02
D.405	장위동 230-49 주택	성북구	1970년 건립된 단독주택으로, 1985년 김종업이 리모델링. 동방생명이 직원들의 사옥으로 조성한 동방주택단지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	가-04
D.406	평안교회	중구	1967년 건립된 조적조 교회로 장미창, 수직성을 강조한 첨두아치창호 등 프랑스식 네오고딕 양식으로 디자인	상세-다-01
D.407	하늘가족교회 구 예배당	마포구	1958년 성광교회 예배당으로 지어진 석조 건물로 내부는 리모델링되었으나 외부는 당시 모습을 유지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501	경의선 숲길 공원	마포구	1906년 용산~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 개통. 2009년 용산~가좌구간이 지하화되면서 지상구간에 2016년 공원이 조성	나-02~ 나-03
D.502	남산서울타워	용산구	1979년 세워진 한국 최초의 전파탑으로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	나-03
D.503	배재고등학교 아펜젤러기념관	강동구	1923년 배재학당을 세운 선교사 아펜젤러를 기념하기 위하여 중구 정동에 건립한 벽돌식 학교건물. 1984년 배재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이축·복원	나-05
D.504	세이장	종로구	1974년 김수근이 설계한 주택. 창암장, 우촌장과 더불어 1970년대 김수근 설계한 대표적인 주택으로 검은색 벽돌과 원목을 접목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건축물	나-03
D.505	숙명여자고등학교 도서관	강남구	1920년 종로구 수송동에 건립한 벽돌식 학교건물. 나카무라 요시헤이(中村 與資平)가 설계. 1980년 숙명여자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이축·복원	다-04
D.506	지하철 경복궁 역사	종로구	1985년 공간건축에서 설계한 지하철역사. 경복궁 등 문화재와 주변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내부를 마감하고 전시공간을 상부에 설치	나-01
D.601	통일교 전 본부교회	용산구	1977년 건축가 이희태가 설계한 건축물로 육각형 평면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입면이 세련되어 건축적 가치가 높은 작품	나-03
D.602	용산제일교회 교회동	용산구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석재를 사용하여 지어진 단아한 분위기의 건축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게 보존	나-03
D.603	환일고등학교 십자관	용산구	1957년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와 석조를 병용한 학교 건축물로서 원형이 잘 보존된 건축물	나-03
D.604	공공일호 (구 샘터사옥)	종로구	1979년 건립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대학로에 위치하여 연극인, 화가 등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에도 당시의 건축적 특성과 모습을 조화롭게 잘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상세-가-04
D.701	어린이대공원 꿈마루	광진구	1970년 나상진이 설계한 철근콘크리트조의 교육연구시설. 수평의 기다란 콘크리트 매스가 특징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D.702	한양대학교 박물관	성동구	1980년 이해성이 설계한 철근콘크리트조의 박물관. 벽면을 분절하는 아치형 개구부, 매끈한 흰색타일과 노출 콘크리트의 거친 재질이 상호 대비를 이루는 외관이 특징	나-04
D.801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구 남산어린이회관)	종구	1970년 건축가 이광노의 설계로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회관. 1960년대 건축계 최고의 화두였던 공업화건축을 도입하여 콘크리트구조체에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외피로 마감.	상세-다-02
D.901	평산재	종로구	1978년 통의동에서 이축한 한옥으로 'ㄷ'자 평면. 대문 인근에 현관을 설치하고 객실과 내실을 구분, 틈간을 통하여 각 실을 연결	가-03

3.5 문화예술분과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001	국기원	강남구	태권도를 발전, 확산시키기 위해 1972년 설립한 세계 태권도 본부가 있는 곳으로써 각종 세계 태권도 대회를 주관하는 세계 태권도 보급의 요람	다-04
E.002	윤극영 가옥	강북구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곡집을 작곡하는 등 초창기 아동문학운동에 크게 기여한 작곡가 윤극영이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가-03
E.003	서정주 가옥	관악구	1970~2000년 생명파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인 서정주가 거주했던 가옥. 시작(詩作)의 산실로써 시인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소	다-03
E.004	태릉선수촌	노원구	1966년 국가대표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설립한 종합 선수합숙훈련장.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자 산실	가-05
E.005	김수영 시비	도봉구	1969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 김수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시비	가-04
E.006	남정현가옥	도봉구	1966년부터 한국문학의 대표적 저항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설가 남정현이 거주해오고 있는 가옥	가-04
E.007	예술의 전당	서초구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예술시설	다-03
E.008	독섬승마장	성동구	조선시대 관마의 목마장, 군대의 연무장으로 이용되었던 독섬에 1954년 조성된 서울 유일의 승마장	나-04
E.009	박경리 가옥	성북구	한국 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작품인 대하소설 '토지(土地)'를 쓴 소설가 박경리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가-03
E.010	변종하 가옥	성북구	시적인 정서에 한국적인 이미지의 결합을 추구해 온 화가로 평가되는 변종하가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나-03
E.011	윤중식 가옥	성북구	서양 미술의 도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화가 윤중식이 생전에 거주했던 가옥	나-03
E.013	효창운동장	용산구	1960년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규격 축구경기장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014	장용학가옥	은평구	1970~1999년 '관념소설'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 낸 작가로 평가 받고 있는 소설가 장용학이 거주했던 가옥. '하여가행' 등을 집필했던 장소로써 소설가 장용학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	가-02
E.015	기독교방송국 (현 대한기독교서회 건물)	종로구	1954년 개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방송국이 있던 장소	상세-나-03
E.018	세종로 세종대왕 동상	종로구	2009년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세계기록유산인 '한글'을 기념하고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동상	상세-나-02
E.019	세종로 이순신 동상	종로구	1968년 설립 이후 서울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근현대기를 함께 해온 동상으로 박정희대통령의 친필현판과 경축문이 남아있는 동상	상세-나-02
E.020	세종문화회관	종로구	1961년 우남회관으로 출발, 1972년 화재로 소실된 시민회관의 뒤를 이어 1978년 개관한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문화공간	상세-나-02
E.021	이상의 집	종로구	시인 이상이 3~23세까지 살던 백부 김연필의 집터 중 일부, 이상이 운영한 문화예술인들의 야지트 '제비다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학기념관으로써 시인 이상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	상세-가-01
E.022	카페 귀천	종로구	1985~2010년 천상병 시인의 부인이 운영했던 전통찻집의 명맥을 잇고 있는 카페로써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장소	상세-나-03
E.024	학림다방	종로구	1956년경 개업하여 음악·미술·연극·문학 등 예술계 인사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었던 장소. 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의 발원지	상세-가-04
E.025	허리우드극장	종로구	1969년 낙원상가 내 개관한 극장으로 1990년대까지 서울 시내 10대 개봉관 중 하나. 종로와 충무로 일대 영화의 역사를 대변하는 장소	상세-나-03
E.026	국립극장	중구	1950년 현서울시의회 의사당건물에서 개관한 이후 한국의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종합민족문화센터	나-03
E.027	대한체육회관	중구	1920년 '조선체육회'로 창립된 우리나라 체육사의 상징이며 '대한체육회'의 구 본부	상세-나-02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028	명동예술극장	중구	1934년 건축가 타마타 키즈지가 설계하여 당시 문화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한 바로크 양식의 영화관 건물. 서울의 한복판에서 연극, 오페라, 음악회 등 공연예술의 메카 구실을 하던 문화적 상징 장소	상세-다-03
E.031	석호정	중구	조선 인조 때 지어진 민간인을 위한 활터를 계승하고 있는 곳으로 시민들이 국궁을 통해 전통문화를 배워나갈 수 있는 장소	상세-다-04
E.032	세실극장	중구	1976년 개관한 소극장으로 1970~1980년대 연극의 메카, 건축가 김종업의 1970년대 작품 가운데 하나	상세-나-02
E.033	손기정기념관 (구양정고)	중구	체육인 손기정이 다니던 양정의숙(양정고의 전신)의 옛 건물에 손기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	상세-다-01
E.034	장충리틀야구장	중구	1971년 지어진 서울 유일의 리틀 야구장. 한국 유소년 야구의 성지이자 메카	상세-다-04
E.035	장충체육관	중구	1963년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돔 실내 경기장. 수많은 역사적인 운동 경기가 열린 장소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장소	상세-다-05
E.036	장충테니스장	중구	1971년 지어진 우리나라 테니스의 요람으로 수많은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개최한 장소	상세-다-04
E.037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박태원)		고현학적 방법론(Modernology)을 통하여 1930년대 서울의 모습을 묘사한 소설가 박태원의 대표적 소설	다-05
E.038	서울 토박이의 말		표준어의 근간을 이루는 서울지방 고유의 사투리	다-05
E.039	삼일로 창고극장	중구	1975년 문을 연 극장으로 프로듀서 시스템을 통한 창작극 발굴과 신인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며, 젊은 연극인들의 실험연극의 장이자, 사랑방 역할을 수행했던 공간	다-03
E.101	전뢰진 옛 가옥 및 작업실	관악구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한국적 정서로 표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재 조각가인 전뢰진의 가옥 및 작업실	다-02
E.103	서세옥 가옥 및 작업실	성북구	정통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양화가 서세옥의 가옥과 작업실	나-03
E.107	석파랑 (손재형 옛 가옥)	종로구	한국 서예계의 거목인 고 손재형의 옛 가옥	나-03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201	한국점자도서관	강동구	1969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점자도서관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	나-05
E.202	금천예술공장	금천구	1975년에 지어진 공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가와 주민 및 지역 사회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음	다-02
E.203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1983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가-04
E.204	국립국악원	서초구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 전통에 기반을 둔 창조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가기관	다-03
E.207	김태길 가옥	종로구	철학자이자 수필가 김태길 교수가 1975년 까지 살았던 장소로, 김태길 교수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	나-03
E.208	정동극장	중구	1995년 연극 및 전통 예술을 위해 건립된 전문 공연장	상세-나-05
E.301	광화사	-	김동인이 1935년 발표한 소설로 일제시대 인왕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모던한 도시 서울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남	다-05
E.302	길	-	1979년~1969년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손창섭의 소설로 1960년대 급격하게 도시화된 서울을 배경으로 개발과 근대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	다-05
E.303	나목	-	박완서가 1970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6.25 전쟁과 분단문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비판을 사회현상과 연관해서 그려낸 작품	다-05
E.304	날개	-	이상이가 1936년 발표한 소설로 1930년대 자본주의 소비사회로 변모해가는 식민지 경성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	다-05
E.305	달밤	-	이태준이 1933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신문사 보조배달원을 통해 일제시대 서민의 삶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다-05
E.306	무정	-	이광수가 1917년 발표한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근대적 사랑과 당대의 생활상이 잘 묘사되어 있음	다-05
E.307	병어리 삼룡	-	나도향이가 1925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신분주의 세계에서 좌절된 사랑을 통해 근대화 이전의 서울의 모습과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308	별을 헨다	-	계용묵이 1946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광복 후 월남한 사람들의 애환과 해방기 서울의 혼란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	다-05
E.309	삼대	-	염상섭이 1931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과 당시 서울의 풍경을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음	다-05
E.310	서울은 만원이다	-	1966년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이호철의 장편소설로 1960년대 중반 서울을 배경으로 상경한 농촌 처녀들이나 월남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그리고 있음	다-05
E.311	오발탄(영화)	-	1961년 제작된 유현목 감독의 영화로 월남민이 자리 잡은 해방촌을 배경으로 6.25전쟁 이후의 비참한 서울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고 있는 작품	다-05
E.312	운수좋은 날	-	현진건이 1924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1920년대 인력거꾼의 하루에 대한 묘사를 통해 기층민중의 삶을 그려냄	다-05
E.313	천변풍경	-	박태원이 1938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청계천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식민지 근대화 정책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다-05
E.314	취우	-	1952년~1953년 조선일보에서 연재된 염상섭의 장편소설로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서울을 배경으로 전쟁의 혼란스러운 속에서 개개인의 이기적 욕망 추구를 묘사한 작품	다-05
E.315	태평천하	-	채만식이 1938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판소리에서 사용되던 표현법을 활용하여 식민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과 인물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	다-05
E.316	그날이 오면	-	1949년 발간된 심훈의 유고집 <그날이 오면>에 수록된 시로 광복된 조국의 그날을 열정적으로 노래한 민족항일기의 대표적인 저항시로 서울 지명이 나타나고 있음	다-05
E.317	도봉	-	박두진이 1946년 발표한 시로 가을 도봉산의 고요하고 적적한 모습을 바라보며 삶을 성찰하는 작품	다-05
E.318	독방62호실의 겨울	-	김광섭이 1941년 발표한 시로 김광섭이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로 일제강점기의 강압적 통치에 대한 저항을 상징함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319	봉황수	-	조지훈이 1940년 발표한 시로 퇴락한 궁궐을 시적 소재로 하여 역사의식과 현실 인식을 날카롭게 드러내면서,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노래하였음	다-05
E.320	성북동 비둘기	-	김광섭이 1969년 발표한 시로 당시 성북동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배경으로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인간성의 상실을 표현한 작품	다-05
E.321	세월이 가면	-	명동을 배경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했던 박인환이 명동 어느 선술집에서 즉흥적으로 쓴 시로 1956년 발표되어 국민 애창시이자 명동을 상징하는 노래로 유명함	다-05
E.322	아스팔트	-	1941년 발간된 정지용의 시집 <백록담>에 수록된 시로 서울의 초기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작품으로 서울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음	다-05
E.323	왕십리	-	김소월이 1925년 발표한 시로 '왕십리'라는 서울 지역의 지명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	다-05
E.324	종로5가/신동엽	-	신동엽이 1967년 발표한 시로 종로5가에서 갓 상경한 소년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비참함과 구조적 모순을 환기시키고 있는 작품	다-05
E.325	창의문외	-	백석이 1933년 발표한 시로 1930년대 중반 창의문 밖의 세검정 쪽의 풍경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	다-05
E.326	천리를 올라온다	-	김영랑이 1949년 발표한 시로 일제 강점기 감상주의적 면모에서 벗어나 새나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인의 변화된 변모를 보여주는 작품	다-05
E.327	귀로	-	1967년 제작된 이만희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서울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관을 활용하여 개방적 공간으로서의 서울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	다-05
E.328	마부	-	1961년 제작된 강대진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전근대와 근대가 충돌하는 당시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	다-05
E.329	맨발의 청춘	-	1964년 제작된 김기덕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젊은 세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그들의 공유했던 문화를 표현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330	바보들의 행진	-	1975년 제작된 하길종 감독의 영화로 1970년대 서울의 대학가를 배경으로 비판적 사고를 거세당한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한 영화	다-05
E.331	별들의 고향	-	1974년 제작된 이장호 감독의 영화로 1970년대 고도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소비 사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여성의 개방적인 성의식을 그려 내고 있는 작품	다-05
E.332	서울의 지붕밑	-	1961년 제작된 이형표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전통과 근대가 대립하는 당시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	다-05
E.333	서울의 휴일	-	1956년 제작된 이용기 감독의 영화로 서촌, 청계천, 덕수궁, 남대문, 남산 등 1950년대 서울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다-05
E.334	영자의 전성시대	-	1975년 제작된 김호선 감독의 영화로 1970년대 전문적인 기술 없이 상경한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이 바라보는 욕망과 좌절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을 표현한 작품	다-05
E.335	오발탄(소설)	-	이범선이 1959년 발표한 소설로 남북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을 정밀하게 다룬 작품	다-05
E.336	혈맥(영화)	-	1963년 제작된 김수용 감독의 영화로 전쟁으로 인한 실항민들의 애환을 다룬 이야기로 영화 화면을 통해 60년대 서울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음	다-05
E.337	월간 시조	-	1910년 창간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월간지로 근현대사의 수난 속에서도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 옴	다-05
E.401	국물 잇사옵니다	-	이근삼이 1966년 발표한 작품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는 혼란스러운 도시 속에서 비인간적인 행태로 성공을 거둔 주인공이 결국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 도시의 급격한 근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그려낸 작품	다-05
E.402	불모지	-	차범석이 1958년 발표한 작품으로 전후 도시 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피해해진 서울의 모습을 통해 인간 정신의 공동화와 피해화 현상을 그려낸 작품	다-05
E.403	살아있는 이종생 각하	-	오영진이 1949년 발표한 작품으로 해방 직후 서울에서 매판 자본가들이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지키려는 삶을 풍자적으로 그려냄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404	혈맥(희곡)	-	김영수가 1848년 발표한 작품으로 해방 직후 무질서한 서울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을 통해 광복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희곡	다-05
E.405	고궁추색	-	작곡가 금수현이 1961년 발표한 작품으로 서울 고궁의 가을 모습을 전통 음악적 어법의 예술가곡으로 치환시킨 작품	다-05
E.406	한강	-	작곡가 변훈과 작사가 정공채가 1986년 발표한 작품으로 악구를 통해 평화로운 한강의 흐름과 장조와 단조의 치환을 통해 분단의 한을 그려낸 작품	다-05
E.407	한강(칸타타)	-	작곡가 채동선이 1964년 발표한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성곡이며,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다-05
E.408	딸깍발이	-	1952년 발표된 이희승의 대표적인 수필으로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하였던 6.25전쟁 당시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중요성을 드러낸 작품	다-05
E.409	마포	-	작가 백석이 1935년 출간한 작품으로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던 마포에서 조선의 문물과 근대적 문물이 공존하는 모습을 백석이 그만의 예술적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	다-05
E.410	꺼병이	-	1970년대 서울 신흥주거지의 골목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 아파트가 등장하기 전 골목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만화가 길창덕의 대표작품	다-05
E.411	선달이 여행기 (서울편)	-	길창덕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어린이 잡지 <새소년>에 연재한 만화로 창경원, 고가도로 등을 통해 1970년대 서울의 모습과 생활상을 흥미롭게 묘사한 작품	다-05
E.412	돌아가는 삼각지	-	가수 배호가 1967년 발표한 가요로 배상태가 작곡하고 이인선이 작사한 곡. 1960년대 근대도시 서울을 상징하였던 삼각지 로터리를 배경으로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가 담겨있는 작품	다-05
E.413	마포종점	-	은방울자매가 1968년 발표한 가요로 박춘석이 작곡하고 정두수가 작사한 곡. 1968년 서울 전차의 운행종료에 대한 아련함을 영등포, 당인리 발전소, 여의도 비행장 등 여러 장소들을 통하여 노래한 작품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414	서울로 가는 길	-	가수 양희은이 1971년 발표한 가요로 작곡가 김민기가 1970년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의 정서를 담아 작사·작곡한 곡	다-05
E.415	서울의 모정	-	작곡가 길옥윤이 작사·작곡하고 가수 패티 김이 1973년 발표한 작품으로 1970년대 서울 남산과 명동을 배경으로 연인들의 사랑과 맹세를 노래함	다-05
E.416	서울의 아가씨	-	가수 이시스터즈가 1962년 발표한 곡으로 박선길이 작곡하고 김남석이 작사함. 1960년대 서울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경쾌한 리듬으로 밝고 환하게 노래한 작품	다-05
E.417	서울의 찬가	-	작곡가 길옥윤이 작사·작곡한 곡으로 빠른 박자와 경쾌한 리듬으로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담은 작품. 가수 패티 김이 특유의 창법으로 밝고 명랑하게 불러 더욱 유명해졌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서 애창된 작품	다-05
E.418	안개 낀 장충단 공원	-	배상태가 작곡하고 최치수가 작사한 곡으로 도시의 정서를 그만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가수 배호가 1976년 발표한 작품	다-05
E.419	유쾌한 시골 영감	-	조지 존슨의 〈Laughing Song〉에 범오가 작사한 가사를 붙여 가수 강홍식이 1938년 발표한 번안곡. 도시화의 시작과 함께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골사람들의 모습을 유쾌한 모습으로 그려내어 이후에도 〈서울구경〉으로 편곡되는 등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	다-05
E.420	제3한강교	-	작곡가 길옥윤이 작사·작곡하고 가수 혜은이가 1979년 발표한 곡으로 용산 한남동과 강남 신사동을 이어 강남개발의 기점이 된 제3한강교와 그 아래를 흐르는 한강을 무대로 연인들이 미래를 약속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	다-05
E.501	가람일기	-	이병기가 1920~1963년 쓴 일기를 제자 정병욱이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이병기의 수다한 일상과 더불어 시대를 바라보는 혜안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502	가상소견	-	1928년 조선일보에서 연재된 안석영의 가상소견 시리즈는 5편의 삽화와 글로 이뤄진 만문만화로, 서울의 풍경이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당대 사람들의 행태를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작품	다-05
E.503	그리운 이름 따라 - 명동 20년	-	1966년 명동백작이라고 불렸던 이봉구가 하며 쓴 수필로, 195·60년대 명동을 배경으로 다방과 싸롱, 주점들을 전전하면서 문학예술을 펼쳤던 오장환, 박인환, 전해린 등을 회고하며 쓴 글	다-05
E.504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최인훈)	-	1972년 최인훈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6)의 형식을 차용하여 집필한 연작소설. 일제강점기 경성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를 다루었던 전작과 달리 서울로 피난 온 소설가 구보씨의 1969~1972년의 일과를 기술한 소설	다-05
E.505	사주오 두부 장수	-	1940년 이희승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어학자인 최현배가 쓴 작품으로 문학적 가치가 뛰어남	다-05
E.506	찔레꽃	-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김말봉의 장편소설로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연애 서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당시 독자들의 대중적 취미를 자극하여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	다-05
E.507	한국인	-	1966년 출간된 손장순의 소설로 해방부터 한국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1964년 6.3 대일굴복외교반대 데모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배경으로 미국 유학생의 인텔리틱 삶과 상처가 담겨 있는 작품	다-05
E.601	통인화랑	종로구	1975년 개관하여 박서보, 윤광조, 허건 등 유명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 고미술품 운송을 최초로 시작하는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화랑	상세-나-03
E.602	조선화랑	강남구	1971년 개관하고 국제기획전·해외아트페어에 참가하여 한국작가들의 국제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한 화랑	다-04
E.603	예화랑	강남구	1978년 개관하여 백남준 관련 작품전을 다수 기획하였고, 강남의 첫 화랑으로서 신사미술제를 개최하는 등 강남지역의 미술문화를 선도한 화랑	나-04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604	샘터화랑	서초구	1978년 개관하고 1980년대 민중미술과 관련된 많은 작가·작품을 발굴하여 민중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화랑	다-03
E.605	전아사	-	1927년에 발표된 최서해 소설. 제목 '전아사(錢迓辭)'는 '전별사'의 반대 의미로 잔치를 베풀면서 환영한다는 의미이며 최서해의 자전적 소설의 맥을 보여줌. 간도에서 서울로 처음 온 함경도 출신 주인공이 서울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 들면서 예전의 생활을 잊게 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	다-05
E.606	전차구경	-	1976년에 발표된 하근찬 소설로, 1974년 처음 개통된 지하철 1호선을 타러 간 조주사와 손자의 하루 여행을 다루고 있음. 지하철이 개통될 당시 서울의 모습과 사람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	다-05
E.607	어머니	-	1925년에 발표된 나도향 소설로, 흥성거리는 종로의 거리와 청파동, 효창공원 등 일제강점기 당시 서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음. 첩 신분이 된 여주인공이 아이를 버리고 가출을 감행했다가 아이가 병들자 돌아오는 이야기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자유연애와 모성의 결합 문제를 다룸	다-05
E.801	도시로 간 처녀	-	1981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로, 1980년대 서울로 상경한 시골 여성들의 노동 문제를 담은 작품	다-05
E.802	돈	-	1958년 김소동 감독의 영화로, 1950년대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농촌과 이에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서울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작품	다-05
E.803	로맨스바바	-	1960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서울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	다-05
E.804	박서방	-	1960년 강대진 감독의 영화로, '해방촌'을 배경으로 1960년을 전후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담아낸 작품	다-05
E.805	삼등과장	-	1961년 이봉래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당시 서울의 근대화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	다-05
E.806	수학여행	-	1968년 유현목 감독의 영화로, 1968년 당시 서울의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	다-05

관리번호	미래유산명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E.807	어화	-	1938년 안철영 감독의 영화로, 당시 한국 영화의 기술·형식·내용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	다-05
E.808	여사장	-	1959년 한형모 감독의 영화로, 당시 독립적인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롯해서 미도파 앞 공중전화, 명동 거리 등 서울시내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	다-05
E.809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	1966년 한형모 감독의 영화로, 1963년 개장한 워커힐 호텔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다-05
E.810	젯트부인	-	1967년 이규웅 감독의 영화로, 한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아파트로 건설된 마포아파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	다-05
E.811	지옥화	-	1958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로, 1950년대 서울역, 성동구 일대 등 서울의 거리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	다-05
E.812	휴일	-	1968년 이만희 감독의 영화로,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당대 한국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을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담아낸 작품	다-05
E.813	경성유록	-	1913년 강릉 김씨부인이 서울을 여행한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로서, 남대문 부근의 풍경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감상이 잘 묘사된 작품	다-05
E.814	호박 목걸이	-	1917년부터 1942년까지 서울에 살았던 메리 L. 테일러가 쓴 자서전으로 당대 한국 풍경과 한국인에 대한 서술이 사실적이고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	다-05

4. 정책토론회 개최

2023년 09월 11일 서울시건축센터 라키비움에서 '서울 미래유산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연구원 유튜브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서울 미래유산의 성과를 회고하는 한편 그동안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주제발표 이후 진행되었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①미래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미래유산의 홍보방향, ②미래유산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방향, ③스토리텔링을 통한 미래유산의 창의적 활용방향, ④미래유산에 있어 서울역사박물관의 역할과 협력 방향, ⑤미래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주체간 협력 및 행정지원 방향, ⑥미래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정책토론회 진행개요

시 간		내 용	
14:00~14:05	05'	개회사	-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14:05~14:40	35'	주제발표	- 민현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40~14:45	5'	휴식 및 정리	
14:45~16:15	90'	전문가 토론회	- 노호정 TBWA 코리아 수석국장 - 박지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한영숙 사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 소장 - 최보영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정윤남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6:15~16:20	05'	질의응답	



서울 미래유산 향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토론회 주요내용

노호정 TBWA 코리아 수석국장

- 미래유산은 단어적으로 미래와 유산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로 구성
- 의미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충돌을 통하여 흥미가 유발
- 미래유산이 담고 있는 근현대 서울의 감성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인가, 혹은 미래유산의 물적 특성과 문화적인 콘텐츠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홍보의 방향이 결정
- 기성세대 이외의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스토리, 세대간의 공감의 여지가 많은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
- 특히 미래세대가 미래유산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유산의 선정과 활용과정에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참여가 또한 필요
- 이와 더불어 미래세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

박지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2019년 지역전문가와 함께 초3 사회과목으로 25개 자치구에 대한 우리동네 마을교과서와 중·고등학교 마을알기배움책을 제작, 체험프로그램과 워크북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초등학교 1-2학년은 우리마을, 3학년은 우리자치구에, 초등학교 4학년은 서울시(우리도시)에 대해서 배움, 3학년 교재는 자치구와 함께 제작하였고 앞으로 서울시 미래유산과 연계하여 4학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과과정에 미래유산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이나 정보의 공유가 필요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과자료는 학생 외에도 학부모, 교사,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한영숙 사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 소장

- 미래유산에 담긴 이야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민 개개인이 미래유산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
-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유산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아닌 시민 개개인의 기억들이 얹혀 있는 삶의 공간인 동네의 유산이 되어야 함
- 동네의 공유공간이자 생활의 핵심시설이 미래유산으로 보존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생활권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

최보영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2007년부터 행정동별로 진행해왔던 면 단위의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차 선 단위 주제조사의 필요성을 인식
- 2013년 서울미래유산 마스터플랜을 기획할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참여한 바 있어 서울미래유산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서울미래유산 기록사업을 진행

- 미래유산 가운데 전통기술이나 산업, 노포 등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별하여 관련 사업을 기획
- 2020년 낙원떡집 이후 2021년부터는 대장간, 이용원 등 하나의 주제 아래 복수의 대상을 선정, 비교연구를 통하여 서울성을 도출하고자 노력
- 올해에는 도장집에 대한 기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유산뿐만 아니라 미래유산이 아닌 유산 가운데 의미있는 것도 선별하여 기록사업을 진행할 예정
- 앞으로 서울역사박물관 본관이나 분관인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주제전시도 계획 중

정윤남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기존의 문화재와는 달리 우리의 삶 자체가 유산이 될 수 있는 미래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경함과 미래유산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나타난 이질적 요소의 혼재, 담당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일관성 있는 미래유산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어려움 발생
- 따라서 여러 주체와의 느슨한 연계로 협력관계 다각화, 미래유산을 시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노하우 공유,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공동대처를 통하여 정책의 경직성 극복,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한 구체적인 해법 모색, 여러 관련 주체와의 협력유도 및 강화를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하여 담당 부서의 행정적 부담을 분산
- 한편 일상을 공유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삶으로 체험하고 싶어하는 관광 트렌드를 고려하면 미래유산이 그에 가장 적합한 관광자원일 수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미래유산의 활용가치 가운데 하나
- 결국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주도가 아닌 지원으로 행정지원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서울 미래유산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서 선정하고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가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삶과의 연계가 필요
- 대한제국 미국공사관이 있는 워싱턴 DC의 로건 서클지역의 경우 1972년부터 로건 서클 지역협의회가 지역의 역사가옥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하우스 투어를 통하여 일상의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우범지역이었던 마을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
- 이후 하우스 투어는 마을의 일꾼에게 지역 영웅의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현재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가꾸고 지역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음
- 미래유산이 향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치가 있는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미래유산을 매개로 시민들이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유산이 시민의 가치 있는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

5. 미래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2023년 09월 11일~12일 양일에 걸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음식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구절판 서울 반가의 음식을 한글로 소개한 조리서인 <조선요리법>과 함께 이 책에 수록되어있는 구절판과 너비아니를 직접 현대식으로 만들어 보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동영상은 서울미래유산관이 위치해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생활사전시관과 푸드앤컬처코리아의 스튜디오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1938년에 발간한 조선요리법에 대해서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시민생활분과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였던 호서대학교 정혜경 명예교수가 출연하여 이 책이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이유, 저자인 조자호(趙慈鎬) 선생과 조선요리법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조선요리법에서 소개된 조리법을 참조하여 현대식을 재해석한 구절판과 너비아니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서울미래유산 조선요리법(구절판/ 너비아니) 동영상 제작

<서울감성여행> 오디오 가이드 제작

서울연구원이 2018년 출간한 도보관광 해설서인 <서울감성여행>을 오디오가이드 형태로 제작하였다. 서울감성여행은 서울 도심에 산재하여 있는 미래유산을 도보여행을 통하여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여행안내서이다. 여덟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 위치한 미래유산을 1~2시간의 도보여행으로 찾아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오디오가이드 형태로 제작한 서울감성여행은 현장에서 핸드폰을 활용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여덟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루트 상의 미래유산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GPS를 활용하여 위치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감성여행 오디오가이드 서비스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나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에 연동시켜 2024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도보여행 해설사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시간대에 오디오가이드를 접속하여 혼자서도 미래유산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미래유산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외국인 방문객에게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기회가 적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도 근현대 서울의 감성을 담고 있는 미래유산을 오디오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일부 코스에 대해서는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감성여행 오디오가이드 서비스(계획안)

6. 미래유산 해외 정책홍보 활동

홍보용 영문 동영상 스트리밍 및 해외 공무원 교육

서울연구원은 지난 2022년 서울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2023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스트리밍하고 있다. ‘미래유산의 개념과 내용’, ‘미래유산 주요사업 소개’로 구성된 2편의 동영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였던 미래유산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관련 주요 사업과 성과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공유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서울 미래유산 정책을 홍보하였다. 지난 02월 24일과 03월 17일 멕시코시티와 카이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전하는 서울 미래유산 정책의 내용과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서울을 비롯한 해외의 도시가 처하여 있는 문화유산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미래유산 홍보 동영상(영문) 및 인재개발원 해외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카이로)

싱가폴 국토개발부·도시개발청·문화재청·싱가폴기업청과의 정책홍보 및 교류

08월 30일 싱가포르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도시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문화재청(National Heritage Board), 싱가포르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에서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정책 전반을 공부하기 위하여 서울연구원을 공식 방문하였다. 서울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서울 미래유산 프레임워크(Seoul Future Heritage Framework)”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 간담회를 통하여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연구진과 함께 마포구와 서대문구 소재 미래유산(성우이용원, 독수리 다방, 공씨책방, 경의선 숲길 공원)을 방문하고 소유·관리자와 가벼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싱가폴 대표단 명단

참석자	소속 및 직책	참석자	소속 및 직책
무하마드 파살 이브라힘 Muhammad Faishal Ibrahim	국토개발부 장관	멜리사 메이 탄 Melissa May Tan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케빈 체 Kevin Chee	국토개발부 전략계획과장	탄 영준 Tan Yong Jun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장
앙 카영(켈빈) Ang Kah Eng(Kelvin)	도시개발청 보존관리국장	사타쉬밤 로가라즈 Sathashivam Logaraj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라이 시잉 Lai Si Ying	도시개발청 실무 계획가	화 첸니 Hua Qianni	싱가폴기업청 지역재생국장



서울 미래유산 학술 간담회 개최 및 싱가포르 대표단의 현장 방문(성우이용원, 경의선 숲길 공원)



서울 미래유산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1. 주요성과 및 문제점

1.1 주요성과

시민이 공유하는 집단기억과 감성으로서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주목

기존의 문화유산은 대부분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일반시민이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미래유산은 서울시민의 관점에서 공유하는 혹은 공유할 만하다고 추정되는 서울시민의 기억이자 감성으로 문화유산을 인식함으로써 문화유산과의 거리감을 낮출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문화유산의 물리적 형상 보존을 강조하는 기존의 문화재 관리 방식은 보존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 소유자(관리자)의 부담감을 가중시켰다. 이는 또한 공공의 금전적 보상은 소유자(관리자)의 자발적 보존·활용 의지를 저하시키고 공공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에 미래유산은 문화유산의 물리적 형상보다는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비물리적인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보존의 부담감을 줄이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 유동성을 수용할 수 있었다.

문화유산의 향유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미래유산의 활용방안을 모색

기존의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가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호 방식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를 비롯한 일반시민은 법·제도가 허용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전문가가 평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틀 속에서 간접적으로밖에 체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활용과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입장은 늘 수동적이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에 주목하는 미래유산의 경우, 가치 형성의 주체인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문이나 뉴스, 연예·교양 TV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민에게 미래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였다. 또한 블로그 포스팅, UCC 등 시민공모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력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미래유산을 주제로 한 콘서트, 전시회 등 여러 문화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소재로써 미래유산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시민참여형 문화유산 보존·활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12년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시민공모를 통하여 미래유산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505건의 미래유산이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되었다.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문화예술 분과로 구성된 50여 명의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미래유산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전문가,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예비후보 가운데 서울시민과 공유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선별하였다. 한편 선별된 미래유산 가운데 기념물, 국가 또는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 문화재로 지정되어 선정 해지된 미래유산이 7건, 현재 우수건축자산으로 중복 선정된 미래유산은 4건에 이른다.

미래유산의 선정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유산 마스터플랜이 2013년 수립되었다. 미래유산의 정의, 선정기준과 과정, 보존·활용 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소유자(관리자)의 자발적 보존·활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설정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미래유산의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도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래유산의 소유자(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서울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표식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인지도가 높고 주변과 잘 조화되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1.2 향후과제

지난 “2022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를 통하여 미래유산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유산의 사회적 인지도를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문화영향평가지표를 기초로 미래유산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미친 문화적 영향을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래유산 보존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10년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식 부족’, ‘획일적인 미래유산의 활용’,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과제 도출

향후 발전과제	사회적 인지도 분석	문화영향평가	자문회의 내용
시민사회의 인식 부족		-시민참여의 정도 -예술적 교류 형성 (예술을 통한 참여)	-미래가치 강화 -계층별 맞춤형 홍보시행
획일적인 미래유산의 활용	-가치해석 총돌	-소수집단 문화활동 장려 -문화생활 불평등 해소	-가치해석 다각화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	-임대차 갈등 -운영난 -강제적 보존반대	-사회적 관계 형성 (갈등해소)	-관련 주체간의 협력확대

참여형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부족

미래유산을 통하여 기존의 법·제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기억과 감성의 가치가 새로이 주목받았다는 점은 가치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보전·관리되고 있는 문화재와는 달리 시민 참여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활용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보고자 하였던 시도는 미래유산을 문화재와 동일시하는 시민들의 시각으로 인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의 정책추진이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보전 의지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미래유산의 발굴 또는 인정 건수를 알리는 데에만 치중하여 또 다른 문화재라는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기존 문화재 활용방식을 답습한 획일적인 미래유산의 활용

지난 10년간 선별한 미래유산의 범주가 다양하여 동일한 가치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근현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완결성의 부재로 다양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문화재 활용방식을 답습한 단순한 정보전달이나 일회성 문화행사의 반복적 시행으로는 차별화되는 미래유산만의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추가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보다 입체적인 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기억과 감성으로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의 발굴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제도상 경합 관계에 있는 등록문화재, 우수건축자산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책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래유산의 자발적인 보전의지를 고취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

건축·토목구조물이나 마을 시장과 같은 유형유산에서 문학, 영화, 대중가요 등의 무형유산으로 점차 그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같은 문학이라고 하여도 시, 소설, 희곡, 수필, 일기, 만문만화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유산이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지원방식도 개별 미래유산의 특성에 적합하게 전문화되어야 하지만 현행 지원방식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소규모 환경개선, 부동산 매입 등 모든 미래유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미래유산의 다양화와 세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주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이고 유연한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2.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2.1 계획목표

미래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서울 문화 창작의 기반 마련

지난 연구용역을 통하여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과제로 제시된 ‘시민사회의 인식 부족’, ‘획일적인 미래유산의 활용’,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을 중심으로 2030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2013년 발표한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플랜이 미래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와 가치 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2030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K-컬처의 문화적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 창작의 소재로서 미래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유명건축가의 건축물이나 공원, 터널, 교각과 같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구조물을 비롯하여 오래된 가게, 소설, 영화, 대중가요, 서울 토박이의 말 등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유산이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사방치기나 딱지치기, 달고나 등 근현대를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레트로적 소재가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되면서 사람들에게 K-드라마나 K-필름, K-푸드, K-스타일 등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미루어 볼 때 서울의 미래 문화 콘텐츠 창조를 위한 소재로써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30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에서는 ‘미래유산을 활용한 서울 문화 창작의 기반 마련’을 계획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한 3가지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 ① 보존을 넘어 향유의 대상으로서 미래유산 홍보 및 인식강화
- ② 미래유산의 심도있는 가치규명과 이야기를 통한 창의적인 활용방안 모색
- ③ 다양한 유형의 미래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유연한 정책 마련

2.2 기본방향

보존을 넘어 향유의 대상으로서 미래유산 홍보 및 인식강화

2012년 미래유산의 시작과 함께 미래유산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틀 속에서 보호·관리를 받는 문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발굴, 보존, 활용되는 미래유산이 서울시민 사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래유산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향유 기회의 확대로 미래유산에 대한 혼란·편견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미래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시민과 함께 미래유산에 담긴 가치를 향유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미래유산의 선별이나 가치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홍보방식을 서울시민이 직접 미래유산에 담긴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구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편화되어 버린 온라인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저변을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 한편 단순히 오래된 것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미래세대가 미래유산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발굴하고 서울시민과 공유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문화재와 차별화되는 미래유산만의 특성으로 특히 미래세대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전략을 통하여 미래유산이 새로운 서울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래유산의 심도있는 가치규명과 이야기를 통한 창의적인 활용방안 모색

그동안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부진하였고 새로운 개념의 문화유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적인 경험 부족으로 기존의 문화재에 적용되었던 프로그램을 답습함으로써 미래유산만의 차별화되는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지만 이후 사업이 정형화되면서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미래유산만의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미래유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래유산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적인 갈등의 양상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래유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다양화되면서 미래유산의 해석도 다각화되고 있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래유산에 대한 해석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인정을 위한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기초적인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미래유산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인과관계 및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유산의 깊이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도출된 미래유산을 둘러싼 복합적인 해석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미래유산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풍부한 소재거리로 활용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편화되어 버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수집된 서울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생산한 이야기도 미래유산만의 활용 모델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여건변화로 인하여 멸실·훼손되고 있는 미래유산을 서울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활용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미래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유연한 정책 마련

미래유산은 기존의 문화재와는 달리 단순히 하나의 문화적 산물에 갇힌 문화유산이 아니다. 미래유산이 담고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보전가치에 따라 유형과 무형의 구분을 넘나들고 있어 이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보존·활용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가치의 유형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존·활용정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은 별도의 법적 보호·제재 없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고 자발적·자율적 보존·활용을 요

구한다는 점에서 유연하고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유산 보존·활용 정책과 지원방식을 수정·보완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와 산하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미래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구축과 공유를 통하여 관련 부서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보존·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리적 시설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지원사업의 내용도 미래유산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이 미래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는 만큼 경제·사회·문화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자발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시설개선에서 탈피하여 경영컨설팅, 분쟁상담조정 등 비물리적인 지원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유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맞춤형 행정지원모델(위기의 미래유산)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3.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2030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가지 기본방향에 대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향유를 통한 미래가치 창조와 계층에 따른 맞춤형 홍보로 미래유산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심도 있는 연구로 콘텐츠를 다각화하여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으로 세심한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체 간 협력과 운영방식 업그레이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제시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도 사례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기본방향	세부추진방안		
보존을 넘어 향유의 대상으로서 미래유산 홍보 및 인식강화	1	향유를 통한 미래가치 창조로 인식의 폭 확대	미래유산의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향유로 발전 가능성을 구현 미래세대의 참여로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 향유를 선도
	2	계층에 따른 맞춤형 홍보로 인식강화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고등학생의 참여를 강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미래유산의 심도 있는 가치규명과 이야기를 통한 창의적인 활용방안 모색	3	심화연구를 통한 가치해석의 다각화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시민들의 향토연구로 기초조사 내용심화 심화연구로 네가티브 유산의 가치해석을 다각화하고 공론화 문화행사로 사라지는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함양
	4	스토리텔링으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문화다양성 확보 이야기를 활용한 자립경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
다양한 유형의 미래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유연한 정책 마련	5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련 주체간 협력 강화	서울시 내부부서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미래유산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관련 정보와 노하우 공유
	6	세심한 보존활용을 위한 운영방식 업그레이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내용 확대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모니터링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3.1 향유를 통한 미래가치 창조로 인식의 폭 확대

미래유산의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향유를 통하여 발전 가능성을 구현

미래유산은 ‘미래’와 ‘유산’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미래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창조를 이끌어내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시민이 공유하는 근현대의 많은 기억과 감성이 다양한 장르의 미래유산으로 발굴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세대에 의한 새로운 문화적 재해석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미래유산은 문화재와의 동일선상에서 강제적인 보존이라는 오해와 지원의 부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연하고 포용적인 개념의 미래유산이 기존의 문화재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의 시각과 이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 미래유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으로 인정되었지만 사라져버린 유산은 대부분 가치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적 발전 가능성을 구현하는 데에 실패하였던 사례였다. 미래유산이 미래 문화발전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유산에 담긴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서울시민이 미래유산의 향유를 통하여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의 참여로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 향유를 선도

미래유산에 담긴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미래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미래유산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 대다수가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을 경험한 기성세대에 의하여 선별되고 그들의 향수를 달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미래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레트로 문화이자 문화콘텐츠로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유산의 취지를 구현하는 한편 미래유산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타겟으로 한 미래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래세대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 청년 예술인이나 온라인 청년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하여 미래세대가 소통하는 방식으로 미래유산을 홍보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사례1: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사례2: 유럽유산 청소년 메이커스

사례1 |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개요

성신여자대학교는 2019년부터 강북구와 함께 대학과 지역 각자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에 성신여자대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수유시장을 대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수유시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5)은 1966년 수유시장(舊)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에는 서울시 주관 우수시장 선정에 5대 Hi-Seoul Market으로 선정되는 등 50년 이상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재래시장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대는 교육(덕성여대, 한신대 등), 교통(수유역, 미아역 등) 환경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노령화 비율이 높아 지역활력이 다소 침체되어 있다. 이에 대학 및 지역의 문화자산과 수유시장을 연계하여 문화벨트화 하는 대학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유시장 일대는 일평균 25,000여 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결합하여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상이 가능한 장소로써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소이다. 이에 따라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한 수유시장의 공유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활력 증대를 목적으로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사업내용

수유4U 활성화 프로그램은 ①수유시장의 홍보, ②세대 융합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출처: 2019-2021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종합성과집
수유시장 전경(좌), 수유시장 팝업스토어(중), 수유시장 점포개선(우)

①수유시장의 홍보를 위하여 2019년에는 상점 소개, 카드뉴스, 먹거리 콘텐츠 등 홍보 영상 제작 및 SNS 활동을 추진하는 감성채널단을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방송반 학생들이 수유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유시장 내 라디오 방송으로 소개하는 시장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공모를 통하여 응용미술 캐릭터 제작 및 저작권 등록, 텀블러 뚜껑 디자인 출원, 수유시장 캘린더 제작 등을 하였다. 2021년에는 학생들이 디자인한 수유시장 로고 장바구니, 에코키트, 수유시장 키링 등을 제작하여 수유시장 내 구매 영수증 지참 시 무료로 홍보 물품을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더욱이 수유시장을 지도화하여 가게들을 위치화하고 인터뷰, 맛집, 브이로그 등을 수록한 이야기집 2종과 상인들과 수유시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 3종을 제작하였다.

②세대 융합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하여 2019년 엽서, 에코백, 티셔츠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수유시장 내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였으며, 서비스디자인단과 상인팀을 매칭하여 메뉴판, 간판, 어플 등 서비스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수유시장 10점포와 학생으로 구성된 6개의 팀이 함께하여 점포 환경 분석을 통하여 매대의 높이 및 디자인 등을 개선하는 점포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한편,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재인식 방안 및 프로그램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수유시장 상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사업단장과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접근성, 규모,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 도출과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사업결과

상인 설문조사 결과 외관, 환경 등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장바구니, 방역키트, 에코백, 키링 등의 홍보물품 배포는 5일간 일평균 1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유시장 등 지역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수유시장을 주요거점으로 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례2 | 유럽유산 청소년 메이커스

개요

유럽유산 청소년 메이커스 (Yong European Heritage Makers)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985년 시작한 유럽문화유산의 날(European Heritage Days)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013년 핀란드에서 처음 마련된 유럽유산 청소년 메이커스는 현재 유럽 전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출처: europeanheritagedays.com/Young-European-Heritage-Makers
2023년 유럽유산 청소년 메이커스 모집공고

사업내용

유럽유산 청소년 메이커스는 청소년들의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직접적인 발굴 및 보호활동을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5분 길이의 동영상 또는 사진, 그림, 드로잉 등 시각 매체(800단어 이하의 설명 포함)를 활용하여 “당신의 유럽 유산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국가별 선별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럽차원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제출한 최종 결과물은 유럽문화유산의 날에 웹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하고 있다. 한편 06~11세의 어린이와 11~17세의 청소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그룹 단위로 참여할 수 있지만,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상은 그룹 단위 작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europeanheritagedays.com/node/336758
2021년도 11~17세 부문 수상작_라틴 알파벳(핀란드)

사업결과

2018~2023년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①지역 유산에 대한 미래세대의 시각을 이해하고 ②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③유럽 각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지난 2022년에는 6개국(핀란드, 이탈리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으로부터 60개 이상의 작업 결과물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8팀이 우승자로 선정되었다.



출처: europeanheritagedays.com/node/404273

2022년도 6-11세 부분 수상작_동영상으로 제작한 마케도니아의 전통 유산(북마케도니아)

3.2 계층에 따른 맞춤형 홍보로 인식강화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고등학생의 참여를 강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다양한 미래유산 관련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사업의 다수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유아 또는 초등학생,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추진된 사례가 있었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가 없이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 그룹은 기성세대가 공유하는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미래유산을 그들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미래유산에 담긴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서울시민의 일원이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교과과정 또는 지역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유산을 접하고,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알맞은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례1: 마을교과서

사례2: 헤리티지 스쿨 프로그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최근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먹거리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의 동영상을 통하여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외국인 유튜버(You Tuber), 외국인의 한국방문이나 여행을 소재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매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미래유산을 내국인을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소개함으로써 미래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을 넓히고 미래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다각화함으로써 미래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룬 서울의 근현대 변천사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근현대 서울시민의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담고 있는 미래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미래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근현대 서울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사건의 현장은 물론 서울의 오래된 음식점이나 대장간, 고서점 등의 가게, 시장이나 마을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근현대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는 문학작품, 영화, 대중가요 등을 감상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이와 연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기념품·홍보물 제작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직접 미래유산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와 협조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어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

사례3: 넷플릭스 시리즈, “길 위의 셰프들”

사례1 | 마을교과서

개요

2020년부터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과 수업시간에 마을교과서를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행하는 사회과 국정교과서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하여 만든 이 교과서에는 자치구의 역사와 문화유산, 주민의 생활 모습 등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마을교과서 제작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선발된 185명의 교사와 66명의 마을주민 등 모두 251명이 참여하였다. 마을주민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한 지역의 역사, 문화, 장소, 인물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집필을 담당하고 학생들은 표지디자인과 캐릭터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어 자치구마다 하나뿐인 마을 교과서를 완성하였다.



출처:서울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http://newseouledu.or.kr>)

2023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마을교과서

사업내용

마을교과서가 사회과 국정교과서와 연계될 수 있도록 ①우리고장의 모습, ②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③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④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⑤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⑥가족의 형태와 역할 변화 등으로 교과내용을 구성하되 세부 목차와 내용은 자치구마다 자율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생활모습, 문화, 역사, 유적 등을 여러 시각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에서는 자치구 내 소재하는 대표적인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체험한 문화유산을 안내 책자나 어린이신문, 포스터를 통하여 각자가 느낀 생각을 학급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각 자치구마다 꿈동이(동대문구), 구로미와 푸르미(구로구), 영롱이(영등포구) 등과 같이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스토리 중심의 학습만화로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동영상이나 자치구 인공위성 지도, 문화유산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시청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

한명 한명이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고 나만의 보물지도를 만들어 그 의미를 소개하는 마을 탐방 활동이나 게임 말을 이동하면서 지역 카드를 수집하여 가장 많은 카드를 획득한 사람이 지역의 명예외교관이 되는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나 놀이를 통하여 학습의 재미를 더하였다.



출처:서울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http://newseouledu.or.kr>), 가치교육컨설팅 홈페이지(<https://valueedu.co.kr>)
마을교과서 활동지(좌)와 보드게임(우)

사업결과

마을교과서는 기존의 국정교과서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내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동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특별한 교과서이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마을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키워나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교과서가 발간된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마을알기 배움책'도 만들어져 지역 알기 교육을 확대하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매년 마을교과서와 마을알기배움책을 수정·보완하여 현행화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과 워크북, 동영상 등 보조자료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사례2 | 헤리티지 스쿨 프로그램

개요

영국의 역사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히스토리 잉글랜드(Historic England)는 지역유산에 대한 초등부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의 후원으로 헤리티지 스쿨 프로그램(Heritage Schools Programme)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8개 지역, 400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헤리티지 스쿨 어워드(Heritage Schools Award)를 수상한 8개의 챔피언 학교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커리큘럼 개발과 학습자원 공유, 이벤트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historicengland.org.uk

헤리티지 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좌)과 헤리티지 스쿨 어워드를 수상한 학교 정보(우)

사업내용

헤리티지 스쿨 프로그램을 통하여 ①학생들이 지역 유산을 통하여 ②자신의 마을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③교사들도 지역 유산을 소재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④학교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⑤지역 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물론 ⑥학부모, ⑦지역사회도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 유산 교육관리자(Local Heritage Education Managers)는 전국의 학교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학습 내용을 조율하고 지역 유산의 소유자(관리자)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historicengland.org.uk

지역 유산을 소개하는 정보 게시판(세인트 로버트 퍼스트 스쿨(St Robert's RC First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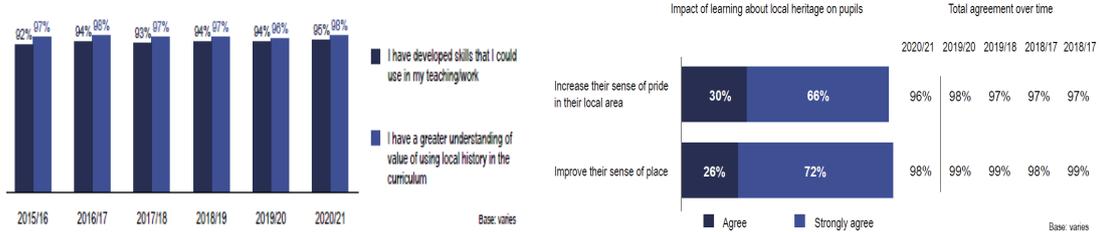


출처: historicengland.org.uk

챔피언 학교의 프로그램: 지역유산전시, 참정권을 위한 행진, 빅토리아 시대의 하루, 탄광유산 체험

사업결과

프로그램의 추진 결과, ①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커리큘럼이 강화되었고 ②학생들의 창의성도 크게 고취되었다. ③지역의 건축 유산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개발되었으며 ④주변의 지역 유산을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도 높아졌다. 지금까지 47만 명의 초등부 학생들과 2,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매년 30,000건 이상의 자료가 다운로드 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난 10년간의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성과에 관하여 실시한 ‘헤리티지 학교 프로그램의 영향에 관한 연구(2022)’에 따르면, ①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기회가 향상되었고, ②자부심 고취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교사들의 교육역량과 커리큘럼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었고 ④학생들의 참여와 학습 결과물의 질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historicengland.org.uk

(주) 교사 설문결과: 교육역량향상(92~95%),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효과(92~98%)/ 학생 설문결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96~98%) 지역에 대한 이해(98~99%)

헤리티지 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사례3 | 넷플릭스 시리즈, “길 위의 셰프들”

개요

“길 위의 셰프들(원제: Street Food)”은 세계 21개 도시의 길거리 음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Netflix)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이다. 2019년 아시아 9개 도시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2020)와 미국(2022)의 길거리 음식과 사람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제작하였다. 길 위의 셰프들은 기존의 음식, 관광지를 단순 소개하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길거리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대면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인생 역전을 통하여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의 특성과 역사,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출처: <https://www.netflix.com>

넷플릭스의 길위의 셰프들(Street Food) 시리즈

사업내용

첫 시리즈로 제작되어 커다란 호응을 얻었던 아시아 편에서는 태국의 방콕, 일본의 오사카, 인도의 델리, 인도네시아의 욕야카르타, 대만의 자이, 한국의 서울, 베트남의 호치민시, 싱가포르, 필리핀의 세부의 주요 길거리 음식과 셰프인 동시에 상인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길 위의 셰프들 시리즈의 각 에피소드에서 다룬 도시 및 국가

구분	에피소드별 도시/국가(또는 주)
1 아시아 (2019)	①방콕(Bangkok)/태국, ②오사카(Osaka)/일본, ③델리(Delhi)/인도, ④욕야카르타(Yogyakarta)/인도네시아, ⑤자이(Chiayi)/대만, ⑥서울/한국, ⑦호치민시(Ho Chi Minh City)/베트남, ⑧싱가포르(Singapore), ⑨세부(Cebu)/필리핀
2 라틴아메리카 (2020)	①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아르헨티나, ②살바도르(Salvador)/브라질, ③오악사카(Oaxaca)/멕시코, ④리마(Lima)/페루, ⑤보고타(Bogota)/콜롬비아, ⑥라파스(La Paz)/볼리비아
3 미국 (2022)	①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캘리포니아, ②포틀랜드(Portland)/오리건, ③뉴욕시(New York City)/뉴욕, ④뉴올리언스(New Orleans)/루이지애나, ⑤오아후(Oahu)/하와이, ⑥마이애미(Miami)/플로리다

서울 편에서는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전통적인 길거리 음식인 칼국수, 빈대떡, 간장계장을 소개하고 상인 동시에 셰프이기도 한 가게주인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6·25전쟁 이후 한국의 사정과 미국의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 1970년대의 경제발전,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집밥의 상품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된 서울의 모습과 함께 퓨전 길거리 음식

식인 밥플(Baked Baffle)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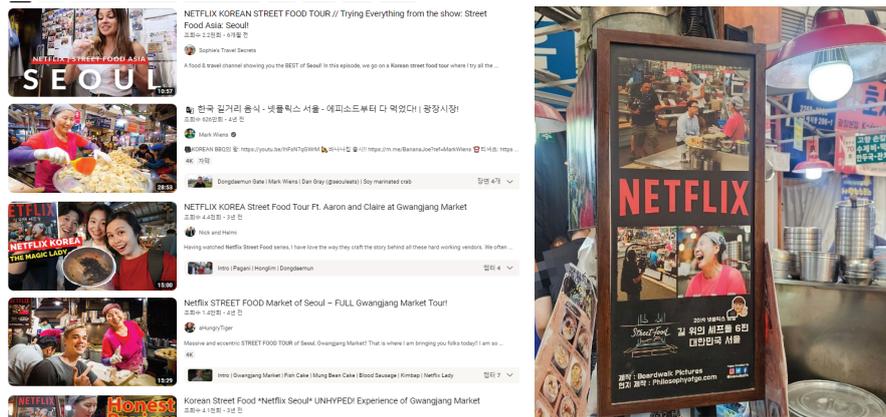


출처: 넷플릭스 “길 위의 셰프들”

광장시장(좌)과 동대문먹자골목(중), 전통시장의 과거 모습(우)

사업결과

넷플릭스라는 OTT(Over The Top) 플랫폼을 통하여 서로 다른 국가와 도시에서 제작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공유되면서 홍보 및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길 위의 셰프들”이 방영된 이후, 가게를 직접 찾은 외국인인은 물론 내국인들의 경험담과 반응이 SNS를 통하여 전 세계로 공유되고 있다. 이는 음식 자체에 대한 홍보를 넘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정서적 교감과 문화적 친밀도를 형성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높은 전달력과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s://www.netflix.com>

방영 이후, Youtube에 업로드된 방문경험 동영상 목록(좌)과 홍보 현황(우)

3.3 심화연구를 통한 가치해석의 다각화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시민들의 향토연구를 통하여 기초조사의 내용을 심화

지난 10년 동안 미래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래유산의 심의·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현황조사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그동안 미래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통하여 일부 심화연구가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자료의 활용도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선정된 미래유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분석으로 미래유산의 신규 발굴, 문화콘텐츠의 확대·재생산 등 정책적 내실화를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역사편찬원, 서울학연구소 등을 통하여 미래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심화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서관 등의 도움을 얻어 미래유산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소장한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을 통한 신뢰성 높은 연구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편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향토 사학자 또는 서울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조사한 연구자료도 공유함으로써 미래유산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소재를 다양화한다.

사례1: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

사례2: 오픈 앨범 프로젝트

심화연구를 바탕으로 네가티브 유산의 가치해석을 다각화하고 공론화

미래유산 가운데에는 상암동 일본군 관사, 한양공원비, 김성수 가옥, 서정주 가옥 등 과거 친일·매국 행위를 한 인물과 사건에 관련한 유산이 있어 일부 시민단체가 선정취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는 네가티브 유산도 우리의 과오를 성찰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으로 보존·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인물의 이적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하였다.

일제강점과 이념분단이라는 근현대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 종종 인물과 관련한 미래유산의 발굴·선정에 있어 해당 인물의 친일·매국행위나 월북·이적행위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건축이나 문학·예술작품의 경우, 학술·예술적 가치와 인물의 매국·이적행적에 대하여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워 선정이 보류되거나 선정되더라도 인물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있다. 향후 이들 미래유산에 대한 심화연구를 통하여 충돌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다각화하고 공론화하는 보다 세심한 보존·활용방안이 요구된다.

사례3: 아유슈비츠 수용소 기념관

문화행사를 통하여 사라지는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용을 함양

미래유산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향유의 대상으로서 문화유산의 가볍고 친숙한 이미지를 서울시민에게 인식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미래유산은 시민의 자발적인 보존·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유산 소유·관리자에게는 멸실·훼손 방지에 대한 의무가 지워지지 않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멸실·훼손되더라도 미래유산에 대한 제도적 제재는 없다.

미래유산은 무조건 보호되어야만 하는 문화재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공통의 기억과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생성-성장-소멸되는 문화유산이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용을 통해서 비로소 향유의 대상으로서 미래유산의 가볍고 친숙한 이미지가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역사박물관과 협의하여 <잘가, 동대문운동장>, <안녕! 고가도로> 등과 같은 특별전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기획·마련한다. 고별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를 통하여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관용을 함양한다.

사례4: 고별전시회 <잘가, 동대문운동장>

사례1 | 서울미래유산 기록사업

개요

서울역사박물관은 2007년부터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를 통하여 서울 35개 행정동 단위의 지역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후 지역단위의 조사와 더불어 특정 전통산업이나 노포(老鋪)를 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근현대 생활상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는 심층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은 2020년부터 매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노포를 대상으로 관련 전통산업과 노포에 담겨진 이야기 등을 조사 기록하는 ‘서울미래유산 기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역사박물관

서울미래유산 기록사업

사업내용

서울미래유산 기록사업은 매년 특정 전통산업이나 노포를 선별하여 주제별 심층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낙원떡집’이란 제목으로 4대에 걸쳐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낙원떡집을 조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서울의 떡 문화와 낙원떡집이 위치한 낙원동에 대한 장소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낙원떡집의 주인과 직원들, 주변 상인 등과의 구술 자료를 통하여 낙원떡집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하였다. 1대부터 4대까지 낙원떡집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는 가게의 역사와 낙원떡집이 여전히 성업할 수 있는 비법과 미래를 위한 변화의 노력을 조사하였다. 또한 낙원떡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떡의 종류와 제작 방법, 도구는 물론 하루의 작업일과 등을 기록하였다.

2021년에는 ‘서울의 대장간’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동명대장간, 불광대장간, 형제대장간, 동광대장간 등 4곳의 대장간을 조사하였다. 각종 문헌자료와 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서울의 대장간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고 이후 구술 자료를 통하여 각각의 대장간에 대한 역사와 제작의 노하우, 관련 집기류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각 대장간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생선포와 판매 방식을 조명하면서 도시제조업으로서 서울의 대장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 실측도면과 함께 대장간의 여러 모습을 담은 사진을 기록물로 남겼다.

2022년에는 이용원을 주제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존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문헌자료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이용원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문화요소를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문화이용원과 성우이용원의 운영자 인터뷰를 통하여 여러 관련 에피소드를 정리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원의 물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발, 면도, 세발, 정발, 염색 등 이용의 단계에 따른 도구의 종류와 관리법 등 이용 관련 집기류에 대한 여러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사업결과

서울미래유산 기록사업으로 서울의 전통산업이나 노포를 주제로 한 점 단위의 생활사 기록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집해오던 생활사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특히 떡집, 대장간, 이용원 등을 1~3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달로 잊혀지고 있는 서울 특유의 전통 산업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생활사 자료도 발굴, 수집하여 서울시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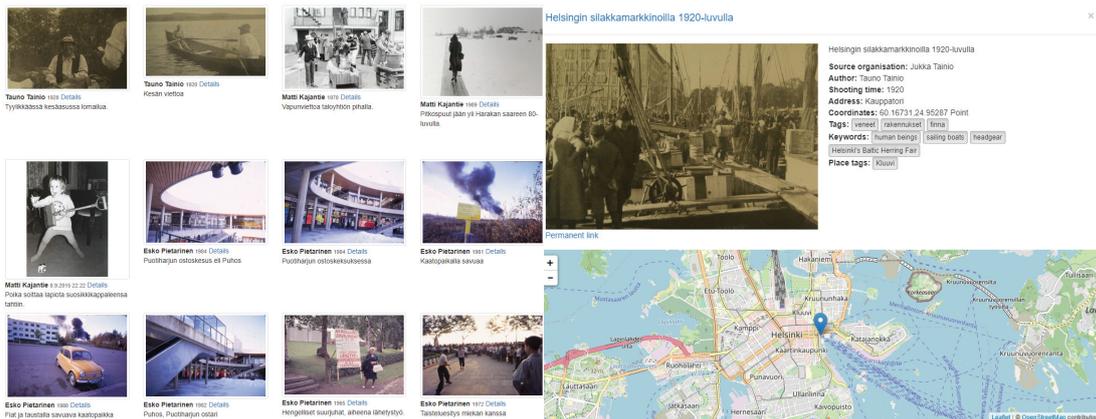
사례2 | 오픈 앨범 프로젝트

개요

오픈 앨범(Albumit auki)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시작한 시민참여형 사진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도시 유산(urban heritage) 관련 사진들을 디지털화하여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그들의 유산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사업내용

오픈 앨범은 핀란드 여러 도시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온라인 디지털 사진 갤러리이다.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인 문서나 기록이 아닌, 도시 유산 관련 개인 소장물 또는 가족 사진 등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 게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기억으로부터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록자료로써 아카이브 하였다. 이러한 오픈 앨범의 근본이자 핵심은 시민 참여라 할 수 있다. 한편 시민들이 큐레이터가 되어 국가 컬렉션에 제공하는 사진들을 선별, 전시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출처: albumitauki.fi

오픈 앨범 홈페이지 상의 다양한 주제의 사진들(우)과 1920년대 헬싱키의 청어시장 사진(좌)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본 헬싱키’라는 주제로 시작하였던 오픈 앨범은 이후 핀란드 내 다른 여러 도시에서 수집한 사진과 컬렉션을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이 제공한 사진들은 전 세계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NGO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지역 기록 보관소 등 여러 공공기관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라시팔라치 미디어센터(Lasipalatsi Media Center Ltd.)가 프로젝트 서버의 유지 관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2014~2016년에는 핀란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가 12만 유로를 지원하여 자료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방형 API 등을 구축하는 한편 유사 사업과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사업결과

오픈 앨범은 시민 사회를 비롯한 예술·문화 전문가, 지자체와 박물관 등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통하여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및 사회적 배제를 극복한 사례이다. 특히 사진, 비디오 아트, 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중과 NGO를 참여시켜 기획한 온라인 갤러리는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성격의 컬렉션으로 전 세계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지식과 자료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도 과거 세대의 기억이 담긴 도시 유산에 대한 시민인식을 새로이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례3 |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

개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은 1940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 오시비엥침(Oświęcim) 외곽에 건립한 수용소로 대표적인 유대인 학살의 장소였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I,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 아우슈비츠 III 모노비츠 등 3개의 시설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아우슈비츠 I과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의 수용소, 가스실 및 소각장, 철조망 설치용 시멘트 기둥 등이 보존되어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방 이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 적십자 병원과 독일군 포로수용소로 활용되었다가, 1946년 폴란드 임시정부에게 이양되었다. 폴란드 임시정부의 문화예술부 문화예술위원회는 독일의 전쟁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아우슈비츠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아우슈비츠의 수감자였던 타데우시 보소비치(Tadeusz Wasowicz)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우슈비츠 보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아우슈비츠 보호위원회는 이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진행하여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한 많은 역사적 사료와 증거물을 확보하였다. 이때 발굴된 사료와 증거물은 1947년 6월 14일 개관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에 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사업내용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의 전시 프로그램은 ‘대량학살’, ‘범죄의 증거’, ‘수감자의 삶’, ‘생활환경’, ‘죽음의 블록’, ‘죽음의 벽’, ‘가스실 I’, ‘중앙 캠프 목욕실’ 등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 시설이나 구역을 안내하는 프로그램과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 수용소 내 추모의 공간, 폴란드와 같이 나치의 점령국이 되어 자국민이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한 여러 나라의 역사와 이야기를 소개하는 ‘국립전시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 입구(좌), 죽음의 벽(중),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우)

‘대량 학살’에서는 다양한 민족의 수감자들이 수용소에 수감된 사연과 대량 학살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수용자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수용소 기록의 사본, 학살시설모형, 대량 학살에 사용된 사이클론B(Zyklon B)가 담겨 있던 용기 등과 함께 대량 학살 만행의 가장 극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이 전시되어 있다.

‘범죄의 증거’에서는 수감자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온 뒤 빼앗긴 개인 물품을 살펴볼 수 있다. 주방용품, 면도기, 칫솔, 신발, 옷 같은 생활용품 외에도 유대인 기도북, 장난감 등 당시 수감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물품들도 전시하고 있다. ‘수감자의 삶’에서는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사람들의 입소

절차와 수용소 번호 지정 및 표시, 수감자 범주 분류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시 수감자의 일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환경'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내부의 생활환경과 위생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용소 내부와 화장실 등 공개하고 있다.

'죽음의 블록'은 아우슈비츠에서도 악명이 높았던 11블록을 공개한 곳으로 지하 감옥과 이곳에 수용되었던 수감자들의 이야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1블록의 옆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을 총살한 '죽음의 벽'과 유대인 학살을 위하여 최초로 사용되었던 '가스실 I'이 있으며 '중앙 캠프 목욕탕'에서는 수감자들이 어떻게 목욕과 소독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희생자를 강제로 이송하였던 아우슈비츠II 비르케나우 수용소 내 기차길을 따라가다 보면 수용소의 희생자를 기리는 23개의 언어로 된 추모의 비가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비르케나우 수용소에는 전쟁 당시 이곳으로 강제 이송되었던 사람을 소독하였던 사우나 건물을 비롯하여 이들을 학살하였던 가스실과 소각장, 나무로 영성하게 만들어진 막사 등이 보존되어 있다.

한편 국립전시관에서는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나치 점령국가에서의 저항 운동과 희생자의 운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60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현재 루마니아,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 10개 나라가 이곳에서 관련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에 대한 쇼아(Shoah, 영미권에서 홀로코스트를 대체하는 단어)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90여 헥타르 면적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람하기 위해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 투어는 3시간 30분 동안 주요 건물과 시설을 둘러보는 일반 투어와 8시간 동안 아우슈비츠의 이곳저곳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스터디 투어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아우슈비츠 관련 여러 사진자료와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을 둘러볼 수 있는 가상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결과

소련군에 의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1월 27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에서도 매년 이날이 되면 이곳에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에서는 다시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 이외에도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홀로코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희생자를 포함한 생존자들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연구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사례4 | 고별전시회 <잘가, 동대문운동장>

개요

2014년 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발전을 경험한 서울에서 끊임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생성되는 도시 구조물을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사라진 지난 시대의 삶의 흔적과 기억을 되짚어보는 특별전시가 열렸다. <잘 가, 동대문운동장>은 한때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풍경의 일부였으나 이제는 사라져 가고 있는 동대문운동장과 안녕을 고할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전시였다.

사업내용

동대문운동장의 탄생에서 철거까지 8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잘 가, 동대문운동장>은 크게 '동대문운동장의 시간'과 '동대문운동장과 사람들'로 구성된 전시 프로그램과 동대문 운동장 철거에 대한 서울시민의 감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 월 등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잘 가, 동대문운동장>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경성운동장 사진엽서, 동대문운동장 간판과 관람석 의자 등 관련 자료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동대문운동장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다.



출처: museum.seoul.kr

전시 포스터(좌), 동대문운동장 관련 전시 소품(중)과 메시지 월(우)

사업결과

동대문운동장을 허물던 당시, 시민들은 철거 자체의 찬반에 집중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을 묵묵히 담은 동대문운동장의 긴 역사를 차분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도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시간의 흔적을 품고도 필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노장(老將)의 역사를 기리고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잘 가, 동대문운동장> 전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동대문운동장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4 스토리텔링으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문화다양성 확보

심화연구를 통하여 기초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숨어있는 이야기와 소재들을 재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기획·개발함으로써 미래유산이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 거리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서울의 문화 창작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심화연구로 조사된 내용은 서울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형태로 가공하여 전달한다. 이야기를 매개로 한 미래유산의 보존·활용방식은 문화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누구나 거부감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서울시가 미래유산의 홍보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래유산 홈페이지나 미래유산 홍보관을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미래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층연구와 시민참여를 통하여 발굴한 이야기를 소재로 창작한 문화콘텐츠를 실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극장, 윤극영가옥, 체부동 성결교회 등을 우선 활용한다. 특히, 서울시 소유의 미래유산을 활용할 때는 소수집단의 문화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사례1: 도보체험 프로그램 <서울감성여행>

사례2: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

이야기를 활용한 자립경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미래유산 보존·활용 사업의 경우, 미래유산의 가치공유 및 확산에 치중한 결과 경제적 자립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심화연구를 통하여 새로이 발굴된 미래유산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기존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식과는 차별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또는 지원하고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자립경제형 미래유산 보존·활용의 선순환구조를 제시한다.

사례3: 설레이함

사례4: 뮤지컬 <광화문 연가>

사례1 | 도보체험 프로그램 〈서울감성여행〉

개요

서울연구원은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서울시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미래유산 도보체험 프로그램인 〈서울감성여행〉을 출판하였다. 〈서울감성여행〉에서는 각각의 미래유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되 걷기에 편하고 주변에 볼거리가 풍부한 가로를 중심으로 도보체험코스를 선정하였다. 코스에 따라 선별된 미래유산을 설명하는 책자, 도보이동루트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온라인(data.si.re.kr)에서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내용

서울의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각각의 문화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래유산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 도보만으로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한양도성 내부지역의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미래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바탕으로 여덟 가지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여덟 가지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에 적합한 미래유산을 선별하였다.

서울감성여행의 이야기 구성

배경	이야기
1920년대	新천변풍경
1930·40년대	근대도시 경성의 문화 기행
1950년대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길
1960년대	한 여성의 일탈여행
1920년대	新천변풍경
1930·40년대	근대도시 경성의 문화 기행
1950년대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길
1960년대	한 여성의 일탈여행



여덟 가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별된 미래유산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하나의 답사코스로 연결하였다. 각각의 미래유산 답사코스는 크게 기본코스와 연장코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본코스는 여덟 가지 답사코스의 주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핵심코스로 걸어서 2시간 이내에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하지만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 반나절 또는 하루 코스도 가능하도록 연장코스도 별도로 제시하였다. 연장코스의 경우에는 도보 이외의 지하철, 시티투어버스 등 다양한 보조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사업결과

〈서울감성여행〉을 통하여 소개된 미래유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야기는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도보체험코스를 따라 현장에서 체험한 미래유산의 기억과 감성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미래유산의 이야기로 창작될 수 있었다. 또한 〈서울감성여행〉에서 소개된 미래유산에서 서울만의 독특함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지속적으로 미래유산을 새로이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례2 | 광주 100년 버스 이야기

개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시내관광 프로그램인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를 진행하였다. 이는 2017년 진행된 ‘김광석 음악버스’,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문화예술 융합형 버스투어로 1930년대를 시작으로 현재를 거쳐 100년 뒤인 2030년의 광주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공연형 투어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송정역-광주종합버스터미널-양림동-오월 광장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버스투어의 가이드인 ‘나비’와 ‘폴’이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업내용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는 기존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나열식으로 각각의 장소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 거점별로 주제를 설정하여 뮤지컬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광주의 여러 명소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뮤지컬의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는 1930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를 소개하는 시간여행 가이드 소녀인 ‘나비’가 의문의 청년 ‘폴’을 만나 ‘양림동 골목에 숨어있던 193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과 아픈 현대사를 간직한 1980년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 등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버스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하여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프로야구팀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무등산에서 발원하여 광주시내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광주천’, 1933년 일제강점기 설립된 단관극장 ‘광주극장’, 일제강점기 시절 학생독립운동의 주축이 된 ‘광주제일고’, 100년 역사의 ‘양동시장’, 광주광역시의 제1호 도시공원인 ‘광주공원’ 등 광주의 여러 명소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볼 수 있다. 다만 가이드 ‘나비’가 뮤지컬 공연과 같은 과장된 몸짓을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버스투어에 재미를 더하였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좌), 광주광역시(중, 우)
 광주 100년의 이야기 버스 팸플릿(좌), 광주 100년의 이야기 버스(중), 가이드 ‘나비’(우)

이후 기독교의 근거지이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양림동에 버스가 하차하면 1930년대 양림동을 배경으로 투어가이드인 ‘폴’과 ‘나비’가 진행하는 뮤지컬 형식의 도보관광이 진행된다.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양림살롱 여행자라운지’에서는 ‘폴’이 나비에게 추파를 날리며 나비와 러브라인을 형성하지만 ‘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뮤지컬의 분위기는 반전된다. 1899년 세워진 시 민속자료 제1호 ‘이장우 가옥’에서는 복면 차림의 ‘폴’이 참가자들 앞에 나타나 독립운동을 하는 도중 순사에게 쫓기고 있다며 나비에게 편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양림동 도보관광의 마지막

장소인 ‘오웬기념각’ 앞에서 ‘나비’와 재회한 ‘폴’이 독립운동을 위하여 중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남기며 양림동에서의 공연은 마무리된다. 또한 뮤지컬과 함께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음악가 정율성, 커피와 가을이 떠오르는 시인 김현승, 독립운동과 한센병 환자 구호에 평생을 헌신한 최홍종 목사 등 양림동에서 태어난 여러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버스를 타고 다음 장소인 오월광장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동하면 다시 한번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이 도보관광과 함께 진행된다. ‘지금 내리실 곳은 1980년 5월 17일입니다. 동지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참가자들은 5.18 최후의 격전지였던 ‘구 전남도청’, 군부의 헬기사격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 시민들의 시신을 임시 안치하였던 상무관, 매일 5시 18분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는 시계탑 등 오월광장의 곳곳에 남아있는 5.18민주화운동의 생생한 기억이 담긴 장소를 살펴본다. 이후 ‘구 전남도청’ 앞에서 민주열사로 환생한 ‘폴’과 ‘나비’가 재회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물결 속에서 다시 한번 이별하게 된다. 한편,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의 최종 도착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를 ‘나비’와 ‘폴’이 함께 노래하며 2시간 30분여간의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의 모든 공연이 마무리된다.



출처: 광주시청

양림쌀롱(좌), 이장우 주택(중), 구 전라남도청(우)에서 가이드 ‘나비’와 함께하는 참가자들

사업결과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는 ‘광주 100년 이야기 - 오월의 버스’, ‘100년의 버스’ 등으로 관련 콘텐츠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2021년까지 진행되었다. 문체부는 광주시와 함께 진행한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와 같은 문화예술 융합형 시내관광 버스가 여타의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례3 | 설레어함

개요

1960년대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헌책방 골목인 청계천 헌책방거리는 대형서점·온라인서점의 등장으로 찾는 이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때 200개에 달하던 헌책방의 수가 20여개로 감소하였다.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계기로 헌책방 골목지도를 제작하는 등 중흥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대학생 창업동아리인 인액터스(Enactus)가 청계천 헌책방거리의 문제점을 주목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설레어함'을 2015년 옥션을 통하여 온라인 판매하였다.

사업내용

설레어함은 구매자의 취향에 맞추어 헌책방 사장님들이 추천한 3권의 책으로 구성된 패키지상품으로 ①빛나라 지식의 별, ②일상 속 여유 한 모금, ③새벽 두시보다 짙은 감성, ④성찰과 사색 사이, ⑤영화를 보는 듯한 긴박함, ⑥안알라춤의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설레어함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옥션의 도서출판부에서 3권의 책으로 구성되는 기본구성에 시즌 상품을 추가하여 한정판매하는 시즌 프로모션을 제안하였다. 2016년 11월, 2017년 4월, 2017년 7·8월에 걸쳐 진행된 시즌 프로모션에서는 크리스마스 고슴도치 책갈피 카드, 벚꽃 스티커 리프와 플라워펜, 아이스크림 북마크와 플라밍고 튜브 컵홀더를 시즌 상품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설레어함의 온라인 판매성공으로 오프라인 판매방식의 '설렘자판기'가 제안되었다. 2017년 6월 대학로에 설치된 1호 자판기를 시작으로 고양과 신촌에 설렘자판기가 추가 설치되었다. 현재 설렘자판기는 전시판매, 자판기 운영, 무인판매 형식으로 테스트 운영 중에 있다.



출처: <http://oldbookbox.modoo.at>

설레어함의 여섯 가지 상품주제(좌), 2016년 11월 시즌 프로모션(중), 자판기형식의 설렘자판기(우)

사업성과

설레어함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한 곳에 불과하였던 참여 헌책방의 수도 현재 8~10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의 자립성 확보와 동시에 독립시키는 인액터스의 활동취지에 따라 설레어함의 판매권도 옥션 도서판매부로 이관되고 있다. 향후 옥션으로 판매권이 이관되면 현행 상시판매 대신 한 해에 최대 4회의 시즌 프로모션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현재 설레어함의 수익배분은 헌책방 60%, 인액터스 38%, 옥션 2%정도이다.

사례4 | 뮤지컬 〈광화문 연가〉

개요

〈광화문 연가〉는 작곡가 이영훈이 작곡한 32개의 곡을 엮어 만든 뮤지컬로, 2011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하였다. 2011년 ‘올해의 뮤지컬’ 대상, 2012년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올해의 최고작품상 등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뮤지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80~90년대 팝 발라드를 이끈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붉은 노을〉, 〈그녀의 웃음소리뿐〉 등 당시 이영훈의 명곡들로 구성되어 뮤지컬의 주 소비자층인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까지 포용하는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어트리뷰트 뮤지컬(단일 작곡가 혹은 단일 가수의 곡으로 구성된 뮤지컬)로 초연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다.

사업내용

〈광화문 연가〉는 러닝타임 2시간 30분의 2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 상훈과 여주의 아들 지용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엇갈린 사랑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뮤지컬 사이사이에 삽입된 이영훈의 곡은 기존 노래를 사용하는 어트리뷰트 뮤지컬의 한계로 이야기의 흐름에 맞추어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주인공들의 감정에 따라 배치되었다. 또한 가사의 생략 및 반복, 위치 변경, 대사 삽입, 피아노 연주, 댄스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출처: donga.com, news.naver.com, withinnews.co.kr

작곡가 이영훈(좌)과 광화문 연가 포스터(중), 그리고 공연의 한 장면(우)

사업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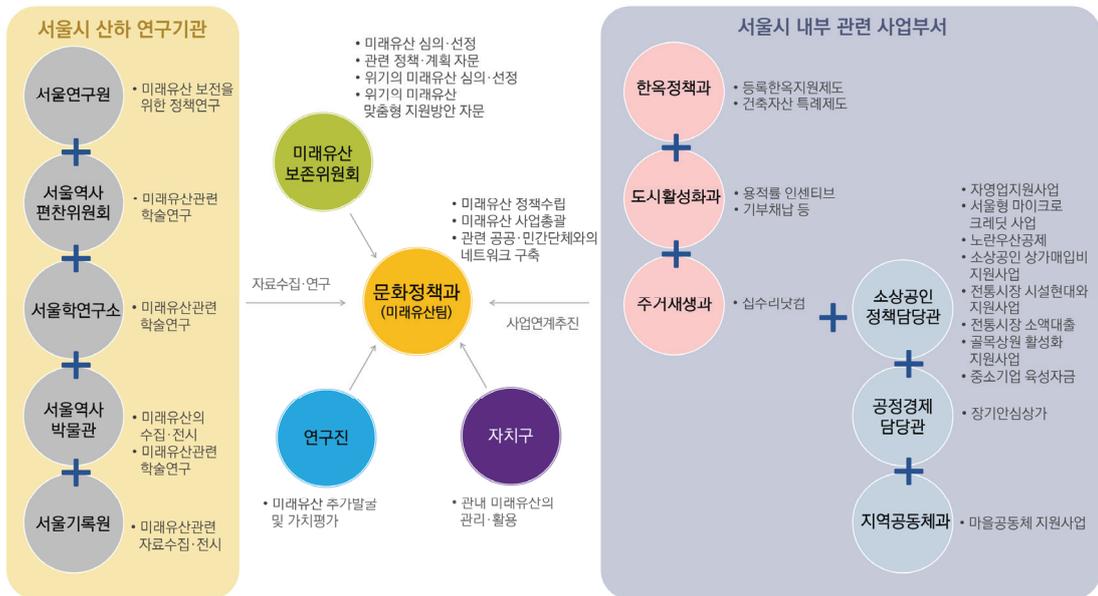
〈광화문 연가〉가 공연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어트리뷰트 뮤지컬은 아바(ABBA)의 노래로 구성된 〈맘마미아(Mamma Mia)〉, 퀸의 노래로 구성된 〈위윌락유(We will rock you)〉 등 외국 작품이었다. 국내에서도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동물원의 〈동물원〉, DJ DOC의 〈스트릿 라이프〉 등이 제작되기는 했으나 흥행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광화문 연가〉는 이영훈의 명곡과 서사의 조화, 시나리오의 개연성 등 어트리뷰트 뮤지컬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단지 한 작곡가 혹은 가수의 곡을 차례대로 부르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새롭게 재해석한 어트리뷰트 뮤지컬의 성공 사례로써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3.5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련 주체 간 협력강화

서울시 내부부서 및 자치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미래유산은 유형이 다양하고 사례마다 처한 여건도 상이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여러 부서들을 비롯하여 자치구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내 정보공유를 위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공무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서울시 주택·도시, 문화·관광·체육, 자영업지원 등 미래유산 보존·활용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부서와의 행정협의체 구성 등 공조체계를 통하여 미래유산의 입체적인 보존·활용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기부채납, 규제완화, 시설매입, 운영지원, 마을사업, 문화재등록, 도보관광, 경영컨설팅, 보조금·대출지원, 분쟁상담·조정 등 서울시 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치구 관련 부서와의 업무공조 강화 방향

미래유산 가운데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문화유산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래유산은 자치구가 직접적으로 관내에 소재한 미래유산을 활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자치구가 미래유산을 활용하여 도보관광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문화관련 사업을 기획·추진하고자 할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자문 또는 자치구 행정평가 시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한편 서울연구원, 서울역사편찬원, 서울학연구소를 통하여 미래유산과 관련한 정책 및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서관에는 미래유산 자료들의 수집·전시를 요청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래유산 보존·활용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제반 사업을 조사하고 각각의 지원사업을 미래유산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선별, 매칭하였다. 민원제기의 가능성이 높은 민간소유의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담고 있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오래된 가게, 특화가로·시장, 산업단지, 마을·골목, 건축·토목구조물로 미래유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미래유산의 보존·활용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지원사업_민간소유 미래유산의 특성에 따라 분류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주요내용	지원대상	주관부서
오래된가게	서울시 자영업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상담, 창업컨설팅, 자영업 클리너, 소상공인 등 행프로젝트, 시설개선, 사업장리 및 재기, 현장 체험, 자영업 협업화, 지역밀착 종합지원 등의 9개 프로그램	서울시 소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현대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기어울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운전자금 15종(연매출액의 1/2~1/6 5억원 한도), 시설자금 11종(소요자금의 75~100% 200만원 한도)	서울시 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	가입시 월 2만원의 희망 장려금 1년간 지원(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무료 상해보험 가입, 공제계약 대출 가능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건설업/운수업, 농업/임업/어업/금융, 보험업 등 10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장기안심상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하여 리모델링 비용 지원	리모델링비 6,000만원 한도 지원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임대사업자(환산보증금 9억원 이상, 계약기간 10년 미만, 차임인상률 2% 초과 제외)	공정경제 담당관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7가지 분야(상가 임대차 ②가맹·유통, ③대부업 ④문화예술, ⑤다단계, ⑥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피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을 상담 및 조정	전문상담(홈페이지, 전화·화상, 방문), 교육자료 배포	서울시민(상기임대차는 임대·임차인,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에 한정)	공정경제 담당관
특화거리·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보조	안전·화재예방시설, 필수기반시설, 보행편의시설, 고객편의시설, 판매지원시설, 홍보안내시설 등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사업추진 추체를 갖춘 시장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를 육성, 지원	지역기반 로컬콘텐츠를 반영한 상권 단위 3단계(기반사업, 브랜드화, 자생력강화) 지원	서울형 골목상권이 50% 이상 포함된 상권(대표조직 구성필요)으로 해당 상권의 소상공인 1/2 이상이 사업에 동의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과목분류	사업명	사업개요	주요내용	지원대상	주관부서
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삶을 계획하고 사업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3단계로 맞춤지원	서울시 지원사업(서울시9개, 서울마을센터4개), 자치구 지원사업	지역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역 공동체과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거주자가 직접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집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집수리전문관, 집수리 이카데미, 공구임대, 집수리 보조·옹자사업, 집수리 시공업체, 집수리 성공기 등 7개 서비스 제공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주거 환경과
건축토목	한옥등록제도	서울시 소재 한옥을 등록하여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수선 및 신축 시 공사비 지원, 세금감면(총로구, 성북구), 거주자 우선주차장 우선배정(총로구),	서울시 내 등록한옥	한옥 정책과

미래유산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

전주시와 부산시처럼 미래유산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미래유산의 발전방향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통하여 각각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유산의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발표를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 공통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서로의 성과 실패를 거울삼아 현행 세부사업의 추진방향을 수정·보완한다.

자치단체별 미래유산 조례 지정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5.07.30.	제정
파주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8.09.28.	제정
전주시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9.12.20.	일부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0.06.18.	제정
공주시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11.09.	제정
의정부시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12.30.	제정
동해시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05.14.	제정
청주시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06.11.	제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06.30.	제정
원주시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2.10.1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2.07.06.	일부개정

3.6 세심한 보존·활용을 위한 운영방식 업그레이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지난 10년 동안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는 미래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가치를 규명하는 등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래유산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보다는 전문가의 학술적 시각에서 미래유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선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미래유산의 활용에 있어 프로그램 기획이나 자문 등의 역할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현재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분야에 경험이 많은 현장 실무자나 미래유산 보존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시민대표 특히 미래유산의 미래가치 만들어 가야 하는 청년세대의 참여를 늘리도록 한다. 한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교수 등 전문가의 비중 감소로 인한 미래유산의 가치규명이나 선정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유산 심의·선정에 있어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미래유산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미래유산의 가치를 여러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미래유산 선정은 분과별 단편적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미래유산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분과별 보존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과 논의를 통하여 미래유산이 선별·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내용 확대

서울시는 2018년부터 영세한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엄격한 관리를 받는 동시에 보조금지급,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시민에 의한 자발적 보존·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미래유산의 경우, 도시개발·정비사업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사회변화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멸실·훼손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자발적 보존·활용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유산 본래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된 서울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사업은 미래유산 소유·관리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유산의 훼손 정도, 공공자산으로서의 활용성, 지원의 긴급성 등을 보조금심의위원회(미래유산 관련전문가로 구성)가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선정하고 있다. 소유·관리자의 자발적인 보존·활용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운 미래유산에 대하여 서울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소유·관리자의 보존·활용 의지와 자긍심을 고취하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현행 건축물 수리 및 환경개선에서 벗어나 미래유산의 무형적인 가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유산 소유·관리자의 신청내용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행 맞춤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모니터링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서울시는 매년 미래유산 아카이브 조사를 통하여 미래유산의 재고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미래유산의 멸실·훼손 현황을 살펴보고 소유자(관리자)와의 전화면담을 통하여 소유자(관리자) 변동 사항, 미래유산 선정취소 여부, 미래유산 선정이후의 변화 및 서울시 요청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유산에 부착되는 표식의 관리현황과 추가설치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사하고 이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유산에 대한 재고관리가 개별 미래유산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에만 머무르고 있다. 향후 미래유산 보존·활용 문제로 인하여 공공갈등이 발생되었던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의 배경과 원인, 갈등의 주체와 전개, 갈등의 해결과정 등에 대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기록하여 이후 갈등관리 매뉴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단계별 세부과제 추진방안

2030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단기(2023~2025), 중기(2026~2028), 장기(2028~)로 나누어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2023~2025)에서는 새로운 서울의 문화콘텐츠로서 미래유산의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새로운 문화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미래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새로운 문화 코드로써 미래유산을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미래세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운영방식도 업그레이드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미래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가치해석과 활용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주체 사이의 협력을 독려한다.

2단계(2026~2028)과 3단계(2028~)에서는 미래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서울 문화장착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관련 문화콘텐츠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미래유산에 담긴 여러 이야기에 집중함으로써 미래유산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립 경제형 보존·활용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소재로서 미래유산이 활용되거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유산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

미래유산 세부과제의 단계별 추진방향

단기과제(1단계)	중장기과제(2·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산의 미래가치를 살릴 수 있는 정책구상 - 미래세대의 사업참여 독려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 전문적인 학술연구 수행 - 네가티브 유산의 가치 다각화 - 문화행사기획으로 멸실·훼손에 대한 주의 환기 - 서울시 관련 부서 및 자치구와의 협력 강화 - 타 지자체와의 정보공유 -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 수리 및 개선사업의 지원내용 확대 - 미래유산의 보전관리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주체의 향토 연구 지원 - 미래유산의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야기 발굴 - 이야기를 활용한 자립경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초·중·고등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장기)

부록

미래유산과 연계 가능한
서울시 지원사업

소유·관리자의 요청에 의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지원

유관부서 사업내용 | 서울시 자영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①상담, ②창업컨설팅, ③자영업 클리닉, ④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⑤시설개선(골목상권 포함), ⑥사업정리 및 재기, ⑦현장체험(멘토링), ⑧자영업 협업화, ⑨지역밀착 종합지원 등의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내용

①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②창업컨설팅으로 창업 후 안정화를 위한 1:1 컨설팅 서비스(사업계획 수립, 상권·입지분석, 사업타당성, 자금조달계획 등)를 지원하고 있다. ③자영업 클리닉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유통 환경변화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영지도와 전문지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본 2회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지도는 마케팅, 손익관리(원가관리, 비용절감), 프랜차이즈, 매장운영에 관한 컨설팅 프로그램이며 전문지도는 메뉴개발, SNS(인터넷 마케팅), 노무관리, 세무처리, 유통/물류, O2O(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합 서비스), 신용관리/회복, 사업정리, 업종전환, (재)취업상담, 사업성분석에 대한 컨설팅이다. ④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6개월간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영비용(최대 300만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과 변화 적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⑤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간판(어닝, LED간판), 진열장, 수납장, 인테리어(출입구, 조명, 도배, 페인트, 가벽, 닥트, 바닥교체), 화장실(판매 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냉난방기(배관매설형), 업소용 냉장고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소요비용 90% 이내, VAT 제외)의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⑥사업정리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⑦현장체험(멘토링)으로 창업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경영개선)을 희망하는 기존사업자에게 우수업체의 현장체험과 경영노하우 멘토링의 기회를 최대 20회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은 순차적으로 기본→심화→리마인드 세 단계로 각각 2일, 10일, 5일 이내로 진행되며, 멘토링 이수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 멘토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⑧자영업 협업화를 통하여 3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에 공동브랜딩, 시스템 구축 등 협업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최대 3,500만원(VAT 제외한 전체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 지원은 부가적인 지원으로 총 지원금액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VAT)은 소상공인 협업체가 부담한다. ⑨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은 자치구 별도 예산을 통해 자영업 클리닉 지원사업과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각 상황에 알맞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②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③자영업 클리

닉의 경우, 유흥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재보증제한업종 운영 및 최근 2년 이내 비용지원 사업(시설개선,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자영업협업화 지원사업)의 수혜업체 또는 수혜예정업체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⑤시설개선의 경우, 2020년 이후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 2020년 이후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받았거나 선정된 업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치향락업종, 재보증제한 업종, 무점포 사업자, 실질적으로 휴·폐중인 사업자, 자가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⑥사업정리 및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의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중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현재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이거나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과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⑦현장체험(멘토링)은 최종 멘토링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⑧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은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재보증 제한업종, 재단 보증사고기업,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 후 채권미회수기업, 타기관 협업사업 수혜기업, 과거 수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⑨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진행절차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만으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면접 심사나 지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⑧자영업 협업화의 경우 참여업체 중 1개 업체 이상은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자격이 부여되며,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청서는 3단계 심사(서류검토, 현장평가, 협업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게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영업 협업화 사업 신청절차

유관부서 사업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개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기업현대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기여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목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지급된다.

주요내용

운전자금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 매입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신청기업 연간 매출액의 1/2~1/6,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대출하는 방식과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의 일부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하여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운전자금에 해당하는 지원자금은 ①기술형기업도약자금, ②긴급자영업자금, ③재해중소기업 자금, ④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기금), ⑤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⑥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⑦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⑧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⑨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⑩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자금, ⑪4무안심 금융자금 ⑫지원자금, ⑬포용금융자금, ⑭재기지원자금, ⑮4무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등이 있다.

시설자금은 기업이 생산설비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사업별 소요자금의 75~100%, 최대 200억 원을 은행을 통하여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업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연구소설립, ㉦건설사업, ㉧호텔사업, ㉨숙박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운전자금에는 2.0%, 시설자금에는 2.3%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기준금리에 1.7~3.3%가 가산되는 변동금리 형식을 따른다. ⑤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의 보전이율은 지원자금의 규모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이면 1.3%, 5천만원 초과이면 0.8%가 적용되며, ⑪4무안심 금융자금과 ⑮4무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의 경우 최초 1년간은 무이자, 이후 4년간 0.8%의 보전이율이 적용된다.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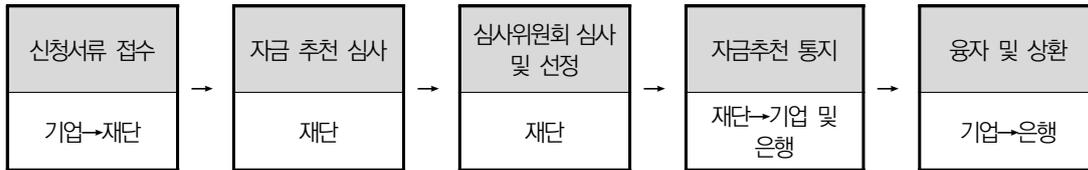
용자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용자자금을 용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용자지원이 제한된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종과 더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업,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도 용자지원에서 제한된다.

융자지원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지원제한업종
46107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416/46417중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8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46102중	담배 중개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46333	담배 도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64	금융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5	보험 및 연금업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진행절차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 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절차

유관부서 사업내용 | 노란우산공제

사업개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주요내용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수령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복리이자를 합산한 공제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시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금은 월납기준 최소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공제금은 ①개인사업자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폐업·사망공제금, ②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퇴임,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60세 이상 가입자의 청구 시 지급되는 퇴임·노령공제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부터 당해연도(2022년) 기준연이율(2.4%)를 적용하여 복리로 적립된다. 폐업·사망공제금은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연0.3%의 이율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15년 이후 적용이율이 매년 0.05%씩 줄어든다.

한편,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사업(근로)소득금액에 최대 연 500만원(4천만원 이하 5백만원, 4천만원~1억원 3백만원, 1억원 초과 2백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지원대상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건설업/운수업, 농업/임업/어업/금융, 보험업 등 10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소기업의 경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가 해당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업체가 해당한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인 업종과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구분	업종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매출액
제 안 업 종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50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10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10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50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10	

진행절차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공제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관부서 사업내용 | 장기안심상가

사업개요

장기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서울시 소재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주요내용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면 ①평균환산보증금, ②임차상가수, ③상생협약기간에 따라 최대 6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①평균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상가는 1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경우 '9억원 초과'를 적용한다. ②임차상가수는 2개 이상인 경우부터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③상생협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차임인상률이 0~2%인 경우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협약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차임인상률이 2%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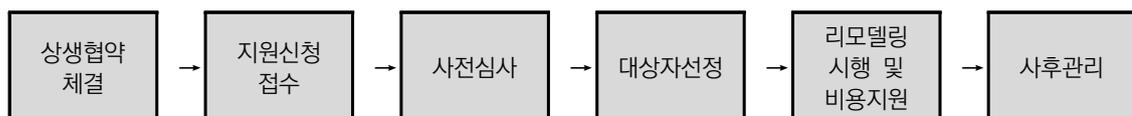
지원금은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11개 분야에 대해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임차인의 영업행위와 적정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는 등, 임차인-임대인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연2%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진행절차

임대인이 서울시에 지원신청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서울시는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임대인은 상가건물 리모델링 이후 지원금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다.



장기안심상가 진행 절차

유관부서 사업내용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사업개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서울시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7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통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지원내용

전문상담은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화상)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모두 무료이다. 상담분야는 ①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 계약 및 권리관계 검토 및 피해), ②가맹·유통(가맹,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검토 및 피해), ③대부업(등록,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④문화예술(문화예술 프리랜서 활동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불공정피해), ⑤다단계(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피해), ⑥선불식 할부거래업(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는 상조 서비스와 크루즈 여행상품과 같은 상조회사의 판매상품 관련 피해), ⑦소비자 피해 등 일상생활 중 피해 잦은 7가지 분야이다.

피해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을 위해 시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소속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 중 3명의 위원이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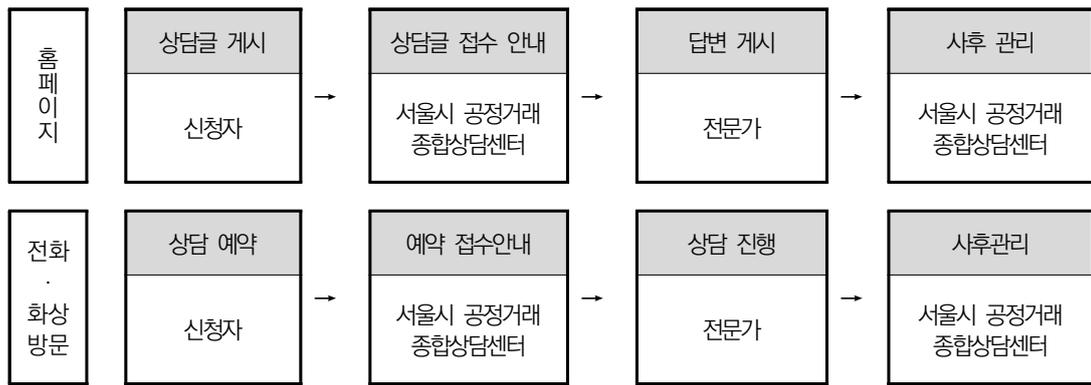
전문상담과 더불어 불공정피해 예방 활동과 조사 등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위법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를 조사·관리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대리점)를 열어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스스로 분쟁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사건 우수 해결 사례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

전문상담의 경우 상담분야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다. ①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 문제를 겪고 있는 (예비)임차인 또는 임대인, ④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서울시 시민 누구나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절차

전문상담은 홈페이지, 전화·화상,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상담분야를 선택하여 게시글을 등록하면 전문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전화 또는 화상상담을 통하여 상담을 원할 시에는 상담예약 이후 정해진 시간에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도 상담예약 이후 정해진 시간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 신청절차

유관부서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개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시장 등의 상인조직 또는 시설관리자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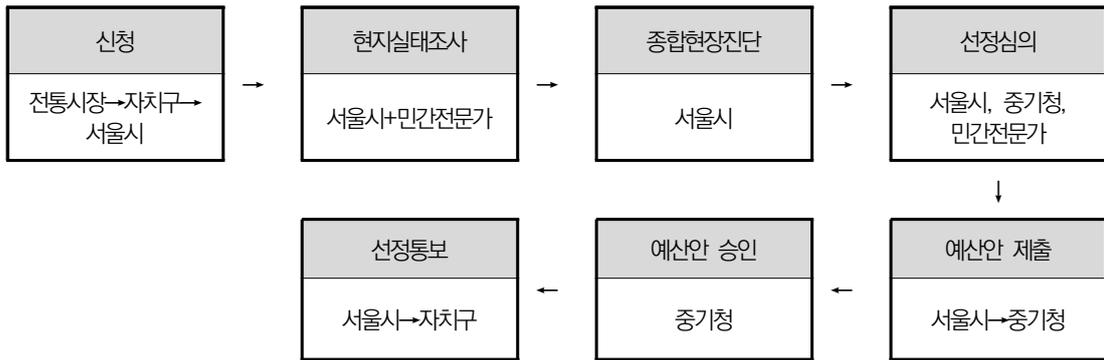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①CCTV, 스프링클러 등 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②상하수도, 통신시설, 정화조 등 필수기반시설, ③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비·햇빛 가리개 시설 등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보행편의시설, ④화장실, 냉난방시설, 휴게 공간, 엘리베이터 및 계단, 노약자 보호시설, 물품 보관소 등 고객편의시설, ⑤조명, 방송, 공동판매장·작업장, 다목적 행사공간, 배송센터, 상인회 사무실 등 판매지원시설, ⑥가로수, 경관조명시설, 홍보 조형물, 공동간판·안내판 등 홍보안내시설 등을 설치·개량·보수하거나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한다. 또한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해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에도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업비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서울시가 69~81%, 자치구가 9~21%, 민간이 10%를 부담한다. 다만, 영세시장의 경우 자치구 여건에 따라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을 3%까지 조정하고 조정된 금액은 자치구에서 부담한다.

지원대상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추진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의거,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피해복구비,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한 시장 등의 위험시설 개보수,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진행절차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통시장이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는 현지실태조사, 종합현장진단, 선정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과다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별 신청사업 건수를 2건 이내로 제한하며, 자치구에서도 사전검토를 이행하여 사업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신청 절차

유관부서 사업내용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소비의 확산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침체한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주요내용

지역기반의 로컬콘텐츠를 반영한 상권단위 종합지원 사업으로, 매력 있는 멋스러운 상권(Hardware), 즐거움이 있는 트렌디한 상권(Software), 도전하는 새로운 상권(Humanware)으로 상권 브랜드를 전략화하여 관련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업체계구축으로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기반사업으로 표준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2~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종료 이후 골목상권의 브랜드화와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치구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상권당 최대 30억원을 3년간 지급하며, 사업추진 단계별로 1단계 사업은 5억원 내외, 2~3단계 사업은 단계별 최대 10억원(연차별 매칭 지원), 창업자금 융자지원은 5억원(1인당 보증한도 1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1단계 사업 중 자치구 직접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교부한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추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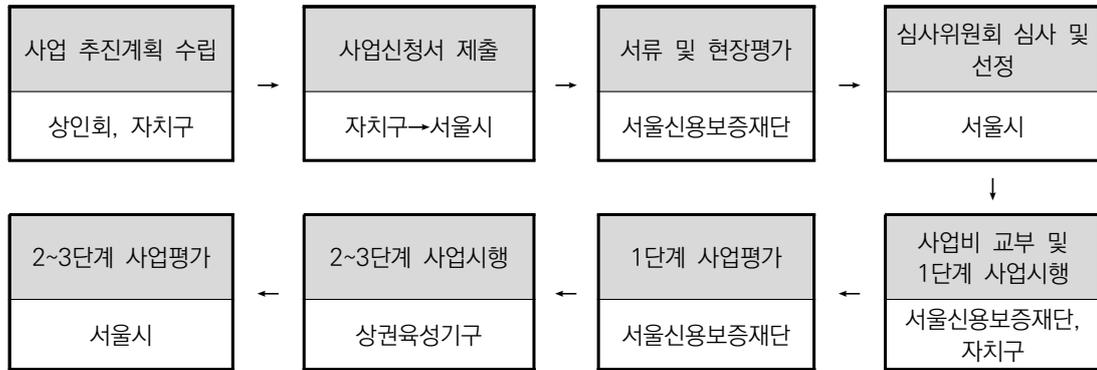
구분	1단계(기반사업)	2단계(브랜드화)	3단계(자생력 강화)
주요 사업	-기반사업(신보, 자치구) -상생협약 체결(자치구) -상권협의체 구성(자치구)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서울시)	-성장사업(자치구) -창업지원(신보, 자치구) -협력사업(신보)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서울시)	-도약사업(자치구) -성과평가·보완(서울시, 자치구) -협력 사업(신보) -크리에이터엑셀러레이팅(자치구)
사업 집행	서울신용보증재단(자치구)	자치구(상권육성기구)	자치구(상권육성기구)
지원 규모	총	5억원 내외	최대 10억원
	시	100%	90%
	구	-	10%

지원대상

30명 이상이 참여한 대표조직이 구성된 상권으로 구역 안에 서울형 골목상권(서울시가 정의한 총 1,090개 골목상권)이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상권의 소상공인 1/2 이상이 사업에 동의해야 한다. 2~3단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절반 이상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구가 설치한 상권육성기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외에 창업자금 융자지원은 서울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하여 지원된다.

진행절차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인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치구가 서울시로 사업을 신청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류 및 현장평가와 서울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수립한 1단계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2~3단계 사업의 수행 여부는 1단계 사업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유관부서 사업내용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개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도사업으로 주민의 준비정도에 맞추어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단계별 지원 사업 및 규모

구 분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목 적	주민모임을 형성하는 최초 단계의 사업	마을의 필요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소하는 사업	종합적인 동네계획,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사업예시	이웃만들기 사업	골목만들기, 공동체공간, 공동육아 등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 찾동 마을계획, 로컬랩 등
지원규모	모임별 50~100만원 이내	(골목만들기) 모임별 300~500만원 내외	모임별 1,000만원 이내

주요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주체에 따라 크게 서울시 지원사업과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서울시 지원사업은 다시 서울시 지원사업과 서울마을센터지원사업으로 세분된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①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②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③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④로컬랩 사업추진, ⑤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⑥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⑦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⑧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⑨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으며, 서울마을센터지원사업으로는 ⑩마을일자리 지원, ⑪서울형 주민자치회시범사업, ⑫공동체공간지원사업, ⑬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이 있다. 한편 자치구 지원사업은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마을단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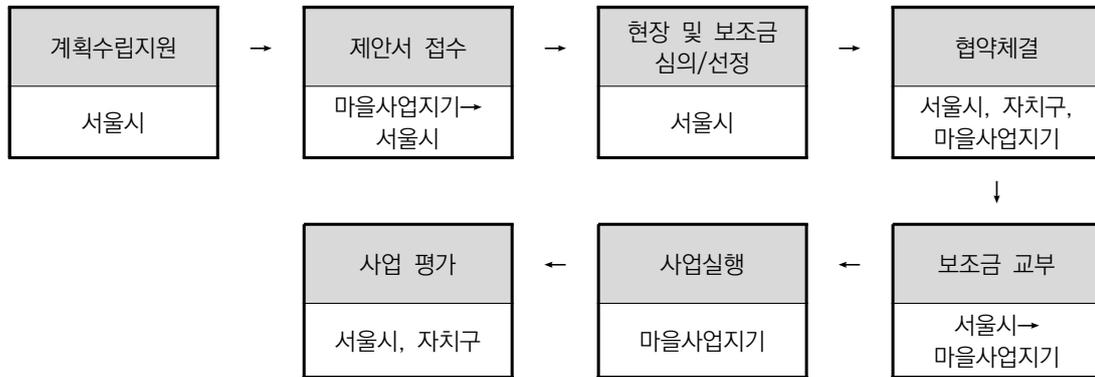
이외에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처음 접하거나 지원사업의 신청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위하여 찾아가는 마을상담 서비스와 주민·마을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체별 교육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

서울시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라면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하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부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안자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진행절차

마을사업지기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신청하면 내부심사를 거쳐 마을 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선정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기 전 선정자 워크숍 또는 마을공동체 회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진행절차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_서울시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태양광 설치, 단열 또는 LED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작업, 에너지 자립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관심 있는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마을별 최장 3년간 연차별 차등 지원 (500만원~최대 1천만원)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라디오, 영상, 잡지, 신문 등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교육 및 활동 단체	- 자유형: 400~800만원 20곳 - 제작형: 800~900만원 20곳 - 지역연계형: 1,400~1,600만원 12곳 - 가정형: 3,000~3,300만원 3곳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들간 해소 및 생활 공유 프로그램 운영, 축제 개최, 주민 배움터 마련, 관리비 절감 사업 등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0퍼트 의무관리단지(비의무 관리단지는 불가)	100만원~800만원 이내(최소 저부담율: 1년차 10%, 2년차 20%, 3년 이상 30%, 단 임대(혼합)단지의 경우 10% 이상)	서울시 공동주택과 자치구 주택과(주택관련 부서)
로컬랩 사업추진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견 및 정의하고 민과 관의 협력으로 분야별 해법을 도출, 향후 실행을 통한 모델링, 서울 전역 확산	- 실행준비 지원 - 신규지역 공모	- 실행준비 지원 8,500만원 이내 - 신규지역: 6,000만원 이내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주도로 진행하여 주민 역량 강화 촉진	- 계획형: 주민자치회 추진 등, 찾동, 마을계획 추진 등, 기타, 구자체, 마을계획 추진 등 - 자율형: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마추진 등	동별 30백만원 이내 지원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마을활력소 직접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주민의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마을공동체형: 지역 혹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 가정형: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유형에 따라 예산 및 공간지원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워이공동체 지원 사업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돌봄이동 3명 이상(0~12세) 공동체	돌봄이동 인원수 별 차등지원 3~4명: 250만원, 5~6명: 300만원, 7~8명: 350만원, 9~10명: 400만원, 11명 이상: 450만원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생활권이 서울시인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33㎡ 이상의 독립된 거점공간 67개소 내외(신규 21개소 내외) 10백만원~ 12백만원	서울시 문화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	주민 유구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마을기업의 출자자로 참여한 법인(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총 550백만원(국비 350백만원, 시비 210백만원)	서울시 사회정책담당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일자리 지원	주민이 직접 필요에 의한 일자리를 발굴,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 지원	주민, 전문가, 행정단위 협력	공론장 운영과 전문가 회의 지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사업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여 동네 의제 발굴, 공적 의사결정 참여, 민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 서울형주민자치회 사업 실행동 -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지원하며, 사업시행용 마다 동자치위원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직무수행 - 주민내 공동체 사용(주민내 공동체는 해당용 인구조수에 따라 상이함)	
공동체 공간지원사업	공간 거점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주민 주도 마을활력소 인성적 운영 지원, 다양한 협력을 통한 자산화 모델 개발 및 지원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주체 - 마을의 공동체공간 자산화를 이루고자 하는 주민단체	- 공동체공간 자산화 민총형 지원 공모 - 지원금액: 유형에 따라 상이함	서울시 마을공동체 융합지원센터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	동 단위 주민참여생태계 구축과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변화를 견인하는 공모사업	5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풀뿌리 단체(주주조직)	- 지원금액: 단체별 최대 7,00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융합지원센터

서울시

서울마을센터

유관부서 사업내용 |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개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낡은 집을 거주자가 직접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①집수리전문관, ②집수리 아카데미 ③공구대여소, ④집수리 보조사업, ⑤집수리 용자사업, ⑥집수리 시공업체, ⑦집수리 성공기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

①집수리전문관 서비스는 집수리전문관이 직접 노후 저층주택을 방문하여 개략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현행 집수리 지원제도의 정보를 제공한다. ②집수리 아카데미에서는 주요 공정별(단열, 타일, 전기공사 등)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하여 간단한 집수리 기술을 배울 수 있다. ③공구임대 서비스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집수리에 필요한 각종 공구를 3일간 무료(1회 연장가능)로 대여받을 수 있다. ④집수리 보조사업으로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일반지역	개발 추진지역
단독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80%)	1,200만원	600만원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세대별 250만원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1,700만원
외부공간 (단독· 공동주택)	①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또는 ②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공사비용 100% (①,②중 택1)	①300만원 ②150만원	-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한 경우)	공사비용 100%	50만원	

출처: jbsuri.seoul.go.kr

⑤집수리 용자사업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한 용자지원사업과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용자사업

구분	집수리			신축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중	다가구
지원한도	6천만원	3천만원 (최대 2호)	3천만원 (세대당)	1억원	5천만원 (최대 6호)
	보증			담보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지원 방법	용자 지원	-대상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적용금리 :고정금리(연0.7%) -상환방식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자 지원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 -대상주택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적용금리 :시중금리(변동금리) -서울시 : 시중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신청인 :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0.7% 이상) -상환방식 :5년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출처: jibsurei.seoul.go.kr

이외에도 ⑥집수리 시공업체와 ⑦집수리 성공기 서비스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⑥집수리 시공업체는 거주자가 집수리 공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⑦집수리 성공기에서는 집수리 업체, 집수리 성공기, 알기 쉬운 집수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④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⑥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⑨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이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다. 이때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행절차

집수리 보조·용자사업의 경우,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의 사전검토와 서울시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착수신고서 제출과 함께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구청의 준공 현장 검토를 거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최종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융자금 신청 절차

유관부서 사업내용 | 한옥등록제도

사업개요

한옥등록제도는 한옥의 소유자 등이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훼손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①보조금·융자금 지원, ②세제 감면, ③거주자우선주차장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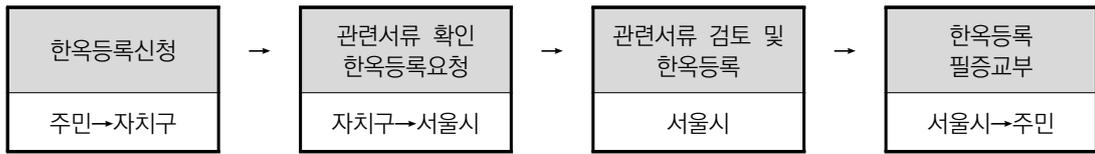
등록한옥의 신축 및 수선을 지원하기 위한 ①보조금·융자금 지원은 수선대상과 수선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먼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 외관에 대한 신축 및 수선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2/3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축의 경우 최대 8천만원, 전면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6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이외 발생하는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 내부에 대해서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전면수선의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에 대한 부분수선의 경우 한옥의 외관이나 내부에 관계 없이 보조금은 최대 2천만원, 융자는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되며 한옥건축양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대상자는 연 0.8%의 업무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은 50% 이내에서 최대 지원금액의 한도를 가산할 수 있다. ②종로구와 성북구 소재 등록한옥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주택 표준세율 0.75/1,000 적용, 토지 산출세액 65/1,000 경감, 건축물 표준세율 1.25/1,000 적용)받을 수 있으며, ③종로구 소재 등록한옥의 소유자는 분기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한옥밀집지역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면 누구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옥등록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절차가 시행되며, 등록에 따른 규제사항이나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부분수선의 경우 5년, 그 밖에는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진행절차

한옥 소유주가 한옥등록신청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치구는 서류 및 현장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한옥등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이 결정된 한옥의 소유자에게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다.



한옥등록제 진행절차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지원**

유관부서 사업내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개요

도심·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①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2/3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역세권으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센티브

사업시행자(시장, 주택공사 등)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역사자원보존)과 선택사항(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 생활문화인프라 확충, 공익시설 설치, 보행가로활성화 도입, 안전·방재시설 설치)을 준수할 경우 최대 200%(준주거지역은 100%)까지 허용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상한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공사비의 80% 이내, 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4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용자할 수 있다.

추진절차

사업시행자(시장, 주택공사, 조합 등)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자치구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는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중심의 조합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 선정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며, 착공 후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은 완료된다.

유관부서 사업내용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①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2/3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역세권으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⑥과소 필지가 전체 필지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⑦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이거나 ⑧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을 포함한다.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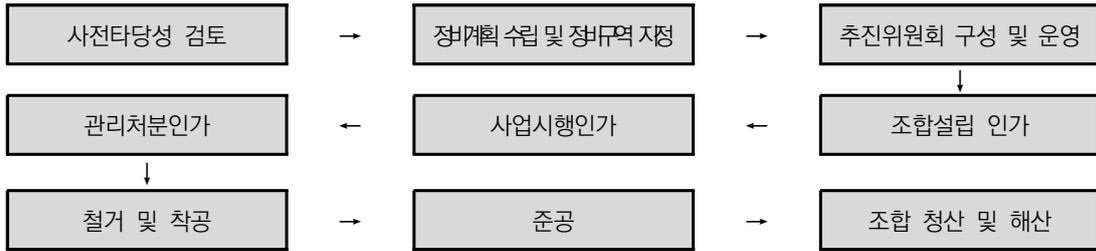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60㎡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이때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조합, 시장, 주택공사 등)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6가지 항목(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지능형 건축물 등급, 역사문화보존)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0% 이내에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받는 상한용적률의 기준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상한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조례상 용적률(150%) 이하				4층 이하(필로티 포함) 정비사업 가능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70%	190%	25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250%	300%	
준주거지역	300%	320%	400%	500%	

추진절차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조합, 시장, 주택공사 등)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을 인가받은 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진행절차

유관부서 사업내용 | 재건축사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일부 멸실된 경우, 수리비·복구비·관리비 등이 건물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 주변 토지환경의 변화로 건물 신축 시에 효용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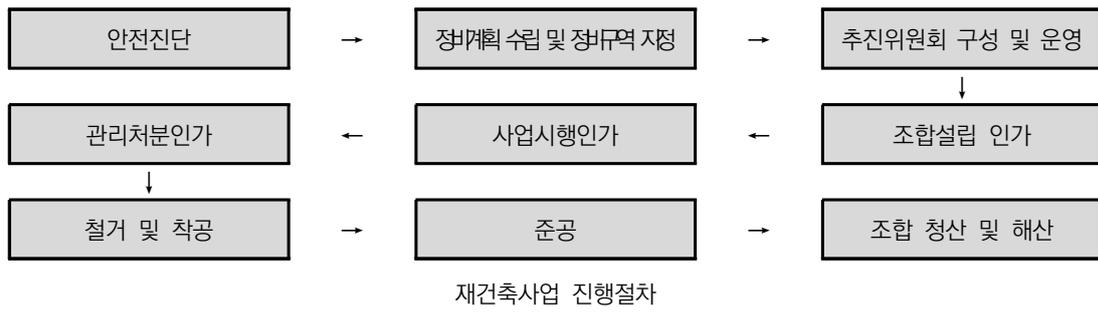
①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②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우려가 있는 지역, ③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④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등을 사업 대상지로 한다.

인센티브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한 경우, 증가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60㎡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이때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조합, 시장, 주택공사 등)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6가지 항목(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지능형 건축물 등급, 역사문화보존)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0% 이내에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받는 상한용적률의 기준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상한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추진절차

안전진단 D등급(조건부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조합, 시장, 주택공사 등)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을 인가받은 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유관부서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등 경제적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으로는 ①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②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수용후 공동주택건설방식, ③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환지방식, ④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방식이 있다.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①1985.6.30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 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②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③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⑤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에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⑥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⑦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⑧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⑨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⑩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⑪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⑫주택접도율이 20% 이하인 지역, ⑬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 이상인 지역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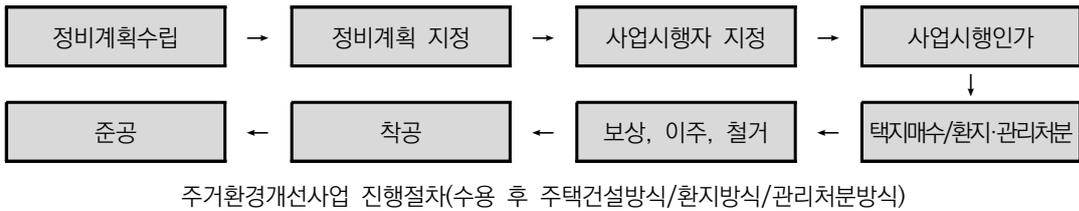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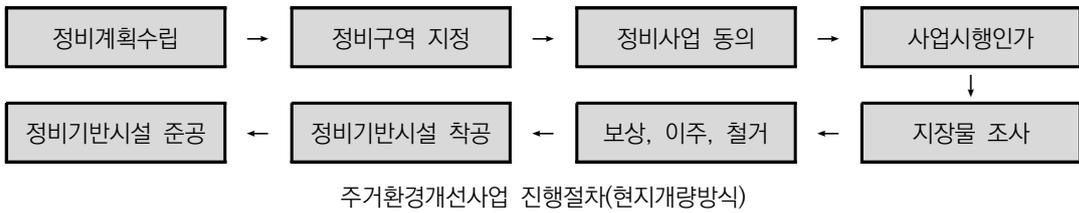
인센티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60㎡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이때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조합, 시장, 주택공사 등)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6가지 항목(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지능형 건축물 등급, 역사문화보존)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0% 이내에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받는 상한용적률의 기준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상한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계

획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추진절차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시행자(시장, 주택공사 등)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방식에 따라 추진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현재개량방식이나 수용 후 주택건설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유관부서 사업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업개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하여 52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대상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①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였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②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하였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③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한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법정 쇠퇴기준에 더하여 2018년 재정비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하여 거버넌스 역량, 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사업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크게 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지역의 특화 산업·상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근린재생형은 국토교통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다시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일자리거점육성형(도시경제기반형), ㉡생활중심지특화형(중심시가지형), ㉢주거지재생형(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거점확산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명칭만 다를 뿐 유형별 특성은 유사하다. ㉣거점확산형은 2018년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신규 도입하였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유형

특별법	유형		재생대상	재생방향	규모
	국토부	서울시			
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	일자리 거점 육성형	대규모(저이용)가용지를 보유한 지역	정부·민간부문과 협력적 추진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50만㎡내외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생활 중심지 특화형	기존의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지역역사·문화·자연자산의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	쇠퇴산(상)업 지역, 역사자원 지역을 지역혁신거점으로 특화	20만㎡내외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 재생형	노후(쇠퇴)하고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20만㎡미만
-	-	거점 확산형	유휴 국공유지 등 주변으로 파급효과가 큰 필지 및 구역	혁신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필지, 소규모 구역단위

현재 서울시에선 ㉠일자리거점육성형 5개소, ㉡생활중심지특화형 15개소, ㉢주거지재생형 32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주요지역은 ‘서울역 일대’, ‘낙원상가 일대’, ‘창동·상계 일대’, ‘창신송인 일대’, ‘해방촌 일대’, ‘성수동 일대’, ‘신촌동 일대’, ‘장위 일대’ 등 8개 지역이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미래유산 산재 지역)

구분	지역	사업방향	주요사업
도시경제기반형	서울역 일대	-사람의 유입을 위한 역사문화적 장소성 강화 -보행친화적 장소 연결로 유동인구 확산 -맞춤형 역량강화로 자생적 재생유도	-서울역 고가 보행환경개선 사업 시행 -남대문시장 개발방향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및 공공건축가 지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낙원상가 일대	-지역의 유무형 역사자산의 강화 -주변 지역과 단절된 공간 연결 -이해와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육성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계획 수립 -문화예술 행사 개최 -익선 소통방 운영
근린재생 일반형	창동상계 일대	-산업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기반 및 생활여가인프라 확충 -공연시설 및 고용기반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연시설 아레나 유치 -지식형 R&D 특화산업기반구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창신송인 일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산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재활성화 -지역자산의 역사문화자원화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행 -가꿈주택사업 시행 -봉제업체 활성화계획
	해방촌 일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노후주택 개량·관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자산을 활용한 마을가치 향상	-기반시설 정비 -주민중심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주거·신흥시장 환경개선
	성수동 일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회복	-산업 Re-Up 사이클링 지원 -온세대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문화 탐방 관광루트 개발
	신촌동 일대	-대학가 지역경제 활성화 -신촌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대학~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강화	-대학가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공간 개선 -청년문화 창출
	장위동 일대	-에너지 재생에 앞장서는 자연친화 마을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김중업 리모델링주택 활용 -동방 향나무 축제 개최 -집수리 지원센터 마련

유관부서 사업내용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개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형 전략산업의 유치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중구 인쇄, 중구 금융, 영등포 금융, 종로 귀금속산업, 동대문 한방, 마포 디자인·출판산업, 성수 IT, 면목 패션·봉제 등 8개 지역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중구 디자인·패션, 양재 ICT를 지정 추진 중에 있다.

대상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패션·디자인, 인쇄출판업 등 공업기능의 특화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디지털콘텐츠,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 연구개발업 등 비공업기능의 특화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지정대상지는 면적 8천㎡ 이상이면서 ①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서울시 해당업종 종사자수의 1% 이상인 지역, ②공장부지비율이 30% 이상인 지역, ③권장업종 사업체가 10개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100% 이상인 지역, ④단위면적당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서울시의 2배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0'보다 큰 지역, ⑤시장이 전략산업의 유치·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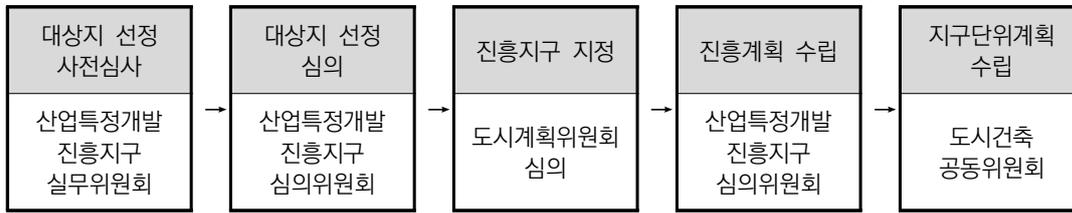
인센티브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①기반시설 설치지원 ②도시계획 규제 완화 ③세금 감면 ④자금 융자 ⑤앵커시설 설치·운영,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흥지구에 ①도로, 공용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고, ②권장업종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면적 비율(20~50%)에 따라 건폐율 최대 150%, 용적률과 높이제한은 12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③지구 내 권장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서울시 및 자치구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주고, ④권장업종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100억 이내(건설비 75%이내), 증개축 10억 이내(사업비 75%이내), 입주자금 8억 이내(시설매입비 75%), 경영안정자금 5억 이내 등 융자지원을 한다. 2023년부터는 사업실적과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지구 지정 절차를 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절차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선 지구 지정, 후 계획 수립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지 선정 사전심사를 거쳐 자치구가 서울시에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를 지정

하고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필요시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할 수 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절차

유관부서 사업내용 | 우수건축자산(건축자산 진흥구역)

사업개요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예술적·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서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건축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선정기준

우수건축자산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사무소, 공연장, 창고 등), 「건축기본법」에 따른 공간환경(주거지, 공공공간, 가로, 공간구조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교량, 철로, 공공청사, 정수장, 공원 등)을 대상으로 ①역사적 가치, ②경관적 가치, ③예술적 가치, ④사회문화적 가치 ⑤멸실·훼손의 위험성 등에 대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한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우 건축·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 심사기준

구분	기준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경관적 가치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특정 구역의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예술적 가치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저명한 설계·기술자 등과 관련되었거나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사회·문화적 가치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지원내용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문, 관리에 필요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유지·보수 관련 사업지원, 관광 자원화를 위한 지원 등 우수자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술지원

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등에 대한 비용(보조, 용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 외관은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내부는 4천만원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액은 환수된다. 용자조건은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용자대상자는 연 0.8%의 업무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대지 내 공지,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높이제한, 건축설비기준 등,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과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건폐율 최고한도를 9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건축제한, 대지 내 공지,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등에 대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차원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의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절차

우수건축자산은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신청서가 수리되면 서울시의 사전검토를 거쳐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절차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우,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의견청취와 건축·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국토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절차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김남주·박지훈·전성애, 2019,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
- 서울역사박물관, 2020, 서울미래유산기록1 낙원떡집
- 서울역사박물관, 2021, 서울미래유산기록2 서울의 대장간
- 서울역사박물관, 2022, 서울미래유산기록3 서울의 이용원
- 서울특별시, 2015,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본보고서”
- 서울특별시, 2015,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본보고서”
- 서울특별시, 2018,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서울특별시, 2021,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추진단, 2022, “2019-2021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종합성과집”
- BMG Research, 2022, “Learning About Local Heritage-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heritage Schools Programme 2022”, Historic England
- Göttler, Monika and Matthias Ripp, 2017, “Community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City of Regensburg and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 Nick How & Nicola Bell, 2022, “Heritage Schools- Evaluation Research Report 2021-22 for Historic England”, Qa Research
- UNWTO, The Case of Internet Entertainment Services,
- World Tourism Organization and Netflix, 2021, “Cultural Affinity and Screen Tourism”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0.29., “‘광주 100년이야기’ 버스가 달린다”
- 서울시 보도자료, 2022.05.18.,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상가임대차)”
- 서울시 보도자료, 2022.04.05., “상가임대차분쟁 해결”
- 서울시 교육청 보도자료, 2020.02.17., “2020년, 서울 초3 학생들의 사회시간이 달라진다”
- 중앙일보, 2021.09.06., “성신여대-강북구, 서울시 캠퍼스타운 신규사업 선정”
- 프레시안, 2018.12.04., “제주 올레길 서명숙씨 초청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 투어’”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9호)
-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043호)

인터넷 홈페이지

- 가치교육컨설팅 <https://valueedu.co.kr>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 서울균형발전포털, <https://uri.seoul.go.kr>
- 서울미래교육지구 <http://newseouledu.or.kr>
-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
-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surc.or.kr>
-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
- 성신여자대학교, www.sungshin.ac.kr
-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추진단, www.sungshin.ac.kr/campustown/index..do
- 수유시장 www.suyumarket.com
- 연세대학교 인액터스 <http://enactusyonsei.org>
- 옥션 <http://promotion.auction.co.kr/>
- 책 it out <http://oldbookbox.modoo.at>
- Albumit Auki, <https://albumitauki.fi>
- Auschwitz-Birkenau, <https://www.auschwitz.org>
- European Heritage Days, <https://www.europeanheritagedays.com>
- Historic England, <https://historicengland.org.uk>
- Netflix, <https://www.netflix.com/browse>

연구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미래유산팀장	이미진, 김은경(전)
담당	박숙경
	윤예리
	권도형

서울연구원

연구책임 민현석 | 선임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연구원 정윤남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민병학 | 고려대학교 스마트도시학과 연구교수
이상민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표지디자인

방&리